

〈번역논문〉

동양적 근세*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 저

鄭炳俊 역**

〈목차〉

머리말

서론 : 동양근세사의 의의

1. 세계와 동양의 교통 개관
2. 중국 근세의 사회경제
3. 중국 근세의 정치
4. 동양 근세의 국민주의
5. 근세의 문화

결어 : 동양의 근세와 서양의 근세

머리말

니혼바시(日本橋) 아래의 물은 팀즈강으로 통하고 도쿄 태생이 마시는 공기는 파리 사람이 내쉬는 숨결이며, 베를린 문제는 근본에 있어서 조선

* 이 글은 『宮崎市定全集』 2(東洋史), 岩波書店, 1992에 수록된 『東洋의近世』를 번역한 것이다(원래는 宮崎市定, 『東洋的近世』, 教育タイムス社, 1950 출판).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의 38선과 통한다.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세계사를 이해하기 위한 궁극의 열쇠는 동양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서양사의 의미를 정말로 알기 위해서는 동양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사의 체계를 생각할 경우 서양을 위주로 하고 동양을 부속시키는 종래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동양은 서양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양과 대등하게 놓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명백한 도리가 막상 실행의 단계에 이르러 얼마나 자주 아무렇지 않게 무시되어 왔는가?

세계사의 입장에 서는 한, 근세라는 개념도 기존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서양과 동양을 대응하게 바라볼 때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서양의 근세를 그대로 동양에서 탐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양사가(西洋史家)가 서양사의 입장을 초월할 수 없고 동양사가가 동양사에만 매달린다면 진정한 세계사가 생겨나지 않는다. 세계사라고는 해도 기실 서로 다른 두 가지 책을 한 책으로 묶어 합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서양에서 미인을 구한다면 금발·벽안이 중요한 조건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동양에서 같은 조건으로 미인을 구한다면 미인을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동양에 미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검은머리와 검은 눈의 미인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구체적인 현상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공통의 요소를 찾는 것에 충분히 관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학의 임무는 이미 존재하는 공식(公式)에 사실을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공식을 탐구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에 전혀 연고가 없다고 생각되어 온 대상(여기서는 서양과 동양이라는 두 가지) 사이에서 공통의 기반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작업은 질적인 것을 가능한 한 양적인 것으로 환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인종의 피부색 차이는 결코 질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색소의 양적 차이

에서 생긴 것이라고 하는 평범한 진리는 역사학의 전도(前途)를 시사하는 듯이 보인다. 질적인 것을 양적인 것으로 환원할 때 비로소 두 가지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양(量)에 대한 평가야말로 종래의 역사학에서 가장 결여되었던 점은 아닐까? 도시국가도 고대제국도 봉건제후도 계급구성과 사회조직만으로는 결코 그 전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양적인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사라고 하는 넓은 시야에 서면 설수록 양이 가진 의의가 커지게 된다.

하나의 역사적 지역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은 절대로 필요한 하나의 요소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동양)가 그 독자적 문화를 계속 유지해 온 것도 역시 양의 위력을 말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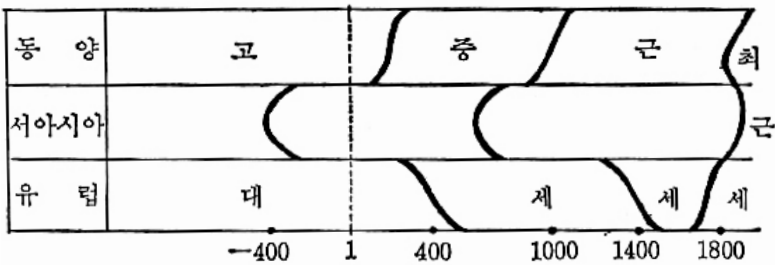
몇천 년이나 지속된 한자라고 하는 상형문자라고도 음부문자(音符文字)라고도 할 수 없는 문자를 사용한 지역은 이 세계에서 드물다. 중국 문화는 이 점에서 확실히 특수한 문화이다. 하지만 서방에서도 완전한 음부문자가 완성되기 전에는 역시 한자와 같은 상형문자도 음부문자도 아닌 문자를 사용한 시기가 있었다. 다만 그것은 극히 짧은 시기에 그쳤던 것에 비해 중국에서는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된 것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미발달된 문자가 미발달된 대로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것은 중국의 위치가 세계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문화는 뭐라고 해도 시골문화이다. 세계의 영광스러운 무대에 출품하여 그대로 멋지게 통하는 상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문화는 시골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진보를 하고 발달도 이루었다. 그것은 뭐라고 해도 그 문화를 지지하는 양의 위력이다. 하지만 이 양의 위력은 때로 불행한 현상도 야기하였다. 그것은 완고한 보수주의이고 고루한 상고주의이다. 모든 것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상대적 위치와 양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독자들은 아래에 제시한 연표를 보길 바란다. 서양사와 동양사의 차이는 서양의 근세가 겨우 수백 년에서 마치고 최근세사로 비약한 데 반해, 동양의 근세는 천 년 가까이 정체되었던 점에 있다. 이 책에서 그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애초 대학에서 행한 강의를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집필을 마치고 다시 읽어보니 자연히 강단조의 느낌이 배어 있고 또 약간 표현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보인다. 언젠가 그 중에서 세계사의 체계를 근본에서 다시 고찰한 것을 세상에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

1950년 10월
미야자키 이치사다

〈세계사 연표〉



* 세계사는 이 연표보다 간단하게는 되지 않는다.

* 이 책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선(斜線)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

서론 : 동양근세사의 의의

역사 연대의 삼분법, 즉 전체 역사시대를 고대사·중세사·근세사라는 세 시기로 나누어 이해하는 방법은 먼저 서양사에서 확립되었고 지금도 대체로 이의 없이 승인받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서양 이외의 세계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론(異論)이 있다.

유럽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세계 전체에서 하나의 특수한 지역이다. 특수한 지역에서 나타난 역사 발전의 형식을 그대로 다른 지역에 응용하려고 할 때에는 물론 큰 위험이 수반된다. 하지만 특수한 것을 일반에 응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확정하게 되면 이른바 특수한 것이 실체는 특수가 아닌 것이 된다. 즉 그것이 일반성을 가진 하나의 표본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대·중세·근세가 각각 지닌 의의는 유럽사 이외의 입장에서 재검토해 보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약간의 수정도 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특수한 사례에서 일반성을 도출하려고 할 때에는 당연히 그것이 정신적인 것보다 현상적인 것에 무게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성이라고 한 이상 그것은 상호 비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형상(形相)이 먼저 문제가 된다.

가장 현상적으로 설명하기 쉬운 면에서 유럽사의 고대·중세·근세의 특징을 찾아본다면 고대라는 것은 그리스·로마의 분산적인 도시국가 군(群)이 점차 통합되어 로마제국이라는 대통일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중세란 이 대통일이 무너지고 봉건적인 분열이 도처에서 잇달아 일어난 시대이고, 근세란 그것이 다시 새로운 통일로 향하려고 하는 시기이다. 통일·분열·재통일이라는 것이 유럽사에서 고대·중세·근세라는 삼분법의

기저에 놓여있는 공식이라고 해도 좋다.

이는 너무나 피상적인 견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피상에 대해 그 이면에 있는 굳건한 골격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이다. 애초 통일이나 분열이라는 현상은 적어도 필연성을 갖지 않는 우연한 비역사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 예로 고대사에서 통일적 경향을 들어보겠다. 우수한 문화를 지녔으면서도 그리스 국가들이 끝내 큰 통일을 이루지 않은 것은 결코 통일을 바라지 않은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테네와 같은 곳은 한때 방대한 해상제국을 건설하였으면서도 그것이 결국 단기간에 역전·붕괴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리스문화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로마공화국이 지중해 연안의 통일을 완성한 것은 물론 무력에 의한 것이지만, 이 무력은 결코 우연히 단독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그렇게 여겨지지만, 다만 개개의 무기나 전술을 비교해 본다면 로마인은 조금도 그리스인보다 진보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거기에는 그리스에 보이지 않은 기마전술의 도입과 유행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리스인이 이를 수 없었던 일을 로마인이 성취한 것은 그러한 물질문화의 발달과 병행하여 그리스인보다 훨씬 진보된 정신적인 장점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조직의 힘이다. 그들은 그 우수한 조직력으로 아직 일찍이 역사상에 보지 못한 양(量)을 움직일 수 있었다. 별도로 역사서를 뒤져서 군대의 숫자나 군함의 숫자를 비교할 필요도 없다. 로마의 유적이 그리스의 그것에 비해 월등하게 거대하다는 것을 떠올리기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이 로마인의 조직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리스인은 고유의 도시법밖에 갖지 못했고 도시법과 도시법이 서로 충돌하여 결국 그리스민족의 전체적 활력을 소모시켰다. 그렇지만 같은 도시법에서 출발한 로마인은 마침내 이를 세계법으로 발전시켰다. 로마라는 한 도시의 시민만으로는

이탈리아반도의 통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라틴동맹만의 힘으로는 지중해를 제패하지 못했고, 이탈리아인만의 힘으로는 로마 대제국의 유지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로마시민권을 정복지 쪽에 대해서도 잘 분배한 것이 로마적 지배가 성공한 원인이다. 혹은 이러한 사상의 원류는 이미 그리스 안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한 것은 로마인이었던 것이다.

언어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지리적 조건이 다른 대(大)지역의 통일은 원래 매우 어려운 일이다. 민중 측에서 말하면 작은 지역의 대립상태 하에 놓여있으면 이에 수반한 고뇌가 있지만, 대통일 하에 있을 때에는 또 그 나름의 불리함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어떤 시대, 어떤 지역에서든 반드시 통일을 추구하는 구심력과 분열을 바라는 원심력이 동시에 작용한다. 통일을 지향한 시대라고 해도 반드시 어떠한 저항도 없이 통일이 실현된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 어떤 때에도 존재하는 원심력을 압도하여 구심력이 표면에 나온 결과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실현된 뒤에는 마침내 또 구심력 쪽이 쇠퇴하고 반대로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것이 즉 중세이다.

생각건대 로마적 대통일은 외연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로마가 지중해안의 정복에 성공하였으면서도 동쪽으로 메소포타미아로 진입하지 못하고 북방으로 게르만 세계의 정복에 실패한 것은 그 외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정이 존재하였다. 즉 속령(屬領)의 인민은 비록 법제적으로 로마시민이 되었지만, 문화적으로 로마화되어 완전한 로마국민이라고 자각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끊임없이 분열적인 계기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로마제국의 동서 분치(分治), 그리고 또 4현(縣)의 설치와 같은 것은 그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안전판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파국은 외부에서 일어났다. 게르만민족의 침입에 의해 로마제국의 외형이 파괴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수반되었던 것이다. 유럽사는 이로부터 할거적인 중세로 진입하였다.

단순히 통일이라는 견지에서만 보면 중세사는 명확하게 역행이며 퇴보이다. 그렇지만 옛 로마제국 영내의 인민은 이제 형식적이고 화려하지만 동시에 자유스럽지 못한 질곡을 수반한 통일을 버리고, 지형적·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정해진 작은 지역으로 분열되어 각각 봉쇄적인 소(小)세계를 형성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대통일 시대에는 불가능하였던 사회의 재편성·재조직이 이 작은 지역을 단위로 하여 실현되었다. 토지의 개발, 종교교육의 보급이 강화되었다. 자본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단위에서 축적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형세 하에 종래의 로마 세계와 게르만 세계의 첨예한 대립이 해소되어 하나의 유럽 세계가 탄생한 것이다. 중세에는 중세 나름대로 일종의 역사적 발전이 있었다. 그것은 외부를 향해 광채를 발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내부를 향해 차분히 실력을 축적하는 성질의 것이었다.

하지만 중세적 분열할거에는 또한 이에 수반한 폐해가 생겨났다. 그것은 각각 작은 지역 간 상호 이익의 충돌이 자주 무력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을 내포한 점인데, 그것은 당시의 지배계급 간에 유지된 봉건제도 때문에 더욱 격화되었다. 이 형세는 이윽고 도시에서 상인 세력의 융성을 배경으로 봉건적인 속박에서 스스로를 해방하려고 하는 인간성의 각성이 학예부흥(르네상스)이 되고 종교개혁이 되어 유럽 지역은 근세사의 단계로 돌입하였다.

도시 경제력의 향상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것은 국민주의(내셔널리즘)의 발흥이다. 중세적 분열에 의해 본래 자유로워야 할 인류의 행동 범위 위에 가해진 속박은 다시 큰 통일을 희구하게 하였다. 이 민중의 희망과 제왕(帝王)의 정치적 야심이 하나가 되어 국민주의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원래 봉건세력의 중핵이어야 할 제왕이 근세에 들어 봉건제

도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며 국민적 통일을 성취하기에 이른 것은 제왕이 도시의 경제력과 직접 결합한 때문이다. 봉건 무사(武士) 간의 작은 싸움은 근대적 무기로 무장한 대부대의 결전으로 바뀌고 할거적인 지방정권은 강대한 중앙정권에 포함되어 소멸되었다.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항상 보이는 중간적 세력 배제의 법칙이 여기에도 작용하였던 것이다.

국민주의는 기존의 민족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단순히 기성세력만을 결합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존재한 소수세력이 희생되어 그 안에 용해되었다. 그 예를 프랑스에서 보면 지금의 프랑스국민은 결코 동일한 인종이 아니고 언어 역시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한 브레톤어와 바스크어와 같은 이질적 분자(分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함한 대(大)프랑스민족을 자각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인데, 독일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옛 오스트리아 제국과 같은 것은 표면적으로 하나의 국민을 형성한 듯이 보였지만, 영내의 슬라브계 민족들의 경우에는 끝내 자기 고유의 민족의식을 희생으로 삼으면서까지 대(大)오스트리아국민을 결성하려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다. 반면, 스위스에서는 언어가 이탈리아·프랑스·독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하나로 묶여진 스위스국민이라는 완전한 자각에 도달하였다. 그 성패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랐던 것인데, 민족적 자각을 기조로 하면서도 종래의 민족관념을 초월한 대국민의 형성이라는 이상이 중세적 분열로부터 다시 통일로 향하는 근세사적 발전에서 큰 역할을 연출하였던 것이다.

유럽사에서 세 시대의 개념은 대략 이상과 같은 것이지만, 그렇다면 그리한 시대관은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역사적 지역과 지리적 지역은 다르다는 점이다. 지리적 지역은 극단으로 말하면 예컨대 인류가 서식하지 않더라도 자연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역사적 지역은 인류가 서식할 뿐 아니라 아울러 거기에 역사적 발전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류사회의 역사적 발전은 어떤

지리적 지역을 기반으로 함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지리학적 지역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역사적 지역은 지도를 펼쳐놓고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며 역사를 살펴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역사적 지역을 찾아보면 먼저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이슬람세계 및 동양의 중국 중심의 세계를 들 수 있고, 계속해서 인도와 일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인도를 서남아시아에 포함시켜 서아시아라고 하고, 일본과 중국을 합하여 동아시아라고 하여 대조시켜 불러도 상관없지만, 지금 학계에서는 아직 일치된 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다.

동양에서 고대사적 발전은 춘추시대의 도시국가 할거에서 시작하여 전국시대의 소(小)통일을 거쳐 진한(秦漢) 대제국의 전성기에 이른다. 그 시기는 할거에서 통일로 향하는 추세가 지배적이었다.

로마제국에 비견할 만한 한(漢) 제국은 게르만 용병에도 비교할 수 있는 북방민족 출신의 군벌세력이 동요하는 외중에 휩쓸려 멸망하고, 삼국시대 이후 지방분권적 경향이 현저해진다. 서진(西晉)의 일시적 통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북방 이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이후 남북조의 장기 분열시대로 들어간다. 분열은 중국 남북의 분열에 그치지 않고 당시 국내 사회에도 할거적 경향이 강하였다. 그것은 지방 호족(豪族)의 토지 점유였고 이 경제적 할거가 때로는 정치적으로 발전하여 내란이 되는 일도 자주 있었다. 그러한 할거적인 지방세력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것이 봉건제도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은 그들 호족이 가장 현명하고 또 합리적으로 그 실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즉 당시 최하층의 향(鄉)에서 호족의 대표자가 현(縣) 정부를 구성하고 현의 호족이 주(州) 정부를 구성하고 주의 호족이 나아가 중앙정부를 구성하였다. 중앙정부로부터 추대된 군벌 천자는 지방장관을 임명하지만, 그 장관은 역시 호족의 대표자였고 호족끼리 서로 기득권을 인정하며 자기 계급의 이익 보전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별도로 봉건제를 채용하지 않아도 봉건적 신분제를

채용함으로써 지방 호족은 그 재산을 자손에게 전하였을 뿐 아니라 아울러 그 사회적 지위를 세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호족은 안쪽에서 보면 지방적 토호이고 표면에서 보면 관료적 귀족이다. 이 점에서 거의 유럽 중세의 봉건제도와 다를 바 없다.

분열적·할거적인 동양 중세에도 때로는 표면적인 대통일의 시대가 출현하였다. 수당 왕조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민족 사회의 필연적인 추이·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증원에 침입한 북방민족의 대동단결이 가져온 결과이다. 마치 샤를마뉴 대제의 중세적 통일이 실체는 로마제국의 후신이 아니라 북방에서 침입한 게르만 민족대통일의 귀결이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당 왕조의 세력은 한대의 영역을 훨씬 능가하여 더욱 확장하였던 것에 비해 샤를마뉴 대제의 영토는 결국 로마제국 전영토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당 왕조도 그 성세가 영속하지 못하고 중엽 이후는 다시 원심력적 할거세력이 대두하여 중세적 양상을 농후하게 보이는데, 이어서 오대(五代)가 되면 철저한 대분열이 도래하여 그때까지 비교적 양호하게 통일을 유지하였던 강남 지방이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大)분열되었다. 그리고 중세적 분열이 극점에 달하자 여기서 재통일의 기운이 일어나 송 왕조의 천하통일과 함께 동양적 근세사가 시작되었다.

송의 천하통일은 그 무력에 의한 것이지만, 아울러 경제력에 의한 바가 많다. 그리고 통일이 완료되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대로 국내 상품 가운데 중요한 것 즉 소금·차·명반[礬]·구리 등을 관영 혹은 전매로 만들고 상업 통제를 강화하였다. 소금의 전매는 일찍이 당대 중기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당 왕조는 이미 쇠퇴하여 충분히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통일왕조로서 처음부터 상업을 통제하며 인민을 다스려 중앙집권의 기반으로 삼은 것은 송 왕조부터 시작되었다. 경제적인 중앙집권체제가 성취되어 이후 역대 왕조의 기초가 확고부동하게 되었다. 또 중세 시대에

자주 반복되었던 황제 찬탈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정치의 상업 통제는 한편에서 보면 자유기업에 대한 압박이지만, 한편에서 보면 이는 상업의 보호를 의미하였다. 즉 관업(官業)에 종사하는 상인은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고 적어도 교통 운반에 대해서는 정부의 무력에 의한 보호를 받아 노상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었다. 관도(官道)로서 발달한 운하망은 일반 인민에게도 개방되었고, 국내 상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시의 경제력이 대두하였다. 그러한 도시의 발달을 배경으로 문화가 향상되었다. 일종의 학예부흥(르네상스)과 일종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과학사상의 발전과 함께 인간성의 자각도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통일되고 신문화가 보급된 중국사회에서는 국민적 자각도 현저해졌다. 그리고 중국의 그것과 병행하여 중국 주변의 이민족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수주의가 발흥하였다. 민족 내지는 국민을 단위로 하는 국제관계의 발생은 동양에서 옛날부터 있었지만, 송대 이후에 그것이 특수한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서로 강하게 자각하고 의식된 국민주의의 대립으로 나타난 것이다. 송 이후의 한족 왕조는 중세의 경우와 같이 찬탈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는 이민족의 국민주의에 의해 멸망하였다. 송 왕조와 명 왕조는 이 예에 속한다. 송대 이후에는 다른 나라에 대한 화번공주(和蕃公主)의 출가가 보이지 않는다. 왕조는 일가(一家)의 사유물이 아니라 민족의 상징이 되어 왕가(王家)와 외국 왕가의 화친은 정치적 의의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주의가 서로 대립된 결과는 자주 중국민족의 단결을 파괴하여 강력한 이민족 왕조가 중국 영토 안으로 국경선을 전진시킨 것이었다. 요(遼) 왕조가 이른바 연운(燕雲) 16주의 한인을 지배하고 금 왕조가 회수(淮水) 이북의 황하 연안을 점령하여 남송과 대치한 것은 그 예에 속한다. 원 왕조에 이르면 전중국을 병합하고 역사상 공전의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북족(北族) 출신 왕조의 국민주의는 마침내 그 지배하의 한민족을 자기에게 동화시켜 신국민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항상 문화적으로는 선진국인 한민족의 반격을 받아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 상례였다. 원 왕조 이후에는 만주에서 출현한 청 왕조가 명 왕조를 대신하여 그 영역을 계승하였을 뿐 아니라 거의 원대의 성세에 미치려 할 정도로 융성하였지만, 이것도 만(滿)·한(漢)·몽(蒙)·회(回)·장(藏)이라는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의 국민이라는 자각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힘은 가지지 못하였다.

송대 이후의 동양적 근세를 그 이전의 동양적 중세와 구별하는 것은 누구도 의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근세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해 바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논란은 자주 있어왔다. 그러한 의견은 유럽의 근세를 특수한 모습으로만 이해하여 유럽 근세가 가진 보편적 의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에서 출발한 듯하다. 그것은 어떻게 하기 어려운 완고한 입장임으로 어쩔 수 없지만, 이와는 별개로 또 동양에서의 근세를 부정하기 위해 말하는 유럽적 근세라는 개념이 실은 내가 말하는 근세와는 내용이 상당히 바뀐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점은 오해를 하지 않길 바라는 바이다.

애초 유럽 근세사는 통상적으로 학예부흥 이후를 가리키지만, 동양의 근대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논자가 말하는 근세는 특히 산업혁명 이후의 유럽이나 자본주의가 융성한 유럽만으로 엄밀하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령 유럽 학예부흥의 개시를 기원후 1,300년경으로 보면 그 후 200여 년 뒤에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 유럽은 더욱 근세적이 되었다. 제지(製紙)와 인쇄업이 성행하고 화약이 수입되고 항해술이 발달하였으며 국민주의가 발흥하여 프랑스를 선두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성립하였다. 이 기간의 유럽은 명확하게 중세와 다른 근세였다. 그리고 이 무렵의 사회상황을 송·원·명·청의 그것과 비교하여 모두 근세라고 불러도 특별히 비례를 잃은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 후 유럽에는 기원후 1750년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이

어서 1800년을 중심으로 프랑스 정치혁명이 발생하였다. 이로부터 유럽은 갑자기 새 시대로 진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어떤 지역 역사에도 전혀 보이지 않은 새로운 시대이다. 유럽의 근세는 명확하게 학예부흥(르네상스) 단계를 뛰어넘어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비약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은 유럽사를 배우는 사람보다도 동양적 입장에서 관찰할 때 한층 명확하게 그 의미가 파악된다. 동양에는 학예부흥도 있고 종교개혁도 있었지만, 그러한 두 가지 혁명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보아 나는 산업혁명 이후 유럽을 특히 최근세사라고 하여 학예부흥 단계의 근세사와 구별할 것을 제창하고 싶다. 학예부흥에서 산업혁명까지는 겨우 400~500년 지나지 않으므로 서양사가는 종종 이 단계의 독자성을 놓치는 경향이 있지만, 유럽 이외의 동양 국가들은 일찍 이 단계까지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1천여 년이나 헛되이 제자리걸음을 계속하여 마침내 다음 단계로 비약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유럽사의 출발은 서아시아사에 비교해도 동아시아사에 비교해도 늦었다. 특히 지금 유럽의 중핵을 이루는 서북 유럽은 가장 후진국이였다. 그것이 두 개의 혁명을 거쳐 다른 지역을 제치고 최근세의 단계에 도달하여 전세계에 대한 지도자의 지위에 섰다. 그것은 그들이 극히 단기간에 근세사를 졸업한 결과이다. 후진국에서 돌연히 선진국으로 전환된 급변한 지위에서 성찰 없이 다른 세계의 현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과거로 소급하여 유추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동양인 자신도 여기에 유혹되었던 것이다. 서양보다도 일찍 시작된 동양의 근세를 곧바로 부정하기 전에 한번 마르코 폴로의 입장에서 원대의 중국을 보고, 마테오 리치의 입장이 되어 명대 사회를 관찰해 보고 싶은 것이다.

1. 세계와 동양의 교통 개관

역사의 흐름상에 미치는 교통의 중요성은 종래에 지나치게 경시된 느낌이 있다. 역사지도를 보아도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도 국경선이 그어지고 채색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교통노선을 제외하면 역사지도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아낼 수는 없다. 예컨대 만리장성은 왜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서방으로 깊숙이 뻗어있는 것일까. 그 답은 간단하다. 장성 서쪽 끝 남측에는 특히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수의 한민족이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국에서 서방으로 통하는 교통의 대간선이었기 때문에 이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리장성이 멀리 서방으로 뻗어있고 그 남측에 한민족 군현(郡縣)이 좁고 길게 사막 가운데로 파고들어 이른바 서역 나라들 즉 신장성(新疆省)과 접하였던 것이다.

송대에는 이 지방에 서하(西夏)라는 독립국이 나타났다. 오지에 생긴 작은 정권이지만, 아무래도 중요한 교통로선상에 흥기한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송은 애써 이를 굴복시키고자 수년 동안 격렬한 전쟁을 반복하였다. 이로 인해 소국인 서하의 이름은 중등교과서에도 언급되고 있다. 서장(西藏)과 같은 대국의 존재는 거의 잊혀지고 윈난(雲南)의 대리국(大理國) 등도 거의 무시됨에도 불구하고 서하의 이름이 역사상에 유명한 것은 교통의 중요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인류의 문화는 교통에 의해 발달한다. 극지인 에스키모와 남아프리카, 호주와 원주민에게 문화가 번성하지 않은 것은 그 땅의 자연 자원이 빈약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들은 세계 교통의 큰 길에서 멀리 있어 일반 인류의 진보로부터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류의 문화는 인류 전체의 합작의 소산이다. 한 지방에서 이루어진 발명은 교통에 의해 인류 전체의 공유물이 되고 이에 자극받아 다른 지방에서 다시 새로운 발명이 이루어진다. 인류의 문화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소의 점철을 보이지만 전

체로서는 끊임없이 향상하는 것이다. 이는 종이와 화약과 나침반 등의 전파 경로를 찾아보면 일목요연해진다. 그렇지만 세계의 교통에서 소외된 지역의 주민은 이 이익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그 결과 문화적 수준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은 의식적으로도 외래문화를 거부하여 점점 자기 사회의 폐쇄성을 심화시켜 외부세계와의 교통이 더욱 곤란해지게 되는 것이다.

교통에 의해 획득되는 이익은 지식의 교환을 통해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외부세계로부터 온 이질 문물에 대한 경이와 열매만으로도 역사를 움직이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남해에서 생산되는 향료가 얼마나 유럽인의 기호에 파고들어 해상으로 활약할 용기를 자극하였는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를 열렬히 좋아한 북방 유목민족이 어떻게 대동단결하여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되었는가. 중국인의 옥기에 대한 애호야말로 그 대응품을 얻기 위해 고심하게 하여 마침내 최초로 경질의 미려한 자기를 완성하게 한 것은 아닐까.

어떤 지역의 문화 수준은 그 교통량에 정비례한다는 것은 과언인지 모른다. 하지만 교통에서 제외되어 봉쇄된 사회의 문화는 반드시 정체하여 세계의 낙오자가 된다는 것은 명확히 말할 수 있다. 도쿠가와 시대 일본의 쇄국정책이 얼마나 일본의 문화를 정체시켰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태평양전쟁 시기 겨우 몇 년 간의 고립상태는 도쿠가와 약 300년의 쇄국에도 필적할 정도의 후퇴를 일본에 가져다주었다고 말해지고 있지 않는가.

교통이 어떤 지역의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자의 통과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예부터 세계교통의 요충에 해당하는 지역에 반드시 문화가 번성한 것이 아닌 이유는 문화가 그곳을 그냥 지나치고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의 발달에는 역시 기지(基地)가 필요하다.

초원·사막 지대의 유목민족은 종래에 생각하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화의 매개자이자 교통의 담당자였다는 것이 근래에 점차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문화가 번성하지 않은 것은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동성은 문물의 축적과 양립될 수 없다. 문화의 축적은 정착한 농경민족에 의해 비로소 실현되었다.

문화의 축적은 물질과 떨어질 수 없다. 물질의 축적 위에서 비로소 문화의 축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축적도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면 효과가 적기 때문에 큰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말하면 분산적 농촌은 문화의 축적에 적합하지 않고 상업적 밀집도시야말로 알맞은 기반을 제공한다. 문화의 모태는 뭐라고 해도 도시이다.

물자도 문화도 매우 소심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곳을 피하고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아 정착한다. 그리하여 최초로 선택된 곳은 정권이 위치한 정치도시이다. 예컨대 자연 지형이 원래 교통에는 불편한 토지라고 해도 물자는 점차 정권의 비호를 구해 이곳에 집중하고 교통로도 어쩔 수 없이 이 지점으로 다가온다. 대도(大道) 장안으로 통한다는 것은 동양 고대·중세의 일반적 현상이었다.

하지만 교통의 빈번한 정도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교통 자체의 편의에 따라 교통로상의 요지에 큰 상업도시가 생겨난다. 그리고 그곳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면 정권은 이에 대해 특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가장 편의적인 방법은 그러한 상업도시를 그대로 정치도시로 삼는 것이다. 오대·송 이후 중국의 수도가 교통에 불편한 장안·낙양을 버리고 교통도시·상업도시인 개봉(開封)으로 이전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동시에 송대 사회의 근세적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진한 통일제국 이래 당대에 이르기까지 수도는 주로 장안에 두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낙양에 두어졌다. 장안은 산시성(陝西省) 위수(渭水) 분지에 있고 예부터 분지 주변 분수령(分水嶺)의 사방에 관(關)을 두어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였다. 이른바 관중(關中) 땅은 산하(山河)가 험준하여 견고한 천연의 요새 지역이었지만, 그 외에도 교통상의 조건을 들 수 있다. 당시 세계적인 교통로의 간선은 신장성 천산남로를 통해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노선이었으므로 장안은 서방에서 이어진 교통로가 중국의 대평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던 것이다. 이른바 장안은 서방무역에 대한 육지 항구여서 중국의 특산물은 여기서 일단 집적된 후 서방상인에게 넘어가고 외국에서 온 상품도 여기에 집하되어 중국 각지로 흩어졌던 것이다.

이 아시아대륙의 횡단교통로는 장안에서 다시 동방으로 뻗어 낙양을 지난 다음 황하를 따라 발해만으로 나가 만주·한반도 해안을 거쳐 일본의 규슈 북안에 도달하였다. 일본민족은 처음에 오로지 이 교통로를 통해 대륙과의 무역을 영위하였다.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잇는 교통로는 앞에서 말한 북방 육로 이외에 남방의 해상을 거치는 우회로가 있었다. 원래 중국의 연안항로는 이치적으로 말하면 어디건 다닐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양자강 이북의 해안은 좋은 항구가 적고 해안에서 육상 취락까지의 거리가 멀 뿐 아니라 해상 풍파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발달하지 못하였다. 양자강 이남은 저장(浙江)·푸젠(福建)의 해안에 굴곡이 많고 풍파를 견딜 수 있는 항만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대군을 운반하였다는 기록도 보이고 예부터 어느 정도는 이용되었을 터이지만, 교통이 성대하게 이루어진 것은 광둥(廣東) 이남의 외국항로이다. 광둥을 출발하여 겨울무역풍을 타고 배로 나가면 도중에 점성(占城) 앞바다에 이르고 여기서 땀나무·물·식량을 보급 받은 후 곧장 남하하면 자연스럽게 말레이반도 남단인 싱가포르 부근에 도착한다. 이렇듯 점성은 남해교통상의 요충이기 때문에 중국은 자주 이 땅을 차지하고자 하여 육상에서 해안선으로 내려가 영토를 넓히고 점성을 병합하려고 열망하였던 것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앞으로 항로가 두 개로 나누어진다. 동남으로 굽으면 자바를 경유하여 향료 제도(諸島)에 도착하는데, 중국상선은 대개 자바를 종점으로 하고 자바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것에 만족한 듯하다.

싱가포르에서 서쪽으로 나아가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면 인도양으로 들어가고 다시 벵골 만을 횡단하면 실론섬에 도착한다. 중국상선은 대개 이곳을 회귀점으로 하여 인도·페르시아·아라비아 상인과 화물을 교환하고, 이보다 앞의 페르시아만 언저리까지 진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페르시아 만에는 티그리스·유프라테스라는 두 강이 유입되는데, 두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상류에서 북방 육상 대간선의 서단(西端)과 교차한다. 그리고 유프라테스강의 서안은 시리아로서 지중해에 임하고 해안의 편리한 지점에서 유럽을 향해 출항할 수 있다.

그처럼 아시아의 동서를 연결하는 남북·육해의 2대 교통로선은 그 서단이 서아시아의 시리아 부근에서 만나게 되는데, 동단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것은 중국의 지형이 광활한 평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흐르는 하천은 대략 동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동서 교통에는 편리하지만, 남북 교통은 반대로 하천으로 인해 방해받았다. 장안에서 광둥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차례 방해가 되는 대하(大河)와 그 대하 유역을 나누는 분수령을 횡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평야에는 예부터 자주 운하가 굴착되었다. 동서로 흐르는 대하는 그 하류 저지대에서 아래위로 운하로 연결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운하는 예부터 부분적으로 존재하였지만, 그것을 정리·통일하고 계통적으로 대운하를 조직하여 북방은 백하(白河)에서 황하·회수·양자강을 관통하고, 남방은 전당강(錢塘江·절강) 입구에 이르는 수로망을 완비한 것이 수(隋) 양제(楊帝)였다.

역사상에는 희대의 폭군으로 이름 높은 양제가 후세에 은혜로 남긴 대운하라는 유산은 단순히 중국의 입장에서만 평가할 것은 아니다. 그것은

중국 내부의 교통 촉진과 동시에 아시아를 횡단하는 남북 육해 2대 간선의 동단을 연결한다고 하는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 대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이 대운하의 개통으로 장안에서 황하를 내려와 개봉에 도달하여 운하의 배로 바꾸어 타고 전당강 입구의 항주(杭州)에 이르러 저장·푸젠의 해안을 남하하면 큰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광둥에 도달할 수 있다. 대운하가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당대(唐代)에는 서방의 아라비아인(大食)·페르시아인(波斯)이 장안·광둥에 그치지 않고 운하상의 요충지인 양자강 변의 양주(揚州)에 거주하며 번창한 거류지를 만들어 상업에 종사하는 자가 수천 인을 넘었다고 한다.

내가 대운하의 세계사적 의의를 강조하였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중국에 끼친 영향을 경시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대운하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중국사회 자신이었다.

당대의 서아시아는 마침 배화교(拜火教)의 페르시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이라는 신종교를 신봉하는 아라비아인이 흥기하는 교체시기에 해당하였다. 배화교의 페르시아 왕조는 서아시아에서 중세적 귀족문화의 정점을 만들어냈으며 이에 대한 신흥 아라비아인의 이슬람운동은 일종의 종교개혁이었다. 이윽고 전승(全勝)의 아라비아세력을 대표하는 압바스 왕조가 티그리스강변의 바그다드를 수도로 삼고 이전의 그리스·페르시아 문화들을 흡수·변안하여 눈부신 학예부흥현상을 현출하였다. 이 신흥 이슬람문화는 그 본질에 있어서 매우 근세적인 색채가 농후하다는 특징을 지녔다. 그런데 아라비아인에게 토지를 공략당한 페르시아의 귀족 등은 아라비아인 밑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육로와 해로를 통해 중국 영내로 망명하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정복자인 아라비아인 자신도 또한 그 뒤를 따라 중국으로 흘러들었다. 이 페르시아인·아라비아인을 중국에서는 각각 파사(波斯)·대식(大食)이라고 부르고 합쳐서 호인(胡人)이라고도 불렀다.

상업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호인의 중국에서의 활약은 눈부신 점이 있다. 그들은 중국 근세의 귀족과 같이 대토지소유자가 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주로 상업자본가로서 동산(動産)을 축적하였다. 당대의 이의산(李義山)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궁핍한 파사’를 들고 있는데, 그만큼 파사라고 하면 부자를 연상시키고 궁핍한 파사는 상상이 되지 않는 희대의 존재였다. 중국 근세에 성행한 동산 자본의 원류는 당대에 보이지만, 그러한 대자본 상업경영의 방법은 아마도 이주 파사인이 중국인에게 가르친 바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당 제국 지배하에 중국 국내시장의 개발은 눈부신 진전을 보였던 것이지만, 당 중기 이후 북방민족의 침입·반란, 그 결과로 생겨난 군벌의 할거는 이 형세를 좌절시켰다. 당이 멸망하고 오대가 되면 양자강 이남은 북방에서 분리된 상황에서 다시 세분되어 남당(南唐)·오월(吳越)·촉(蜀)·남한(南漢)·초(楚)라는 여러 정권이 할거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해안선 혹은 내륙수로 교통로의 일부를 점거하여 나라를 세웠다. 오대의 분열은 교통로의 분할이고 동시에 이 일은 국내시장의 분열을 의미하였다. 그러한 국내시장의 분열은 이윽고 통화의 분열을 가져와 각국 독자의 통화·연전(鉛錢)·철전 등이 출현하고 이것이 자유로운 교환경제를 저해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후세에 대해 유익한 영향도 끼쳤다. 그것은 중국 내에 국경이 설정되어 지금까지의 국내 상업이 국제무역 관계가 되자 각국은 다투어 통상에 의한 부국책을 강구하고 산업진흥책에 노력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에서 유희(遊休)자원의 개발이 행해지고 그 지역 특유의 생산업이 발흥한 점이다. 특히 눈부신 것은 촉 및 강남지방에서의 차(茶) 산업의 발달이었다. 중국의 특수상품으로 오랫동안 세계에 명성을 날린 차 생산은 실로 오대분열 시기에 확고한 경제기초를 닦았던 것이다. 그 외에도 제지업·제도업(製陶業) 혹은 잡품잡화의 제조공업 등이 각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오대를 이은 송의 정치적 통일은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국내시장의 재통일이었다. 지금까지의 국제통상은 다시 국내상업으로 환원되었다. 오대 시기에 혼란스러웠던 통화는 송 정부의 적극적 정책에 의해 정리되어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면 법정화폐인 동전과 관습적 통화인 은괴의 통용으로 통일되었다. 지역 별로 발달한 특수상품은 운하를 대동맥으로 하는 수로망에 의해 국내 각지로 운반·매매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오대 시기 각국의 수도는 정치적 중심도시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지만, 상업도시로 살아남아 특히 당대 이래 운하 연변에 생겨난 상업도시는 점점 발전하여 재부의 축적에 의해 그 위에 근세적 문화를 발달시켰다. 이 일은 필연적으로 송대사회를 일종의 자본주의적 지배 하에 두는 경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 중국 근세의 사회경제

앞에서 말했듯이 송대사회에는 현저한 자본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중세사회와는 다른 많은 양상들이 보였는데, 이 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 고대의 정치적·경제적 중심은 서북 산간의 산시성 남부, 즉 관중이라고 칭해지는 위수(渭水) 분지에 있었다. 사마천의 『사기』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관중의 땅은 인구에 있어서는 중국 전체의 10분의 3을 점하는 데 지나지 않지만, 그 재부는 10분의 6이나 된다고 말하였다. 이는 명확하게 과장된 말이겠지만, 장안 부근인 관중 지역의 경제력이 단연 다른 지역을 압도하여 독자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산시성(陝西省)은 중국 본토 18성 가운데 가장 물자가 부족한 성의 하나이다. 하지만 고대에 있어서는 관중과 같이 토지가 높고 평평하며 건조한 산간분지가 개발에 가장 적합하였다. 진한시대에 수도가 장안에 있었기 때문에 관중 지역이 번영한 것은 물론이지만, 진한

이 수도를 장안에 둔 이유는 바로 관중의 농산자원에 의존하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진이 6국을 병탄한 배경에는 관중의 재부가 있었고 한의 고조가 초의 항우를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또한 관중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 있어서도 고대적 통일의 중심은 야마토(大和) 분지였는데, 이 지역이 고대적 경제상태 하에서는 자원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당대에 이르면 관중 지역은 이미 경제적 이용가치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황하·양자강 하류에 펼쳐진 충적평야의 개발이 진행되자 관중의 농산업은 그 상대적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당 정부는 수도의 관료·군대를 포함한 총인구를 관중의 농업만으로는 자급할 수 없어 동방으로부터 보급이 필요해졌고 특히 양자강 하류의 쌀 생산 지대로부터 매년 막대한 미곡을 운하로 운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미 식량을 강남으로부터의 수송에 의존한다고 하면 관중의 위치는 극히 불편하다. 소주(蘇州)·항주 부근에서 산출되는 미곡이 대운하를 이용하여 북상할 때 운하와 황하의 교차점인 개봉까지는 큰 장애 없이 도달하지만, 거기서부터 두 수로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황하를 거슬러 오르려고 하면 도중에 위험한 난관이 마주하고 황하를 피해 육로로 장안으로 운반하려고 해도 또한 여러 차례 곤란에 부딪혀야 하였다. 동도(東都) 낙양은 장안에 비하면 운하에 가깝지만 그래도 황하 변에서 약간 육상 거리가 있고 더욱이 낙수(洛水)의 수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수량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을 많이 감수해야 하였다. 마침내 당의 멸망과 함께 새로운 왕조인 양(梁)은 운하의 교차점인 개봉으로 수도를 정하였다. 이후 역대 왕조는 모두 운하 연변에 수도를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치적 중심은 점차 경제적·교통적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총괄건대 어느 세계에서도 경제 중심은 대개 먼저 내륙에서 생겨나 후 점차 평지를 향해 이동하고 마지막으로 해안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의 예는 이

에 반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해안선의 굴곡이 현저한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송대는 이른바 운하 중심의 경제 시대였다. 수도 개봉을 비롯하여 대운하와 회수의 교차점에 초주(楚州)가 나타나고, 양자강과의 교차점에는 양주(揚州)를 대신하여 진주(眞州)가 번성하였으며, 양자강 이남에서는 미작(米作) 지대의 중심에 소주, 또 운하의 종점에는 항주가 번창하였다. 송이 북부를 상실하여 남송이 강남의 반쪽 천하를 지키면서 수도를 남경에 정하지 않고 항주로 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만주에서 일어나 화북을 영유한 금과 몽골에서 흥기하여 대정복을 이룩한 원이 모두 그 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대운하의 복단에 오늘날의 북경을 건설한 것은 역시 중국 지배의 편의를 위해 운하의 효용에 절대적 이용가치를 인정한 때문임에 다를 아니다. 명은 태조 때 일시 남경에 수도를 정했지만, 결국 원의 후계자가 될 운명을 지녔기 때문에 역시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 때에 이르러 다시 북경으로 천도하였고 이후 청조가 되어서도 북경의 수도로서의 지위는 동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수 양제에서 비롯된 대운하는 필경 중국 내륙교통을 진흥할 사명을 띠고 출현하였다. 하지만 세계의 교통은 내륙시대에서 점차 해양시대로 나아갔다. 텐진(天津)·상하이·광둥과 같은 해안 항구가 외국무역으로 번영하자 중국의 인구와 재부는 해안 가까이에 집중하게 되었다. 텐진과 상하이는 완전한 해양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선박이 출입할 때 조석의 간만을 이용하는 점으로 말하면 해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역사를 경제적 측면에서 조망해 보면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내륙오지 중심의 시대였지만, 송 이후의 근세부터 운하시대 중심의 시대가 되고 다시 시간이 흘러 청조 말기부터 해안 중심의 시대가 되었다. 이 해안 중심이라는 현상은 유럽의 영향 하에 일어난 새로운 사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세사적 발전의 개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거론하려는 것은 송 이후의 운하 중심 시대인데, 중국사회의 중심이 운하 연변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고립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다른 여러 사회정세와 관련이 있어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근세사회의 특질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운하의 기능은 교통운송이고 운하시대는 바꾸어 말하면 상업시대를 의미한다. 사실 증세에서 근세가 되면 중국의 상업은 면목을 일신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먼저 이를 통화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자.

당 고조의 무덕 연간에 개통원보전(開通元寶錢)이 주조된 뒤 통화 형식이 일정해지고 이후 역대 동전은 이 형식을 표준으로 삼았다. 이 개통원보전은 현전하는 것이 매우 많은데, 나는 이 전(錢)이 과연 모두 당대에 주조된 것일까라는 점에 의문을 품고 있다. 그것은 당이 멸망한 후 오대 각국에서도 개통원보전을 주조한 곳이 있으며 특히 남당에서 다수가 발행된 듯하다. 후세에 전하는 개통원보는 이 남당의 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잠시 접어두고 당대 전화(錢貨)의 유통은 반드시 정부가 기대한 만큼 원활하게 행해지지는 못하였다. 양세법은 원래 동전으로 세금을 거두려고 한 것이지만, 이윽고 전화의 절대량 부족이 명확해졌고 미곡·견뻑(絹帛)으로 절납(折納)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형법에서도 여전히 장물(贓)을 비단의 가치로 계산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비단이 가치의 척도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다만 소금 등의 전매품은 동전으로 매매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에 수반하여 동전경제가 농촌에까지 침투하게 되었다.

오대의 분열시대가 되면 수량이 적은 동전은 각국 정부에 의해 국제정화(正貨)로 증시되었다. 작은 정권이 지방적으로 할거하여 각국 간에 국제무역이 행해지게 되자 국내의 동전 보유액이 곧 그 나라의 정화 보유액이 되어 동전만이 무제한으로 국제간의 공통화폐로 결제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그래서 각국 모두 자국의 통화 보유량을 유지하고자 하여 통화는 되도록 정부의 수중에 집중시켜 보전하도록 하고 특히 자원이 빈약하고 수입초과의 걱정이 있는 나라는 새로 연전·철전을 발행하여 민간에 유포 시키고 엄중하게 통화를 통제하여 동전의 유출을 막는 한편, 동시에 낮은 품질의 통화에 의한 대외외환 환산률의 하락에 의해 자국 상품을 외국으로 싸게 판매하여 얼마든지 많은 외국 보유의 통화를 흡수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통화의 분열에 의해 국제거래가 현저하게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타개책으로 상인은 은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은괴라면 단순한 상품으로 어떤 나라의 통화관리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자유롭게 통용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은괴의 통화적 사용은 일찍이 남북조시대부터 광둥 방면에서 많이 행해졌고 당대에도 은괴사용 구역으로 광둥의 특수지역성이 인정되었는데, 오대 시기에 은괴의 화폐적 사용은 광둥에서 점차 북방에 미쳐 양자강 이남에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황하 연안의 중원지방은 여전히 동전을 많이 사용하였다. 오대 마지막 왕조인 후주(後周)의 세종(世宗)은 오대 제일의 명군이었는데, 군주권 강화에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동전 주조의 확대를 계획하였다. 젊은 나이에 죽은 그의 사업은 송의 태조·태종 형제에 의해 계승되었다. 송은 남방 국가들을 평정하자 그 지역에서 사용되던 연전·철전 등을 정리하고 동전을 증주(增鑄)하여 민간에 통용시켰다. 이른바 화북의 통화제도를 남방에 확대·강제하였던 것인데, 그 정책이 성공하여 남방의 동전화가 실현됨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남방에 유행하던 은괴 사용의 풍토가 역으로 화북에 미치게 되어 마침내 송대 특색의 화폐제도가 성립되었다. 즉 정부가 표시한 모든 가격체제는 동전 본위이고 형법에서 장죄(贓罪)의 표준에도 동전가격을 사용하였는데, 민간에서 대량의 거래결제 내지는 먼 지역으로의 송금에는 은괴를 사용하였다. 송과 외국의 무역에는 동전 지불이 엄금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은이 사용되었다. 결국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자유통화가 될 수 있었던 은괴와 동전이라는 두 가지 본위의 화폐제도가 출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동전은 정부의 증주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일찍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다량의 동전이 민간에 유포되고 민간의 일상적 출납은 물론 납세에도 동전은 무제한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에 이르러 공전의 동전경제가 성행하게 되었다. 동전의 성행은 즉 상업의 활발화를 의미하고 교환경제는 농촌에까지 침투하였다. 송 초의 유명한 정치가 장영(張詠)은 승양현령(崇陽縣令)으로 있으면서 성문 위에서 서서 조망하다가 근교의 농부가 야채를 사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농가의 식량은 반드시 자급자족해야 하는데 농사에 태만하여 야채를 구입하는 것은 게으른 농부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이유로 처벌하여 등을 매질한 후 방면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는 조금 무리한 요구로 보이는데, 즉 이 무렵에는 이미 농촌에도 화폐경제가 보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민의 생산도 각각 전문화되어 자신에게 화폐적 수익이 가장 많은 품목을 선택하여 재배하고 그 외는 농가라고 해도 교환에 의해 입수하게 된 결과일 것으로 추측된다.

농업생산이 상품화된 영향은 심대하였다. 중세의 농업은 장영의 이상과 같이 대체적으로 자급자족의 원칙 위에 있었다. 자기가 소비하는 물자만 스스로 생산하고 우연히 남은 잉여물만 시장에 나왔다. 이 자급자족은 대규모 호족 소유의 장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 중세의 장원경영에 대해 규범을 보여준 것은 후한의 번중(樊重)이다. 그는 광대한 장원을 열고 모든 종류의 산업을 그 안에서 행하게 하였다. 칠기가 필요하면 먼저 칠나무를 심어 자라기를 기다리는 식이기 때문에 완연하게 하나의 독립왕국과 같이 “문을 닫고 매매를 한다[成市]”, “구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공급한다”라고 말하였다. 모든 것을 자급할 수 있었지만, 다만 식염(食鹽)만은 외부에서 구입한다고 하는 것이 중세 귀족에 의한 장원경제의 이상이였다.

그와 같은 자급경제를 영위하기 위해 정원의 위치는 필연적으로 가장 지형이 복잡한 장소로 산이 있고 하천이 있고 못이 있고 들판이 있는 말하자면 산야가 교차하는 곳이 적당하였다. 그리고 증세에 중국경제의 중심이 서북에 치우쳐 있던 시대에는 그러한 장원에 적합한 땅은 역시 서북방의 고지대에서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교환경제의 발달은 그러한 증세적 장원의 경영방법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만들었다. 운하라는 수운(水運)의 혜택이 있는 저지대 평야는 적어도 가공(加工)을 통해 비옥한 땅으로 변모하였다. 거기에 미맥(米麥)을 재배하면 그 수확률은 산간의 벽지보다 몇 배나 된다. 이를 매각하여 그 대가를 사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반드시 자가소비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상품으로서의 생산이 발흥한 것이다. 서로 그 토지에 가장 적합한 생산을 전문으로 행하고 그런 후 상호 교환을 하면 가장 노동이 적고 효과가 많다. 그러한 신식 경영방식의 전파로 인해 증세적 장원제도는 점차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커다란 교환경제의 파도에 삼켜져 옛 장원의 구성원 각자가 “문을 열어 외부와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장원의 소유자로서도 억지로 그 노동자를 예속민으로 자기에게 부속시켜 둘 필요가 없다. 원래 장원의 예속민(즉 部曲)을 두는 것은 소유주의 권리임과 동시에 필연적인 의무가 한편으로 수반된다. 그 부곡이 기대와 같이 생산능률을 올리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전보다 토지의 생산력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고 싶어도 부곡을 내쫓을 수 없다. 장원주는 오히려 부곡을 해방시켜 그 토지를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최대의 지대(地代)를 약속하는 자에게 대여하는 좋은 계책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증세적인 예농(부곡)이 해방되고 대신에 소작인(즉 佃戶)이 등장한다. 부곡의 해방은 일시에 법령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연대를 말할 수는 없지만, 송 초에는 아직 부곡이 부분적으로 존재한 증거가 있다. 아마도 송이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진종(眞宗) 무렵에 이르

러 부곡제도는 전면적으로 소멸되었을 것이다.

상업의 융성은 농촌을 변모시켰을 뿐 아니라 도시의 형태도 변화시켰다. 중세의 도시는 관아의 소재지, 귀족관료의 주택지를 위주로 하고 이에 종속된 일반 인민으로 구성되었다. 도시에는 방제(坊制)가 시행되어 도로에 의해 저절로 구분된 방(坊)이라는 하나의 지역은 주위에 담장을 둘러 도로와 차단되고 겨우 2개 내지 4개의 방문에 의해 안팎의 출입이 허가되었다. 고관(高官)이 아니면 방벽을 부수고 대로(大路) 쪽으로 주택의 문을 낼 수 없었다. 방은 마치 하나의 작은 성곽이고 이 방이 모인 것이 도시이고 나아가 그 주위에 견고한 성벽을 둘러쌓았다. 밤이 되면 방문을 닫아 안팎의 이동을 차단하였으며 인민은 야간에 대로를 통행하면 야간통금을 어긴 혐의로 처벌되었다. 이것이 방제이다. 방에 해당하는 1~2개의 구획은 시(市)로 개방되었다. 그러나 이 시장도 주간에만 열었을 뿐으로 밤에는 시장문도 폐쇄되었다. 점포를 두는 것은 이 시장 내부 안으로 한정되고 시장 안의 상공업자는 동업마다 조합(즉 行)을 조직하고 정부로부터 그 독점권을 승인받았으며 그 대가로 자기의 상품을 관용(官用)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이 시제(市制)이다. 그러한 점에서 중세의 도시를 보면 그것은 정치도시 내지는 군사도시라는 성질이 강하고 상업은 오히려 부차적인 의의를 가진 것에 지나지 않았다. 수도 장안과 제2의 수도 낙양을 비롯하여 지방의 도시도 모두 그러한 양식에 따른 것이며 이를 모범으로 한 일본의 헤이조쿄(平城京)·헤이안쿄(平安京)도 방시(坊市)의 제도가 시행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당 말 무렵부터 이 방시 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하여 송대에 이르면 도시는 거의 완전한 상업도시로 변질되었다. 그 단서는 초시(草市)의 발달에 있었다. 초시는 도시 내부에 관아가 설정한 시장과는 달리 별도로 관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민이 자연스럽게 모여 형성한 시장이다. 농촌에 있어서도 교통에 편리한 지점에 처음에는 모이는 날짜를 정해 자유

시장이 열렸는데, 이윽고 점포가 생겨나고 주택이 건설되고 취락이 형성되어 초시라고 불렸으며 때로는 정부도 그 현실을 승인하여 이곳에 관리를 파견하여 상세를 징수하기도 하고 그러한 초시가 더욱 발전하여 진(鎭)이라고 칭하였으며 현 아문의 출장소가 설치되게 된다. 진 가운데 큰 것은 성벽이 있고 그것이 나아가 현으로 승격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초시는 종종 도시의 성문 밖에 생겨났다. 대개 성 안은 단속이 엄중하여 시장 이외에는 점포를 열 수 없었고 게다가 야간 통행금지가 있기도 하여 법제에 속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인민은 언젠가부터 자유를 찾아 왕래가 빈번한 성문 밖에 점포를 두고 취락을 형성하여 갖가지 물건을 팔았던 것이다. 성문 닫는 시간에 늦은 여행객도 여기에 숙박하고 그러면서 점차 초시가 번창하자 이러한 풍토가 점점 성안에도 미치게 되어 성안에서도 대로의 양측에 노점이 생겨나고 노점이 고정화되어 점포가 되고 방벽을 부수어 내부와 통하고 마침내 성벽이 완전히 무시되어 대로의 양측에도 점포가 늘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방제가 붕괴하고 단지 방 입구에 세워진 방문만이 때로 수리되어 이것이 도시 안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고 구획으로서의 방제는 소용없게 되어 상점이 늘어선 도로를 중심으로 변화가가 형성되고 구역 이름에는 도로 양측을 합친 거리이름을 칭하는 것이 보통이 되었다. 현재 일본에서도 교토(京都)의 시조(四條)거리·가라스마(烏丸)거리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식이다. 이에 이르러 도시 안에 관아가 설치한 시장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거의 도시 전역이 상점화되었다. 대략 상업의 융성에 따른 필연의 결과이고 관청·주택지로서의 중세 도시는 이때부터 근세적인 상업도시로 변화한 것이다. 이 변화는 당 말부터 시작되어 오대를 거쳐 송 초에 완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생산의 상품화는 한편으로 보면 생산의 분업화이다. 상품으로서 자유경쟁에서 이겨 자기의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의 증대, 저렴한 가격과 함께 품질의 개량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조건은 분업에 의해 전

문화되지 않으면 불가능이다. 여기에는 크게 말하면 먼저 지역적인 분업이 있다. 양자강 하류의 충적평야에는 쌀의 생산이 많아지고 강남의 산지에는 차의 재배가 성행하게 되었다. 특히 송대에 들어 종전에 그다지 돌아보지 않았던 북견에서 양질의 차가 생산되게 되었다. 도토(陶土)와 연료가 풍부한 지역에는 도자기 제작이 성행하게 되고 미립의 경사(硬砂)를 포함한 수성암(水成岩)이 산출되는 지역은 벼루를 특수산업으로 삼았으며 흑수질(水質)에 의해 제지업(製紙業)이 성행하는 지역도 있었다. 우수한 특산품은 거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전국에 판로를 넓힐 수 있었다.

분업에는 또 동일 제품에 대한 공정의 분업이 있다. 교외에서 생산된 누에실을 원료로 하여 소주·항주와 같은 도회지에서 미려한 비단을 짜내는 것도 이 일종이라 할 수 있지만, 가장 현저한 것은 도기(陶器)의 제조이다. 도기 제조는 흙 채취에서부터 조형, 채색, 유약 바르기, 굽기에 이르기까지 각각 전문 직공이 있어 하나의 공정을 분담한다. 이는 이미 가내공업적 단계를 벗어나 근세적 자본주의라고도 해야 할 대기업에 속한다. 후세에 이르기까지 중국 도기가 서아시아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명성을 날렸던 것은 그러한 배경이 있다. 중국 도기의 우월성은 단순한 개인적 기술의 결과가 아니고 분업의 이점에 힘입은 때문이었다. 당시 아직 그러한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서방인은 그 입신(入神)의 기술을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신화적인 전설까지 언급하였던 것이다.

사실 공정상의 분업은 각종 공업에 관한 기술 및 그 뒷받침이 되는 과학적 지식을 발달시켰다. 그 중에서도 화력의 발달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류의 문화는 화력의 이용에서 시작되었고 화력의 진보가 문화의 정도에 정비례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송대의 도기 제조가 공전의 완성의 경지에 도달한 것은 그 태토(胎土)를 구워서 경질(硬質)의 유약을 용해시킬 수 있는 고도의 열이 기초가 되었다. 당시 석탄의 이용이 점차 성행하기 되고 땀감이 부족한 수도 개봉부(開封府)의 일상 취사에는 석탄이 불가결

한 연료가 되었기 때문에 석탄을 이용한 고열이 먼저 도기 제조에도 이용되었다. 자주요(磁州窯)는 부근에서 산출되는 석탄을 화력으로 이용한 듯하다. 우수한 도토와 다량의 석탄광맥이 풍부한 자주의 도기는 화북 일대에 판매되어 석질(石質) 도기의 보통명사로서 자기(磁器)의 이름이 일반에 알려져 고래의 자기(瓷器)라는 이름을 대신하게 되었다. 자주요의 제작방법은 조선에도 전해져 이른바 ‘고려식 도자기[繪高麗]’라는 것은 자주 도기를 그 원형으로 하고 초기 일본의 도업(陶業)은 더욱이 또 조선으로부터 계통을 잇는 것이었다. 남방에 있어서는 구강(九江) 부근의 경덕진(景德鎭)이 크게 유명해졌는데, 경덕은 송조 3대 진종의 연호이고 이때 진(鎭)으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 도기의 출하항인 구강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보통인데, 이곳은 북방의 자주에 대응하여 오늘날까지 1천년에 이르는 오랜 도업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강남지방에서는 아직 석탄을 이용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땀나무를 이용하여 화력을 일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온도에 이르러 훌륭한 경질 도기를 소성(燒成)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상 특필할만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상업의 융성을 이룬 사회정세에 대응하여 정부의 재정정책도 또한 필연적으로 중세적인 것으로부터 근세적인 것으로 변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중세의 국가재정은 토지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삼국 위의 둔전정책에서 발단된 정부의 토지국유정책은 시대가 내려오면서 더욱 토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최후에 당대의 균전정책이 되어 그 정점에 도달하였다. 이 정책의 의도는 농부에게 토지를 균분하여 그 생활을 보증하고 그 토지로부터 생산된 농산품인 곡물·견포를 조세로 징수하고 이를 국가의 지출에 사용하였다. 이른바 조용조(租庸調) 제도가 그것인데, 즉 식량으로서의 곡물, 또 피복의 원료임과 동시에 통화로서도 사용하는 견포라는 두 가지에 의해 대체로 국가재정은 운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중세

의 국가재정은 당시의 사회상태에 대응하여 농업본위 정책상에서 운용되었다고 하겠다.

이 형세는 당 중기 이후, 즉 안녹산의 난 후 변화가 생겨났다. 조용조법은 변하여 양세(兩稅)가 되고 인민의 토지소유가 승인된 상황에서 조세는 원칙적으로 단순히 농지만으로 그 부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자산에 대해 부과하게 되었다. 다만 도시에 있어서는 자산의 가격 평가가 곤란한 터에 그 소유권의 이전이 빈번하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양세는 여전히 농지의 생산력을 주된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 양세법에 전후하여 별도로 상품에 대한 소비세가 새로 생겨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초로 거두어들인 상품은 누구도 소비하지 않을 수 없는 식염이었고, 이에 대한 소비세의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것은 국가전매의 형식으로 행해졌다. 당 숙종(肅宗) 건원(乾元) 원년(758)에 처음으로 소금의 전매를 시행하여 소금 1두(斗)의 원가가 10전(錢)도 되지 않는 것에 100할의 세금을 부과하여 110전에 팔게 하였다. 당시 재정궁핍에 시달리던 정부는 이 전매가 효과를 올린 것에 고무되어 점차 소금가격을 높여 200전으로 하고 또 310전으로 하였다가 마침내 370전으로까지 인상하였다. 그 이익은 국가수입의 반을 점한다고 말해졌는데, 쇠퇴해진 당 왕조가 내우외환에도 불구하고 1세기 반의 명맥을 더 유지한 것은 소금 수익으로 국가재정을 지탱한 것에 의한 점이 많다.

오대 시기에도 소금의 전매는 각지에 할거한 정권이 답습하였다. 그리고 양자강 유역 지방의 개발에 수반하여 양자강 북쪽, 회남(淮南) 제염(製鹽)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 처음에 이 지방을 영유한 남당은 그 소금을 양자강 유역 나라들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올리고 그 재부로 강남에 호령하였다. 하지만 오대 말에 후주 세종은 남정하여 남당으로부터 회남지방 일대를 할양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오대 열국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단서가 열렸다. 이익을 상실한 남당은 갑자기 삼류국가로 전락하고 화북정권의

납방에 대한 중압이 결정적인 것으로 되었다. 후주 세종의 유업을 계승하여 하늘의 때와 땅의 이익을 아울러 열국을 평정한 것이 송의 태조·태종 형제이다.

송의 재정은 토지에 부과하는 양세와 과리(課利: 상품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를 양대 축으로 하였다. 양세는 곡식·견포를 징수하고 과리는 동전을 징수하였다. 이른바 과리라는 것은 염리 외에 술, 명반, 차, 향약 등의 전매로 올리는 수익 및 그 외의 상품 일반에 부과하는 상세(통과세와 매상세)를 포함하고 있다. 과리는 결국 소비세이고 그 부담은 농민을 포함하여 모든 소비자, 즉 국민 전체에 미치는 것이지만, 이 세금을 직접 정부에 납부하는 자는 상인이다. 그리고 양세와 과리라는 두 가지 국가수입은 거의 맞먹었다고 하므로 상인의 세금 징수 능력은 특별한 보호 하에 있었다고는 해도 주현관과 같았던 것이 된다. 이 점에서 보아도 송 이후의 중국 사회는 간단하게 농업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농민의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자본은 오히려 상인계급의 수중에 집중되었고, 이 점에서도 매우 근세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이다.

과리의 내용은 그 후 역대 왕조에 의해 변화가 있지만, 염리(鹽利)가 가장 중요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유럽 세력과 접촉하여 해외 무역이 성행한 이후에는 이 형세가 또 일변하였다. 그것은 새롭게 관세 수입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청조 말기의 통계에 의하면 중앙 호부의 연간 수입 가운데 염세가 13%를 점하는 데 대해 해관세(海關稅)는 72%라고 하는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최근세사적인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민의 필수품 더구나 부자도 가난한 자도 평등하게 일정량을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금을 국가의 전매로 삼고 거기서 가능한 만큼의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정책은 결코 합당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최고 악세라고 할 만하다. 그러한 정책은 일찍이 프랑스의 부르봉왕조 시

대에도 시행되어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가 대혁명과 함께 폐지되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당 중기 이후 때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천년 남짓 동안 계속되어 국고수입의 대종을 이루었고 그것이 민국 시대가 된 후까지 계승되었던 것은 놀랄만한 것이다. 더구나 그 세율은 매우 높고 비교적 낮은 시기도 있었으나 전매가격은 원가의 30배를 내려가는 경우는 없었다고 보인다.

소금 전매에 관한 법규는 염법이라고 칭해지지만, 염법이야말로 중국 근세의 제왕 독재정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중국 역대 제왕은 염법으로 이익을 올려 군대를 양성하고 이 군대는 대외와 함께 대내적으로 사용되어 사회질서의 유지와 함께 염법의 보호에 임하였다.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법외의 전매법이 어떻게든 천년 남짓에 걸쳐 유지된 것은 중국의 지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때문이다. 즉 소금의 생산지는 해안 혹은 특정한 염지(鹽池)·염정(鹽井)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먼저 그 생산을 독점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중국의 지형은 하나의 대륙에 필적하고 해안선 또는 특정한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소금을 운반하는 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도중에 자주 검사하여 밀매매를 단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되었다. 그러한 지리적 가능성 위에 염법이 성립되고 염법을 하나의 발판으로 하여 중국 근세 제왕 독재체제가 수립되었던 것이다. 중국을 언제까지도 농업국이라고 보거나 또 관개를 위한 수리 통제 혹은 유목민에 대한 방위의 필요에서 군주독재권이 발달하였다고 하는 고정된 시각은 송 이후에 있어서는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와 같은 동양의 독재정치를 근세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프랑스 18세기의 절대왕정 시대도 또한 근세사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 중국사회는 송대 이후 명청에 이르기까지 앙시앵레짐의 단계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강대한 권력을 가지고 제왕이 염법을 유지하려 했다고 해도 원가의 수십 배나 되는 세금을 부과하여 인민에게 고가의 소금을 판

매하려고 하는 일 자체가 경제의 정상적인 상태를 무시한 것인 이상, 제왕의 통제력에도 스스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표면은 엄중하게 단속된 소금도 어느 사이에 통제의 이면으로 들어가 밀매매가 행해졌다. 그리고 전매가격이 높을 때일수록 밀매매가 유리하였다. 하지만 만약 이익이 있는 한 실업자, 놀고먹는 자, 불량한 무리는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사염의 판매에 종사한다. 널리 각지의 일당과 연락을 취하고 군대관리를 매수하며 나아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무기를 휴대한다. 동료에 대한 통제를 위해 백련교(白蓮敎) 등 사교적(邪敎的) 색채가 있는 것을 이용한다. 여기에 중국근세사 특유의 민간비밀결사가 탄생하는 것이다.

사회의 불안을 틈타 꺾기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은 그러한 비밀결사를 모태로 하는 것이 많다. 이에 대해 보통의 곤궁한 농민이 살기 위해 혹은 사회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봉기한 백성 봉기의 예는 의외로 적다. 역사의 대세는 이치대로 움직이지 않고 힘에 의해 움직인다. 하지만 폭동을 일으키는 권리가 있을 법한 농민은 언제나 순종적이고 고양이와 같아 한번도 반란을 일으키려는 기력도 없는 반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중간의 도랑을 이용하여 존재하는 명랑하지 않는 제3계층이 언제나 폭동의 주력이 되어 나타난다. 농민이 반란에 가담하는 것은 다른 반란에 의해 토지가 황폐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아가 주동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예는 도리어 적다. 이러한 것에도 중국 근세의 불행한 특수상(特殊相)이 존재하는 것이다.

중세적인 장원제도의 붕괴는 앞서서도 조금 언급하였지만, 이 중요한 문제는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세의 균전정책은 일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작에 필요한 토지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 이상이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규정대로의 충분한 토지는 분해되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왕공귀족은 그 관품에 따라 막대한 사유지를 점유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즉 친왕은 100경(頃), 정1품은 60경이며, 이하 체

감하여 종5품관의 5경에 이른다. 100경을 말하면 장정 한 사람의 수전액(受田額)의 100배에 해당하므로 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대략 농부 100인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평민 농부는 모두 정부로부터 불충분하더라도 토지를 배급받으면서 동시에 요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공의 사유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그러한 자유민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에 응하는 자로서 일종의 천민이 존재하였고 부곡·노비라고 칭해졌다. 노비는 마치 동산과 같이 금전으로 매매되는 존재지만, 부곡은 토지에 부속된 예농으로 토지와 함께 매매된 자였을 것이다. 부곡의 해방은 정부의 인민에 대한 수전(授田)이 불가능하게 되고 토지 소유권이 승인되는 당 말부터 오대를 지나 송 초에 이르는 기간에 사회상황의 변화에 수반하여 점차 실현된 것으로 생각되고, 그 대신 전호(佃戶: 소작인)가 등장한다. 전호는 원래 독립된 자유민인데, 다만 계약에 의해 지주로부터 토지를 빌리고 생산물은 먼저 자기가 획득하여 그 중에서 약간의 지대(地代)를 지주에게 지불하는 자이다. 형법상에 있어서는 지주도 소작인도 대등하여 따로 권리의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약자인 소작인은 점차 그 생활을 지주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소작료는 매우 고액이어서 5할이 통상이었고 만약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필요해지면 지주로부터 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전호는 봄에 새로 재생산을 하기 위한 자금을 지주에게 차입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그 이율이 또한 매우 높아 봄부터 수확 때까지의 한번 순환에 5할 이상을 내야하는 것이 드물지 않았다. 그리하여 점차 지주에 대한 차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지주의 토지에 속박된 예농적 존재가 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만약 지주에 대해 소작료 저감 운동을 일으키면 관아는 항상 지주 편에 서서 소작인을 탄압하였다. 그와 같은 실제에서 소작인의 위치 저하가 이윽고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송 철종 원우(元祐) 5년(1090)의 법령에서는 소작인이 그 지주에게

구타 혹은 살상을 가했을 때는 일반인에 대한 것보다도 1등급 무겁게 처벌하였고, 나아가 남송에 들어 고종 소흥(紹興) 연간부터는 2등을 더해 처벌하도록 규정되었다.

중국에 있어서는 예부터 유가의 중농사상으로 인해 같은 인민 사이에 빈부의 차이가 생기고 부민(富民)이 점점 토지를 점병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으로 여기고 정치가는 항상 빈민을 보호하여 그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경작지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신념이 있었다. 하지만 송대에 이르러 이 논의는 크게 바뀌게 되었다. 그것은 다른 항목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송 이후의 지주는 단순한 지주가 아니고 대부분은 지식계급인 사대부가 되어 한편으로 관료, 다른 한편으로는 지주인 지배계급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토지가 거의 모두 그러한 신흥계급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세의 귀족이라고 해도 이러한 성질에는 변함이 없어 한편으로는 호족이고 한편으로는 관료였기 때문에 그들이 관료로서 정치에 종사할 때 유가적 정치론은 막상 실시하려고 하면 자기의 계급적 이익과 충돌하고 그 때문에 묘당(廟堂)의 논의가 실행을 수반하지 않고 항상 공전(空轉)으로 끝났다. 하지만 한편으로 중세에는 그래도 관료화되지 않은 호족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는 지방 말단의 정치에 있어서 점병부정론이 행해질 여지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송대 이후 교육이 보급되고 전국적으로 사대부적 지주가 분포하게 되자 그 사이에서 일어난 논의는 이전과는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그것은 점병승인론이다. 남송 초기에 주자와 거의 같이 나온 유명한 정론가 섭수심(葉水心: 본명은 葉適)의 논의는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천자를 증핵으로 하는 정치라는 것은 원래 소민(小民)의 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오랫동안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이 때 천자를 대신하여 소민을 기르는 실제의 일을 수행하고 있던 이가 부민(富民)이다. 밭이 없는 자가 있으면 자신의 토지를 빌려주고 자본이 없으면 돈을 빌려주어 경작에 종사하게 한다. 도시의 공업자(工業者)와 배우 등에 이르기까지 부자를 단골손님으로 하여 비로소 생활해 나간다. 정부라고 해도 급히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부자에게 의뢰하여 조달하기도 한다. 천자를 대신하여 부자가 인민을 길러 온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 부자가 재산을 쌓은 것도 결국 사회를 위한 것이 되고 또 그 마음고생을 살펴보면 육체노동자에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부자의 축재는 비난할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세상의 속리(俗吏)는 부자를 적대시하여 걸핏하면 그 껌병을 꺾으려고 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잘못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철저한 자본주의 옹호론이고 동시에 현실긍정론이기도 하다. 송대와 같이 진보된 사회에서는 이것을 유지하는 데에도, 또 그 위에 서서 한층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자본의 축적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 자본의 축적을 행하는 것이 부자이고, 말하자면 사회의 필연성에 따라 생겨난 계급이기 때문에 따로 이것을 억압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일 것이다.

이것과 비슷한 껌병승인 사상은 송 이후에도 도처에서 보편적으로 보이게 된다. 고염무(顧炎武)의 『천하군국이병서(天下郡國利病書)』에서도 “지주와 빈민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지주는 도량이 있으면 준설하여 깊게 파고 제방이 있으면 쌓아서 높게 한다. 빈민은 노동력만을 내어 부민(富民)의 토지를 경작하고 그 수확을 반씩 나누어 갖는다. 빈민에게 소·말·종자가 없으면 부민으로부터 빌리고 조세도 지주에게 대신 바치고 수한(水旱)으로 기근이 든 때에도 또 부민에게 도움을 구한다. 부민은 있어서 좋은 존재일 뿐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권14, 「前人寄莊議」).

또 명(明)의 환초도인(還初道人)이 지었고 일본에서도 널리 읽힌 수양서인 『채근담(菜根譚)』에서도 하늘은 한 사람을 부유롭게 만들어 다수의 사람들을 구제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자는 흡사 작은 천자와도 같이 하늘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받고 세상에 내려온 자처럼 중요한 존재로 존송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당시 사회의 실상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송 이후의 사회는 그러한 일종의 자본주의적 사회가 되어 있었고 그곳에 자연스럽게 지주계급인 사대부 층으로부터 자기의 입장 긍정의 논의가 생겨난 것이다. 다만 섭수심이나 환도도인의 의견은 그렇다고 하여 부호(富豪)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섭수심도 부자가 도를 넘게 이익을 탐하는 것은 마땅히 정부의 힘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환초도인은 부자인 자가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도리어 빈민을 괴롭히면 그것은 하늘의 '죄인(戮民)'이라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모든 부민이 언제나 이상대로 온정주의를 가지고 소작인을 자애로 대하면 천하태평이 되지만, 사실은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도리어 부민이 그 힘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 소작인을 착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물론이다. 과연 그렇다면 그러한 빈부의 격차가 현저한 두 계급이 대립한 사회에서 계급투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것은 많이 일어났다. 다만 농민에게는 단결력도 조직력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때로 폭동을 일으켜 보아도 바로 진압되어 좀처럼 대사건으로까지 발전하는 일은 없었다. 다만 명대 중엽에 푸젠(福建)에서 일어난 등무칠(鄧茂七)의 반란은 소작인 조합이 지주에 대해 일으킨 연공(年貢)감면운동에서 시작된 농민폭동으로 당시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파문이 급속히 확대되었지만, 그것도 푸젠성 안에 한정되었고 곧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다.

그 외의 장소에서는 계급투쟁은 대체로 개인 대 개인의 싸움으로 마무

리되고 사회적 의의가 무시된다. 즉 너무나 악랄한 지주이면 소작인이 의분을 일으켜 지주를 징벌하는 돌발사건이 일어나지만, 이것은 당시 세상으로부터 단순한 개인의 원한으로 치부되고 그 사건이 권선징악의 이야기 종류로 후세에 전해지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 폭동이 발전하여 현 왕조를 대신하여 천하를 취하기 위한 혁명운동의 단계에 들어서면 형세는 일변한다. 이미 그것은 단순한 계급투쟁이 아니다. 현상에 불만을 가진 지식계급의 야심가가 가담하여 폭도를 지도하고 각지에 잠재하는 비밀결사에서 항응하는 자도 생겨나면 반란은 빠르게 천하에 만연하여 큰 세력이 될 수 있다. 주모자가 황제 칭호를 내세우거나 연호를 세우는 대반란은 대개 이런 종류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반란이 만에 하나라도 성공하면 명 태조가 세운 것과 같은 신왕조가 탄생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배자가 경질된 것일 뿐 사회제도의 본질에는 하등의 깊은 변혁을 가져오지 못한다. 몽골인과 만주인이 침입하여 왕조를 세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회혁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반이 성숙하지 못하고 반드시 역성혁명의 형식이지 않으면 정권의 교체가 실현될 수 없는 것에 동양사회의 숙명적인 전통이 살아있는 것이다. 아마도 대립하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제왕정치의 당연한 귀결로 정치는 항상 하달할 뿐이며 상달하는 것과의 사이에 타협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3. 중국 근세의 정치

중국 중세의 역사는 찬탈의 연속이었다. 천자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자는 조정에서 가장 유력한 대신인데, 그 최초의 예는 전한 말의 왕망(王莽)에게 보인다. 왕망의 난을 안정시키고 한을 부흥시킨 후한의 광무제(光武帝)는 대신의 전권을 경계하고 군권의 강화를 피하여 천하의 정치에 대해서도 조정의 대신을 배제시키고 만기(萬機)를 독재하여 궁중에 내각

을 만들고 몇 명의 상서(尙書)를 두어 기밀을 관장하게 하였다. 하지만 그 후 천자가 어릴 때에는 유력한 대신이 녹상서사(祿尙書事)에 임명되어 궁중의 내각을 총괄하게 되고 이와 함께 상서의 자리도 점차 그 기밀적 성격을 상실하고 공적인 정부기관으로 변화하였다. 후한의 천하가 혼란에 빠지고 조조가 한의 대신으로 사방의 군웅을 평정하여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자 여기에 사실상의 위(魏) 왕조가 성립하였는데, 그는 자기 직속의 비서관실을 설치하고 이것을 중서(中書)라고 칭하며 천하의 기밀을 논하게 하였다. 조조의 아들 조비가 한을 빼앗아 위 문제가 되기에 이르러 중서는 그대로 황제 측근의 내각이 되고 그 장관인 중서감(監)·영(令)의 권한이 가장 무게를 더하였다.

앞서 왕망이 한의 천자를 빼앗을 때에는 주(周) 성왕(成王)의 숙부인 주공(周公)이 섭정하여 정치를 보았다는 고전(古傳)을 이용하여 스스로 한의 어린 황제를 쫓아내고 제위에 올랐지만, 위의 조비는 요순 선양의 형식을 본떠 한의 마지막 천자인 헌제가 자진하여 유덕자인 조비에게 황제 자리를 양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세 번 사양한 후 어쩔 수 없이 천자 자리에 오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중세 시기에 왕조 교체의 정통적인 방식은 선양에 의한 것이 보통이 되었다. 이면의 실정은 어떠한 표면적으로는 신왕조가 덕 높고 인망이 있으며 이에 대해 이미 인민들에게 버림받은 구왕조가 천명의 귀추를 자각하여 자발적으로 정통천자 지위를 유덕자에게 양보하였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왕조는 만인이 보는 가운데 합의 하에 이전 왕조의 유산을 상속하게 된 것이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정통천자임이 입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선양에 의한 왕조혁명은 이후 오대 말에 이르기까지 700여 년 동안에 걸쳐 실행되었다.

위는 한을 빼앗았다고는 해도, 조조는 후한 말의 대란을 자력으로 평정한 실력자이고 이른바 창업의 군주이므로 결코 한 왕실의 권력을 앉아서 가로챈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진(晉)이 위를 빼앗았을 때는

사정이 달라져 있었다. 진의 사마씨(司馬氏)는 위의 대신으로서 부자가 연이어 실권을 잡아 조정의 세력이 자연스럽게 사마씨의 수중에 들어갔지만, 관료 중에는 사마씨의 권력 독점을 싫어하고 아직 조씨에게 충절을 바치려는 자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가 왕실을 덮은 지 이미 3대나 된 이상 일가의 안위를 위해서도 빨리 황제 자리에 올라 다른 마음이 있는 자를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있었다. 그런 까닭에 촉한(蜀漢) 정벌의 성공을 기회로 무리하게 위를 찬탈하여 진 왕조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이후의 왕조혁명은 대체로 것처럼 권력을 가로채는 자에 의해 수행되고 그것이 선양이라는 아름다운 미명으로 분식되었던 것이다.

진 시기에 이르러 중서도 또 공적인 기관이 되고 유력한 대신의 세력에 영향을 받기 쉬웠기 때문에 천자는 다시 측근인 문하시랑(門下侍郎)과 기밀을 의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중서의 권한은 시중에게 분할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남북조를 통해 중서와 문하가 기요(機要)를 관장하였지만, 그것도 다시 점차 천자 개인의 손을 떠나 조정의 대신이 겸임하여 임명되는 표면적 기관으로 변화해 갔다.

애초 선양적 찬탈은 실권을 쥔 조정대신의 야심에서 비롯된 것은 물론이지만, 그 배후에는 일군의 관료귀족의 후원이 있었다. 귀족 출신의 관료는 자기의 영달을 위해 자주 혁명이 행해지는 것을 좋은 계책으로 여겼다. 혁명이 일어난 때마다 최상급 대신은 천자가 되어 그 지위가 비고 또 반드시 약간의 희생자가 나와 그가 점하고 있던 지위가 새 혁명의 성공자에게 분배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하층에서부터 올라와 천자가 된 자도 막상 제위에 오른 때에는 다시 새로운 혁명운동이 배양되지 않도록 조정의 대신을 가장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자는 항상 위망이 높은 대신에게 실권을 주지 않고 궁중에 내각을 설치하여 자기의 복심과 함께 정무를 결정하는 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출현한 것이 상서이고 중서이며 문하시중이었다. 하지만 이들 기

관은 본격적으로 실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설령 그 공적 지위는 낮았어도 조정 대신이 취임하기를 열망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긴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천자의 손을 벗어나 대신이 겸임하는 바가 되고 천자의 지위는 항상 대신 측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형세에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군주권 강화를 위해 설치한 천자의 사적 기관은 점차 그것이 귀족군(群)의 공유물로 공개되어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서진이 북방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동진이 남쪽에서 남경을 수도로 강남의 천하를 다스렸다. 동진을 빼앗은 남조 송(宋)의 유(劉)씨는 군벌 출신이었으며 이후 남조는 대개 위로 군벌 출신의 천자를 받든 송·제·양·진(宋齊梁陳)이라는 단명 왕조가 이어졌다. 그러한 군벌왕조의 빈번한 교체가 반복되자 조정의 귀족적 관료 사이에 강렬한 문벌의식이 생겨났다. 즉 제왕(帝王)은 문지(門地)가 없는 군벌이며 풍운을 만나 관료의 추대로 천자가 되었지만, 관료는 그러한 왕조의 교체와 거의 관계없이 오랜 유서를 지닌 계보를 가지고 역대 조정에서 현관(顯官)을 낸 집안이다. 그 지위는 역사의 소산이지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다. 제왕의 힘은 그 관위를 박탈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귀족의 역사를 말살할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른바 귀족은 하늘의 선민(選民)으로서 긴 역사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은 우승자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었다. 후한 이래 대두한 호족세력은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직에 진출하여 관료적 귀족이 되고 동시에 문화의 담당자가 되었던 것인데, 위진 이래 때때로 일어난 혁명은 점차 왕실의 존엄을 잃게 하고 반대로 귀족 등으로 하여금 왕실보다도 오랜 명문의 전통을 자랑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북방에서는 오호족의 침입 이래 주권자는 대개 서로 비슷한 외래 이민족 출신의 제왕이었고 그것이 선비족의 북위(北魏)에 의해 통일되어 북조가 되고, 회수(淮水)를 경계로 하여 남조의 한인 왕조와 대립하였던 것인데, 위진 이래 면면히 가명(家名)을 전승해 온 한인귀족은 북조의 지배 하

에서도 마찬가지로 문벌의 금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대개 새로 들어온 북방민족은 중국을 지배하려고 하면 자연히 한인귀족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어 그들을 중앙·지방의 현관으로 발탁하여 우대하는 것을 상책으로 삼았다. 그리고 북방민족은 한인 귀족과 교류하면서 점차 그 귀족적 문화에 동화되고 왕실을 비롯한 호족(胡族) 유력자는 서로 이끌어 한인과 다르지 않는 신귀족을 형성하였다.

남북을 통한 그러한 귀족제도의 성립은 봉건제도의 한 변형이라고도 해야 할 것이다. 즉 봉건제도에서는 가문의 상속자는 그 선조의 재산과 동시에 그 정치적 지위도 함께 그대로 계승한 데 비해, 귀족제도 가문의 상속자는 조상[父祖]의 재산을 완전히 계승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조상이 지녔던 지위를 다른 귀족과 함께 공유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부친이 재상이면 그 아들은 재상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는데, 다만 재상의 지위는 특정한 한 가문에 독점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복수의 가문에 공통으로 속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동등한 귀족 사이에도 그 후 계속하여 오랫동안 재상을 배출하여 시대를 주름잡는 집안과 운이 나빠 오랫동안 재상을 배출하지 못하는 동안 어느 새 기득권이 소멸되는 집안이 생겨나 귀족 안에서도 부침성쇠가 일어나는 한편, 상호간에 결렬한 경쟁도 행해지고 음모도 발생한다. 다만, 귀족들 사이에 일어나기 쉬운 무제한의 자유경쟁이나 엽관운동은 상호간의 질서와 견제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억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귀족사회는 가장 배타적인 일종의 폐쇄사회로 변화하였다. 귀족이 자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신귀족의 생성을 막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혹 군주와의 개인적 관계로 갑자기 고관으로 오른 자가 나와도 구귀족들은 이를 벼락출세한 훈문(勳門)이라고 멸시하며 자기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였다. 그리고 제왕도 또 지방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귀족군 전체의 기성세력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기 때문

에 되도록 귀족의 여론에 따라 각각의 가문에 적당한 관위를 수여하여 귀족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 공평한 정치라고 칭송되었다. 이런 까닭에 자연스럽게 귀족 사이에 등급의 차이가 생겨나 중앙정부의 고관이 될 수 있는 가문, 지방 주현정부의 요직에 앉을 수 있는 가문이라고 하는 것 같은 피라미드형의 귀족제도가 성립하였던 것이다.

군주의 정치권력은 때로 귀족을 억압할 수 있었다. 특히 왕조혁명이 일어날 시에는 유력귀족으로 정쟁의 희생이 되어 멸망하는 자도 생겨났다. 하지만 군주의 권력은 특정한 귀족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해도 피라미드형을 이루는 귀족군(群)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두셋의 유력귀족이 멸망한 뒤에는 곧바로 다른 귀족이 대신하여 그 자리를 메우고 피라미드는 여전히 항상 피라미드일 수 있었던 것이다.

수를 거쳐 당조에 의한 천하일통의 시대가 되어도 이 형세는 사라지지 않았다. 개개 귀족의 내역은 남조의 멸망 및 수 말의 대란과 같은 충격에 의해 어지럽게 변천하여 부분적으로 신진대사가 이루어졌지만, 일단 천하가 안정되어 평화가 계속되자 새로이 당(唐) 형식의 귀족 피라미드형이 성립하였다. 그리고 관료 사이의 풍조는 당조 창업 시에 굴기한 공신 집안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육조 이래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최씨(崔氏)·노씨(盧氏) 등을 높게 평가하였다. 당 왕실 자신은 농서(隴西)의 명족 이씨(李氏) 출신이라고 칭하였지만, 그러한 구귀족 눈으로 보면 훨씬 문벌이 뒤떨어지는 훈문(勳門)에 지나지 않았다. 구귀족사회의 폐쇄성은 훈인 시에 가장 잘 발휘되었다. 대개 훈인은 양가의 부모를 맺는 것이고 인척은 대등한 교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훈인은 서로 상대의 문벌을 자기 집안과 대등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 행해진다. 당 왕조 하의 신흥귀족은 자주 구귀족에게 결혼을 청하였다가 거절되었다. 아니, 당 왕조 자신조차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문종(文宗)은 그 딸을 위해 최씨에게 훈인을 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우리 집안의 천하는 이미 200년을 경과했는데 아직 이 문

지(門地)가 최·노에 미치지 못하는가”라고 한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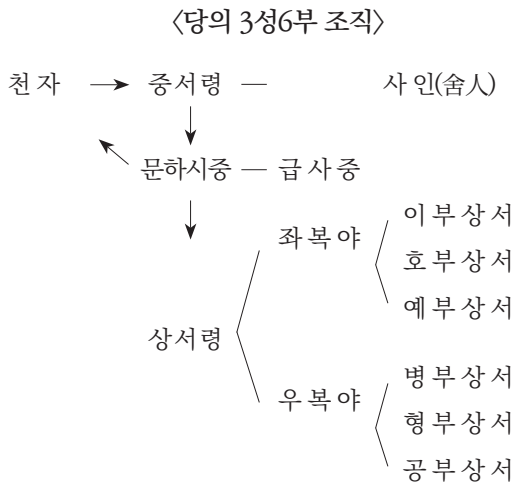
그와 같이 중세의 귀족은 관료의 모태이고 문화의 담당자이고 동시에 사회의 안정세력이기도 하였다. 다만 그것이 남북조에서 당대가 되면 귀족의 경제적 기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당 왕조의 무력 하에 평화가 계속되고 점차 중앙집권적 경향이 생겨 중앙정부의 조직이 방대해지자 국도 장안을 포함한 관중 지역은 정치적 원인으로 인해 소비경제적으로 비교할 바 없는 번영을 이루었다. 그러한 상태에 안주하여 관료귀족은 애써 편리한 지역에 근거지를 찾고 정치적 세력을 바탕으로 획득한 연애(碾磑: 水車)의 이권 등을 경제적 배경으로 하여 점차 호족적 성격을 탈피하여 순전한 관료귀족의 성질을 농후하게 지니게 되었다. 그들은 당 왕조를 떠나 별개로 천부(天賦)의 귀족계급인 것을 자랑으로 삼으면서도 실은 그들이 멸시하는 당 왕조의 비호에 의지해서만 귀족일 수 있는 기생적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당 중기 이후 황실이 쇠미해짐과 동시에 그러한 귀족도 쇠미해져 군벌 발호의 시대로 들어섰던 것이다.

오대의 군벌황제 시대에 구귀족은 모두 몰락하고 새롭게 군벌귀족이라고도 해야 할 세력이 발흥하였다. 이는 저명한 무장으로 정계(政界)에 세력을 부식한 자의 자손이 부친이나 조부의 유산 혹은 그들의 옛 부하에 대한 여위(餘威)를 가지고 앉은 채로 특권계급으로 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오대 5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정권의 교체가 빈번했다는 사정도 있어 새로운 계급의 발흥보다도 오히려 구세력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효과가 컸다. 그리하여 송이 천하를 통일한 때에 이르러 당대의 문벌귀족은 거의 일소되어 남아있는 자가 없었다.

오대의 군벌황제가 이상으로 삼은 군주 개인의 독재권 확립은 오대 말의 명군인 후주(後周) 세종에 의해 실현의 단서가 열리고 이어서 송의 태조·태종 2대 시기에 거의 완성되었다. 고대·중세에 있어서도 독재적 권력을 행사한 군주가 자주 출현하였다고는 해도 그 시세에 응하여 개인적

능력으로 독재를 행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그러한 독재군주의 사후에는 또다시 귀족집단의 수중으로 정치권력이 회수되는 것이 상례였지만, 송 이후에는 그것이 하나의 제도가 되어 독재군주체제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이 일은 중세적 체제의 집대성이라고도 보아야 할 당의 정부조직을 송 초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가장 명료해 진다.

당의 중앙정부는 3성(省)을 중핵으로 하였다. 3성 가운데 중서성은 “황제의 뜻을 받드는” 기관이라고 불리는 정책입안의 관부이고, 문하성은 이에 찬성을 나타내는 일을 임무로 하고, 상서성은 행정관청으로서 정해진 명령[成命]을 천하에 실행하는 기관이다. 중서의 장관은 중서령, 문하의 장관은 시중(侍中), 상서성의 장관은 상서령인데, 실제로는 상서령이 임명되지 않고 차관인 좌·우복야(僕射) 2인이 이를 대행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호·예·병·형·공(吏·戶·禮·兵·刑·工)이라는 6상서가 있고 각각 행정사법 등의 사무를 분담하였다.



이 정부조직의 특징은 천자가 중앙정부와의 사이에 극히 좁은 통로

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천자는 겨우 내국(內局)의 수장인 중서령과 함께 천하의 정무를 논의하여 입안을 행할 뿐이다. 이 입안을 바탕으로 칙명의 원고를 중서사인(中書舍人)이 기초한 것을 문하성에 보내면 문하성에서 심의를 행하여 만약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를 봉박(封駁)이라고 하였는데, 급사중(給事中)의 직장(職掌)이었다. 중서가 천자의 권력 하에 있었던 것에 대해 문하는 귀족세력을 대표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무사히 문하성을 통과한 정령(政令)은 다음으로 상서성에 회부되어 천하에 시행되었다. 상서성 내에서는 이부가 관리의 진퇴를 관장하므로 그 권한이 가장 컸는데, 문벌귀족의 계보에 정통하여 가문에 상응하는 지위에 인재를 추천(奏薦)하여 잘못이 없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항상 명문 출신을 이부상서에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리하여 이부상서의 권한은 재상·시중·복야보다도 컸다고 일컬어졌다.

이렇게 보면 중앙정부의 3성은 거의 명목적으로 천자를 군주로 추대하는 것과 같은 형태를 보이며, 특히 문하성은 이미 천자의 내락을 받은 명령[成命]에 대해서도 봉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문하성을 통과하지 않은 천자의 명은 조칙이라고 칭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3성의 의지가 완전히 합치하지 않으면 정책은 운영할 수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유력한 천자가 즉위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오히려 귀족 출신 대신들의 합의체라고도 할 수 있다. 더구나 그러한 3성의 기원을 찾아가 보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서·문하·상서 모두가 천자 개인의 비서관으로서 생겨난 것이었다. 긴 시간이 경과하는 사이에 천자권 강화를 위해 만든 이들 기관은 점차 귀족세력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만당 시기부터 천자 권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보이게 된다. 그것이 관료제도에 있어서는 중서의 강화와 문하의 약체화로 나타난다. 문하의 봉박권은 군주권의 자유행사와 양립할 수 없기 문하성은 천자의 대변기관인 중서성에 흡수되고 중서의 장관인 재상은 공식적으로는 동중서

문하평장사, 약칭하여 동평장사로 칭해졌지만, 그 공식 칭호와는 달리 실제로는 봉박을 행하는 일이 없다. 6부 상서는 곧바로 이 동평장사 아래에 배속되었다. 이는 천자에 가장 가까운 중서성이 다른 2성을 병합한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군주권이 봉박의 전제를 받지 않고 중서를 통해 곧바로 의사를 하달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욱 주의해야 할 현상은 통수권의 독립이다. 당 말부터 추밀원(樞密院)이라는 기구가 궁중에 설치되어 군사기밀을 관장하였는데, 오대를 거쳐 송에 이르러 추밀원은 용병의 권한을 장악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중서에 대항하는 유력 기관이 되어 합쳐서 2부(府)라고 칭해졌다.

군주독재란 군주의 자의적인 의사가 모든 정치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아니다. 이를 관제(官制)의 측면에서 말하면 가능한 한 많은 기관을 직접 군주 지휘 아래에 두고 모든 국가기능이 군주 한사람의 손에 의해서만 통할되는 조직을 말한다. 만약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면 민정은 민정, 군사는 군사, 경제는 경제로 나누어져 해체되고 마는 것이다. 송대의 군주독재권 확립은 실제로 그러한 구상 하에 실현되었기 때문에 중서·추밀 이외에 삼사(三司)·심관원(審官院)·심형원(審刑院)·예원(禮院) 등이 각각 독립하여 천자에 직속하는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천자 유고 시에는 태후 또는 황태자가 임시로 섭정이 되어 실권을 장악하였고 중세와 같이 외척이나 대신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일은 없었다.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은 정부와 군대의 분리이다. 군대는 금군 즉 근위병이라고 칭해지며 정부 지휘 아래가 아니라 천자의 직속 하에 두어졌다. 추밀원은 정부 기관의 하나이지만, 이는 참모본부와 같은 통수의 관부여서 출병을 명하는 것은 가능하나 군대를 지휘하는 기구는 아니었다. 군주독재권의 배경에는 실로 그와 같은 금군의 발달이 있었던 것이다. 당 초기의 제도에서는 금군의 숫자가 약 12만이라고 보이고 이들이 경사(京師)에 있으면서 천자에 직속되었고, 지방군대는 절충부와 주 자사에게 속하

여 중앙정부의 명령 하에 있고 출정 시에는 임시로 장수를 임명하여 지휘하게 하였다. 뒤에 이것이 번진(藩鎭) 절도사에게 장악되자 중앙에서 이를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송대가 되면 금군의 숫자가 60만 내지는 80만이 되었고 수도만이 아니라 널리 국내 요지에 분산되고 지방 정치 관청과는 별개 계통이 되어 경사의 전전사(殿前司)에 속하였으며 전전사는 삼아(三衙)로 나뉘어 3인의 수장이 있고 천자에 직속되었다. 당 중기 이후 병제 개혁이 이루어져 병농분리의 시대가 되지만, 송대가 되면 그것이 관제 상에도 반영되어 문무관이 분리되어 문관은 인민을 지배하고 무관은 군대를 장악하여 명확하게 2개로 나누어지게 된다. 다만 무장의 전권(專權)을 억제하기 위해 무신은 단지 국부적인 전투를 지휘할 뿐이고 최고의 전략을 결정해야 할 중앙의 추밀사 및 지방군단의 총수인 안무사(按撫使)에는 문신을 임명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 문신인 지주(知州)는 그 주에 속한 상군(廂軍)을 직접 장악하였지만, 이 상군은 오대 지방군의 잔해에 불과하여 군대라고 하는 것은 명목뿐이고 실제로는 잡역(雜役)에 종사하는 인부 무리에 지나지 않았다. 병제 상의 병농 분리, 관제 상의 문무 분리는 송 이후 역대를 통해 준수되었으며 북송 중기에 왕안석이 병농합일의 당대 제도로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끝내 실현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또한 근세의 특색의 하나이다.

북송 초기에 정해진 중앙관제는 그 후 자주 변혁이 이루어졌다. 송대에는 대체로 재상으로 동평장사, 부재상으로 참지정사(參知政事), 통수부겸 육군성장관으로 추밀사·추밀부사, 이상 합해 6~7인 정도가 천자와 합의하여 최고정책을 결정하였다. 천자는 흡사 그 최고위원장과 같은 위치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지고 그 독재권을 행사하였다.

명대에 내각제도가 창설되면서 천자 독재는 한층 편리한 형태가 되었다. 즉 재상인 내각대학사(內閣大學士)는 관료가 천자에게 주청하는 문서에 대해 천자가 결재할 말을 미리 준비해 두고 천자의 마지막 결정으로 그

것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천자 결재의 말을 지(旨)라고 대학사의 원안(原案)을 표의(票擬) 혹은 의지(擬旨)라고 하였다. 대학사에게는 입안의 자격이 있을 뿐 어떠한 사소한 일도 결정권이 없고 만약 천자가 거부하게 되면 그들이 작성한 원안은 근거에서부터 무너졌다. 천자의 권한은 극도로 확대되었지만, 동시에 거기에 큰 위험이 있었다. 그것은 궁중에서 친근한 환관에게 천자 자신이 행해야 할 결재권을 위임하면 그 환관이 천자의 권한을 훔쳐 대권을 행사하는 폐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하지만 천자가 그것을 알아채고 다시 자신이 결재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전횡을 일삼던 순식간에 실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명대는 역대 왕조 가운데 환관의 피해가 심했던 시대로 꼽히지만, 그것은 천자의 독재권을 배경으로 관료들에게 위세를 떨친 것으로 후한이나 당대와 같이 환관의 결속력이 천자를 제압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환관의 폐해라고 해도 거기에 중세 이전과는 다른 성격이 있었던 것이다.

군주권의 발달은 선거(選舉), 즉 관리등용제도에서도 나타났다. 그것은 당 이전의 문벌적 선거제에서 송 이후의 개인 능력을 중시하는 과거제로 바뀐 것이다. 중세의 관리등용법에서 중심을 이룬 것은 구품중정제(九品中正制) 혹은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인데, 삼국 위 시기에 시작되어 수대까지 지속되었다. 이것은 원래 문벌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물을 향리의 여론에 따라 관리에 추천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였고 이를 위해 주현에 중정이라는 특별한 관인을 두어 관리후보자를 선발하게 하였던 것인데, 당시 세상에 압도적인 세력을 점한 귀족들은 이 제도의 골자를 바꾸어 전적으로 귀족적인 제도로 만들어 버렸다. 먼저 주현의 중정은 문벌에서 선발되고 중정이 추천하는 관리후보자는 문벌 집안의 자손에 한정된 상황에서 그들이 중앙과 지방의 고위 관인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공직은 자연히 문벌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구품중정제가 최초의 의도에 반하여 중세적인 문벌귀족의 특권을 옹호하는 기관이 되었던 것이다.

수의 시대에 구품중정제가 폐지되고 그 대신 과거가 시행되었다. 이는 정부가 유능한 인재를 시험에 의해 선발하는 제도이다. 과거는 당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점점 성대하게 되었는데, 당대에는 또한 과거와 대립하여 임자(壬子) 제도가 중시되었다. 임자는 은음(恩蔭)이라고도 하며 선대가 고위 관리가 되면 그 자손은 별도로 시험을 치지 않고서도 선대보다 몇 등급 낮은 관위(官位)에 임명되는 제도이다. 고생하여 시험에 응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진사가 된 다음 겨우 관직 자격이 주어지는 것에 비해 임자는 관위에 오르는 것이 훨씬 빠르고 또 용이하였다. 그런데 그 후의 입신 속도가 문제인데, 당대는 아직 중세적 귀족사상이 왕성하여 임자 출신은 진사 출신에 비해 관료 생활에 한층 많은 편의가 주어졌다. 관리의 진퇴를 관장하는 이부는 상서 이하가 대부분 문벌 출신으로 채워져 한문(寒門) 출신자는 인사 문제에 관여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더구나 과거는 예부가 관장하면서 과거 출신의 진사는 관직 자격이 주어질 뿐 실제의 관리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시 이부의 시험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를 전시(銓試)라고 하는데, 그 과목은 신·언·서·판(身言書判)으로 나누어져 신은 용모·풍채·대응의 태도, 언은 언어, 서는 필적, 판은 법률지식이다. 용모·풍채를 문제 삼는 것은 귀족의식이 심히 농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실 한문 출신자는 자주 이부 시험에서 낙방하였던 것이다.

송대에 들어 군주권이 강화되자 이 과거제도도 직접 군주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원래 과거에는 두 단계가 있었는데, 즉 지방에서 보는 예비 시험인 해시(解試)와 중앙에서 보는 본시험인 성시(省試)이다. 해시는 지방의 주(州)에서 행해지고 그 합격자는 중앙에 모여 예부(송대에는 知貢舉)에서 성시를 보았는데, 송에 이르러 다시 그 다음에 전시(殿試)가 추가되었다. 전시는 궁중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이 명칭이 붙었고 천자 자신이 시험관이 되어 행한 것이다. 원래 시험관과 급제자 사이에는 저절로 주·종의 사적관계가 생겨나기 쉬웠고 그것이 봉당 싸움으로까지 발전하는 경

향이 있었던 것인데, 천자 자신이 시험관이 되면 그러한 위험이 경감된다. 천자가 주군이 되고 진사가 모두 그 가신이 되어 충절을 바치면 이보다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송대의 진사는 천자의 문생(門生)인 것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관료는 모두 한결같이 천자의 문생이라는 점 때문에 설령 관위의 고하는 있어도 천자와의 사적 관계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생각이 생겨나 관리는 재상의 증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천자와 접촉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또 천자 독존의 근세적 제도의 한 축이 되었다.

더욱 중대한 점은 진사가 모두 전시에서 천자로부터 직접 유능한 인재라는 증명을 받은 점이다. 이미 천자가 도장을 찍어 보증한 인물에 대해 이부의 관리 등이 이것저것 말할 여지는 없다. 이후 이부의 전시(銓試)는 그다지 없는 것과도 같게 되어 관위 승진의 속도는 대략 전시의 성적에 따라 좌우되었다. 대신의 자제에 대한 임자의 제도도 존속은 하였지만, 선대의 여음(餘蔭)에 의해 관리가 되는 것은 남자의 치욕으로 간주되어 다투어 자력으로 과거를 보려고 하였기 때문에 중세 이래 가문의 특권이라는 사상은 거의 완전히 불식되기에 이르렀다.

보통 과거라고 하면 문관 임용을 위한 문과거(文科擧)를 말하고 별도로 무관 임용을 위한 무과(武擧)가 있었지만, 이는 거의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였다. 대개 무장은 전장에서 공을 세워야만 그 재능이 증명되는 것이지 병법이나 무예로는 실력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무과 출신 무관의 승진은 매우 속도가 느리다. 게다가 송 정부는 문관을 중시하여 중앙정부의 요직은 모두 문관을 임명하였다. 중앙의 추밀원(樞密院)은 원래 무장을 추밀사·추밀부사에 임명하였던 것이지만 곧 문관으로 교체하고, 지방에서 금군을 지휘하는 경략안무사(經略按撫使)도 지방의 문관이 겸임하는 것이 관례였다. 무관의 진퇴는 이들 문관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에 무관은 항상 남의 밑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후 역대로 대동란이 일어나거나 혹은 건국 초에 무장이 공을 세워 중용되는 일도 있었지만, 일단 평화가 회복되

면 무관은 언젠가 정치권 밖으로 내쳐지고 항상 문관에 의한 군부대신제(軍部大臣制)가 행해졌기 때문에 무장이 권력을 장악할 기회가 없어서 중세와 같이 군벌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번진이 발호하는 것과 같은 형세는 마침내 발생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과거제도는 자세히 관찰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모순과 약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통해 고등문관 자격을 준다고 하는 사상은 매우 근세적이다. 서양에서 문관시험제도가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것은 영국에서는 1870년 이후의 일인데, 특히 무관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매관제(買官制)가 행해진 탓에 1871년부터 시험제도가 채택되었다고 하고, 또 미국이 문관임용시험을 행한 것은 1883년이라는 점으로 보면 중국에서 멀리 수대부터 과거제도가 실시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놀랄 정도의 진보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는 원래 사민(四民)에 대해 평등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세습귀족제의 폐해를 제거하려고 한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과거에 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주로 경제적 제약 때문이다. 과거의 학과목은 요컨대 고전적 교양이어서 많은 참고서를 가지고 선생에게 배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유한계급(有閑階級)이 아니면 접근하기 힘든 것이다. 선대가 이미 지식계급이라면 그 자손은 가정에서 고전 교육을 받을 수도 있어 학비만 해도 10의 7~8을 절약할 수 있다. 부농·부상은 그 재력에 의해 자제를 독서인으로 전향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의 중하층 인민에 있어서는 하루하루 생계를 꾸리며 살아야 하는 처지여서 여가를 이용하여 공부에 매진해도 도저히 전업의 독서인을 상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계급이라는 것이 자연히 고정되어 지식이 있으면 관리가 되고 관리가 되면 재산을 쌓고 재산을 쌓으면 그 자손을 공부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문화적으로는 독서인, 정치적으로는 관료, 경제적으로는 지주·자본가라는 삼위일체적인 신귀족계급의 성립을

보기에 이르렀다. 통상적으로 이를 사대부라고 부르는 듯하다.

그러한 송대 이후의 신귀족계급은 중세의 문벌적 귀족과는 크게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선 사대부는 그 집안이 개인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지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세의 귀족과 같이 역사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력을 게을리 하면 곧바로 추락할 위험이 많다. 하지만 한편으로 중세의 귀족과 같이 특정한 귀족과 귀족의 정쟁으로 인해 내란의 와중에 휩싸여 가문 전체가 멸망에 이르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적다. 도리어 친척·지인이 서로 원조하여 독서인계급이라는 마지막 선에서 멈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지위는 오히려 탄력성이 풍부하고 강인하다고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세의 사대부는 가문의 특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문에 문벌적 등급의 고하가 붙어있지 않다. 중세적인 배타적 금지나 독존적인 봉쇄성은 극히 얽었고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웠다.

그러나 가장 큰 특색은 그 천자와의 상대적인 지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중세의 귀족은 왕왕 천자의 가문보다도 더욱 고귀한 혈통을 자랑하였다. 하지만 근세의 사대부는 명예와 권력의 원천을 모두 천자로부터 얻었다. 진사의 자격은 천자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관위도 또한 천자로부터 빌린 것이다. 그러한 천자의 은혜에 의해서만 관료는 일반 인민과 구별되는 특권계급이 될 수 있었다. 천자의 지위는 절대 존엄하였고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중세에 있어서는 혼인은 양가의 부모를 묶는 것이고, 혼인에 의해 양가는 대등한 가문이 될 수 있었다. 이 사상은 자주 천자의 가문에도 적용되었다. 거기서부터 외척의 전횡이라는 폐해도 생겨난 것이다. 즉 천자의 집안과 황후의 가문은 사적으로는 대등하였고 외척은 가장 많은 발언권을 천자의 집안에 대해 주장할 수 있었다. 조정의 대신은 외척의 권리에 항거할 수 없었고 만약 외척이 즉 대신인 경우가 있으면 자주 찬탈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송 이후 외척은 단순한 신료의 일원에 불과하였다. 외척 등의

정치에 대한 간섭은 극도로 경계되었고 외척도 또한 자기보전을 위해 힘써 정권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을 상책으로 여겼다.

명의 성조(成祖)는 그 극단의 독재군주제를 유지하기 위해 외척의 권력 강화를 우려하여 황자의 비(妃)를 힘써 서민의 딸에서 선발하였다. 교육을 받지 않고 친척이 적은 서민은 외척이 되어도 정치에 관여할 걱정이 적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탐욕스럽고 탐욕스럽기 때문에 폐해를 낳는 경우는 있어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큰 야심을 가지고 인심을 수렴하여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과 비교하면 그 영향은 훨씬 적다고 생각한 것이다.

송 이후의 신귀족 즉 사대부계급은 위의 천자에 대해서는 양처럼 순종하였고 그 때문에 중세의 경우처럼 유력대신의 황위 찬탈로부터 야기되는 정치의 혼란을 피할 수 있었고 천자의 지위는 안정되어 외부적 압력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계속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사대부는 그 좌우의 동료 및 하층 인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항상 겸손하지는 않았다. 서로 문생임을 자부하는 관료는 천자에게 충실하다고 주장하며 의견이 다른 정적을 서로 간신이라고 부르며 배척하였다. 붕당비주(朋黨比周)의 폐해는 역대 끊임이 없어 이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고 북송과 명의 멸망기에는 외적을 문 앞에 두고서도 내부 정쟁을 반복하여 조정의 대사를 그르치게 되었다.

더욱이 하민에 대해 관료는 좋은 정치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천자의 독재에 수반하여 관료에 대한 위임이 점점 가벼워지게 되고 관리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일일이 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여 자유로운 재량이 견제 받고 또 지방관과 같은 경우는 임기가 대략 3년 내지는 5년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정책 연구도 실정 조사도 행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결과이지만, 동시에 관료 자체가 사리를 경영하는 데 급급하여 인민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도덕적 퇴폐로부터도 기인한 것이다.

국가가 관리에게 지급하는 봉록은 당시의 일반 생활수준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액수였다. 봉록으로는 겨우 일가 생계를 꾸리는 것도 곤란하였고 하물며 자손을 위해 재산을 남기는 것 등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관리는 한편으로 막대한 국가재산을 관리하고 하민에 대한 경제적 조치에 관해서도 상당히 큰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하여 관리의 지위적 우월은 그 봉록에 있지 않고 부수입에 있었다. 지방에서 경제적 이익의 처리 예컨대 관유지의 사용 내지는 불하, 관용물자의 구입·전매 등에는 항상 관리에 대한 뇌물이 행해졌다. 관리는 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친척·노복 등의 명의로 상업투기를 유리하게 행한 데 따른 부수입도 있었다. 관리가 되면 큰 토지를 보유하면서도 조세 납부에 태만하고 혹은 강제적으로 인민의 토지를 염가로 구입해도 많은 경우 법률에서 벗어났다. 지현(知縣)과 같은 말단 행정관청의 장관이라고 해도 3년의 임기 동안 자손 3대가 놀고먹어도 될 정도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한다.

군주권이 관리의 전횡을 경계하고 지방관의 임기를 제한하며 그 본적지 임용을 못하게 하는 회피제 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방관은 전적으로 떠돌이 직업이 되었다.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중앙에 반항하는 폐해는 없어졌지만, 동시에 지방정치에 대해 열의를 잃게 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치가 어떻게든 운용되었던 것은 서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리는 원래 인민의 역(役)에서 나온 것이다. 애초 지방정치를 운용할 때는 인민이 각각 노동력을 내어 함께 일을 처리하여 가능한 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중국 고래의 이상이었다. 관아에서 필요한 경우 인민이 협력하여 산에서 나무를 베어오고 목공이 가능한 자가 기둥을 세우고 미장공이 벽을 바르고 지붕재가 지붕을 올리면 한 푼의 비용도 들지 않는다. 그 가운데 일하는 사무원도 인민이 교대로 맡으면 특별한 전문가를 두고 이들에게 봉급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지방정치는 그렇게 인민의 노동

봉사로 운영해야 할 것이었다. 다만 중앙정부는 직접 지배하는 토지와 인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으로부터 조세로서 징수하여 수도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지방의 주 및 그 아래의 현은 토지·인민을 지배하는 관청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는 인민을 부려야만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감독하기 위해 중앙으로부터 몇 명의 관원이 파견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기구가 점차 확대되고 또 복잡하게 되자 특히 당말 이래 병농이 분리되어 방대한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책임이 되자 중앙이 지방에 요구하는 물자도 따라서 많아지고 그 결과 지방관청의 사무가 점점 복잡다단하게 되어 사무원도 많은 숫자가 필요해지고 또 사무에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현 관청의 사무원은 점점 직업화되었고 그러면서 서리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이것은 원래 인민의 역이었기 때문에 봉급이 지급되지 않았고 또 어떠한 특권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른바 서민으로 관(官)에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서리는 일반 희망자를 채용하지만, 인민이 왜 무보수의 사무원이 되기를 스스로 희망하는가라고 하면 결국 그것은 부수입 때문이다. 물자의 출납, 소송 절차 시에 약간의 수수료를 거두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뇌물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관청의 사무원은 부수입으로 생활자금을 번다는 예상 하에 점차 전문화·서리화되었던 것인데, 이에 반해 현 아래의 향(鄉)에 두어진 호장(戶長)·이정(里正)의 역은 헛되이 비용이 많이 들 뿐이고 어떠한 부수입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구히 인민의 역으로 남았고 조세 이외의 부담으로 항상 농민을 괴롭혔다.

서리는 원래 인민의 역에서 나온 것이며 그에 따라 어떠한 봉급도 받지 못했지만, 또 동시에 정부로부터 선발되어 임명된 것도 아니다. 그 지위는 각 부문에 앞서 임용된 서리의 추천에 의해 장관이 승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관은 관하의 서리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이 있다고 해도 명백한 과실이 있어 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면 이를 파면할 수 없었다. 마치 일본의 경우 식량영단(食糧營團)의 고용인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전임의 서리는 자기가 은퇴하게 되면 후계자를 추천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는 언제부터인가 일종의 권리가 되어 이를 수수할 때 막대한 금전으로 매매하는 것이 되었다. 만약 은퇴자가 그 권리를 영구적으로 양도하기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후임자에게 연한을 정해 그 지위에 있도록 허락한다는 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하였다. 아무튼 서리의 지위는 민간에서 일종의 권리증과 같게 되어 매매·대차하는 성질의 것이 되었고 전임 서리는 자기 관아의 하급서리를 도제식으로 양성하고 그 생활을 보증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해당 관아의 경상비와 인건비는 이를 인민으로부터 수수료 내지는 뇌물로 받아 충당하였던 것이다. 장관은 이미 서리를 선발하거나 파면시킬 권능이 없고 또 장관의 임기가 3년 내지는 5년으로 한정된 결과 지방정치에 대한 열의가 없이 모든 사무를 서리에게 일임하고 단지 무조건 문서에 도장 찍는 것을 능사라고 하였다. 서리는 토착의 주민이어서 지역사정에 밝고 법률적 절차에 능통할 뿐 아니라 계속하여 부처를 장악하여 관아에 공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므로 지방정치는 모두 서리의 손에 의해 운영되었던 것이다. 장관은 이 폐해를 알아도 바로잡을 실력이 없었다. 그래서 역대의 정론가는 항상 서리의 폐해를 논하여 이를 “백만 마리의 호랑이를 민간에 풀어놓은 셈”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서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그것은 관아의 운영이 정지된 사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서리는 장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대부분 동맹파업으로 이에 대항하였고 그 결과는 항상 장관 쪽의 패배로 끝났다. 그런 까닭에 “관인에게 봉건이 없고 서리에게 봉건이 있다”라는 탄식이 나오기도 하였던 것이다.

현명한 장관은 결코 서리를 적대시하지 않았다. 서리의 영리행위는 일

정한 도를 넘지 않고 법률을 심하게 왜곡하지 않는 한은 이를 묵인하는 것이 상책이다. 아니! 장관 자신도 그 사생활에서 절대로 결백무사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서리를 이용하고 서리의 힘에 의해 장관의 개인 경제를 원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었다. 일상의 식량·의복·세간살이와 같은 것은 서리가 마련하고 그 대가를 장관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근세의 관부에서는 천자부터 아래는 지현에 이르기까지 그 생일날에는 성대한 축하연회가 열렸는데, 그때 서리가 알선하여 많은 액수의 기부금을 모아 그 장관에게 헌상하는 것이 상례이다. 서리의 존재는 지방정치의 운용에 불가결할 뿐 아니라 장관의 사생활에도 또한 불가결의 조건이었던 것이다.

서리는 그 사무원이라는 성질상 일종의 지식계급이다. 거의 모든 농민이 문맹인 가운데 서리는 문서를 읽고 법률·경제의 대략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뜻을 두었다가 단념한 독서인 중에는 스스로 서리를 지원한 자도 나왔다. 관리와 서리, 여기에 도시에 거주하는 상인의 약간을 더하면 거의 중국사회 지식계급의 전부이다. 이른바 여론이라는 것은 인구의 최대 다수를 점하는 농민과는 거의 관계가 없고 그러한 성 내에 거주하는 지식계급의 여론이었다. 이 여론은 종종 그들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 남용되고 악용되었다. 도시거주자의 자산실태조사는 항상 등한시되고 모든 부담은 농촌에 전가되고 농촌에서는 또 지주의 부담이 영세민에게 전가되었다. 그리하여 지나치게 농촌이 피폐해지면 식량 생산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심지어는 식량부족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위험에 처해지기 때문에 어떤 정치가는 때로 공평한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나 사유 경작지의 실태조사 등을 시도하였지만, 그때마다 이른바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진퇴유곡에 몰렸다. 송대 왕안석(王安石)의 신법이나 명대 장거정(張居正)의 토지장량(土地丈量)과 같은 것은 그 좋은 예이다. 결국 대세는 맹목적으로 가야 할 곳까지 가지 않으면 그치지 않는다. 인민의 부

답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불공평해지기 쉽고, 불공평하면 불공평할수록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있는데, 두 세 명의 정치가가 인위적 정책으로 이를 해소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하였다. 미력하고 조직이 없는 농민 개개인의 요구는 결코 여론을 형성할 힘이 없다. 각 지방에서 농민의 반란이 일어나도 곧바로 탄압된다. 결국 지방의 피폐가 중앙에 반영되어 중앙정부가 피폐해졌을 때 사회의 대혼란이 시작된다. 그 동란의 주모자는 당연한 권리를 가진 농민이 아니고 반란은 도리어 제3세력이 지도한다. 그것은 국내의 비밀결사가 아니면 국외에서 발흥한 이민족 세력이다. 송·원·명·청의 역성혁명은 그렇게 하여 성취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혁명은 항상 정권쟁탈혁명이고 왕조의 교체이지 사회혁명은 아니었다. 송 이후의 사회에 성립한 사대부적 계급제도가 왕조의 교체에도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은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4. 동양 근세의 국민주의

유럽 근세사를 장식하는 특색의 하나는 내셔널리즘의 발흥이다. 애초 봉건적으로 분열된 중세에 있어서는 봉건영주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해 자주 무의미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고통을 받은 것은 일반 인민이었다. 더욱 참으로 인민을 생각하는 정부를 수립하고 싶다는 사고가 자연스럽게 생겨나지만, 인민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공통의 역사와 공통의 문화를 지닌 국민이라는 것이 자각되고 그 단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유력한 조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탈리아와 같이 일찍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장소에 있어서는 로마적 세계국가의 재흥도 생각되었지만, 그러한 공상적인 기도는 모두 실패로 끝나고 이에 반해 국민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통일정부의 이상은 그 후 착착 실현되어 갔다.

그런데 국민이라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통의 문화와 역사가 국민에 대해 중요한 기초적 조건을 제공하지만, 또 인류는 토지를 떠나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이 큰 요소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자연적인 지역구분은 반드시 역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와 토지의 상극이 생겨난다. 국민의 범위는 어떤 토지에 의해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 토지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가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자각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현상은 유럽과 같이 지형이 복잡한 곳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또 국경지대에서 점점 심해진다. 결국 내셔널리즘은 일종의 의지력이므로 다소의 모순이나 다소의 마찰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리하여 역학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를 평균하여 큰 플러스가 남고 다수의 인력을 통합하는 데 성공한 바에 근세적 국민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한 경향은 어느 세상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근세에 들어 특히 현저해진 것은 문화의 보급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문자의 보급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로마 지배 하에 유럽 전역으로 퍼진 라틴어 문장을 베낀 라틴문자는 이를 개개의 음가로 환원시켜 응용하는 방식으로 각 지방의 말을 그대로 쓸 수 있었다. 공통의 일상 언어를 가진 민족은 어느 정도 풍부한 공통어를 소유하게 되면 그런 중에 자연스럽게 민족적 자각이 높아지고 그것이 국민주의운동(내셔널리즘)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동양의 경우, 진한제국의 영토 확장은 유럽에서 로마제국의 패권과 비견할 수 있는데, 로마제국이 알프스와 라인강이라는 선(線)에서 게르만 세계와 마주친 것과 같이 진한제국은 만리장성이라는 선에서 몽골적 유목민족의 저항에 부딪히고 그들과 대치를 계속하였다. 하지만 중세에 들어서 부터 유럽에서는 로마문화가 게르만세계에 침투해 간 것에 반해, 한문화가 몽골·만주 지역으로 유입한 정도는 매우 미약하였다. 하지만, 만리장성 이남의 내지에서 한문화가 발휘한 위력은 오히려 절대적이었다. 즉 북

중국에서는 새로 침입한 이민족을 언어·풍속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화시켜 버린 것은 물론, 남중국에서도 산간을 근거지로 삼아 한족에 대항하던 이민족을 서서히 착실하게 한문화에 동화시켜 갔다. 여기에는 한문화가 얼핏 불편해 보이는 한자라고 하는 상형적 문자를 그 근거에 가진 것이 오히려 큰 원인이 되었다. 이 역사적인 귀족문자는 고전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것이 매우 컸는데, 자유롭게 언어를 발음대로 적을 수 없었다. 방언적 발음의 차이는 문자로 적을 때에는 말살되어 버리고, 시대와 함께 변하는 언어의 변화도 문장으로 쓰면 고전적 수사법으로 인해 흔적이 없어져 버린다. 또 그 형태가 이민족 사이에 유입되어 국민적으로 변형될 위험도 적다. 그러한 귀족적인 문자는 장성을 넘어 몽골 땅에서 변함없이 유목생활을 계속하는 북방 이민족 사회로 확장되는 것은 곤란하였지만, 같은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남중국 이민족 호족(豪族)들에게 전파되자 점차 그들을 한인적 귀족으로 만들어 중세의 긴 기간 동안 남중국에서는 도리어 민족적으로 융합하는 경향이 성행하였고, 유럽에서와 같은 정치적인 봉건할거 상황으로 들어서지 않았다. 그리고 북조가 점차 한화하기에 이르자 중요한 민족문제는 이미 남북조의 분립이 아니고 오히려 만리장성을 경계로 이남의 한족식 국가와 이북의 몽골 지역을 점거한 몽골적 유목국가의 대립이었다.

수당 무렵에 투르크계인 돌궐과 회흘 등의 유목민족 대국가가 외몽골을 근거로 성립하였는데, 이 무렵부터 점차 그들의 민족적 자각이 일어나 한지(漢地)의 토착민족에 대한 대항의식이 높아진 것은 주의할 만한 현상이다. 당 왕조의 위세가 하나의 정점에 도달한 현종 개원연간에 외몽골의 돌궐에 쾨테긴(闕特勤)이라는 영웅이 나타났다. 그는 당시 쇠퇴해 있던 돌궐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여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공적을 적은 쾨테긴 비석이 그의 근거지인 오르콘 하반(河畔)에 세워졌다. 한 면에는 당 현종이 한문으로 그를 애도한 글을 적고, 다른 세 면에는 돌

꺄문자라고 하는 일종의 이체(異體) 문자를 이용하여 당시의 투르크어를 적어 그의 빛나는 공적을 적어 놓았다. 오랫동안 독자의 문자를 가지지 못한 막북의 유목민족은 이 무렵부터 자국의 언어를 적을 수 있는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문자의 내력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것은 결코 한자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고 아마도 서아시아에서 사용된 시리아 문자 계통을 바탕으로 하였다고 보이는 음부문자(音符文字)라는 점이 주목된다. 민족의식의 고양에는 어느 정도의 문화, 특히 문자에 의한 역사 기록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이 비문에 적힌 투르크어의 켈테긴 전기(傳記)에는 점차 그들이 독자의 국수(國粹)를 자각하고 의식적으로 이를 유지하려 한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켈테긴 비문은 그 형인 빌게 카간(毗伽可汗)이 세운 것인데, 그 안에서 빌게 카간은 국인(國人)에게 경계하여 말하길

그들(唐人)은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비단으로 속여 먼 곳의 [백성]을 그렇게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게 한다고 한다. …… 멀리 있으면 나쁜 비단을 주고 가까이 있으면 좋은 비단을 준다고 그렇게 일깨운다고 한다. 무지한 사람들아! 너희는 그 말을 듣고 가까이 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곳[으로] 가면 튀르크 백성이! 너는 죽을 것이다. 외튀켄 땅에 있으면서 (중국 등지로) 카라반을 보낸다면 [너는] 전혀 걱정이 [없다]. 외튀켄 산악지역에 앉아 있으면 너는 영원히 [나라를 유지하며 앓을 것이다].¹⁾

라고 하였는데, 나는 이 말 속에서 돌꺄민족의 국수 보존사상의 편린을 엿볼 수 있다. 이 빌게 카간이 일찍이 그 근거지인 외튀켄 산록에 중국식 성

1) [역자주] Talat Tekin wj, 이용성 역, 『돌꺄 비문 연구』, 제이앤씨, 2008, 125~126쪽 참조.

곽도시를 세워 수도로 삼으려고 했을 때 이에 대해 간언하여 그만두게 한 것은 노(老)재상 톤유쿠크(噸欲谷)였다. 그는 말하길

돌궐의 인구는 적어서 당의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늘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풀과 물을 쫓아다녀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으며 사냥을 업으로 삼고 또한 모두가 무예를 익히는 것에 있다. 강하면 병사들을 진군시켜 노략질하면 되고 약하면 산림에 숨고 엿드려 [버티면] 당의 병사들이 비록 많더라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성을 쌓고 거주한다면 옛 풍속을 바꾸는 것으로 하루아침에 이점을 잃게 되니 반드시 장차 당에게 병합되고 말 것이다.²⁾

라고 하였다.

돌궐을 대신하여 막북을 차지한 회흘은 당의 쇠퇴를 틈타 당을 속국 취급하였다. 그 문화는 농후하게 서아시아 이란계통의 영향을 받아 문자도 돌궐문자보다 훨씬 진보된 회흘문자를 사용하였다. 이 회흘도 당 말에 이르러 다시 북방의 키르기스족의 침입을 받아 괴멸되고 그 부족은 분산되어 남방으로 달아났는데, 이미 상당히 고도의 문화를 향유하고 민족적 자각을 가진 회흘의 분산은 이르는 곳마다 파문을 일으켰다. 회흘의 대부분족은 천산남로(天山南路)의 사막에 있는 성곽 나라들을 침입하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원래 이란계 민족이면서 이란어를 사용하던 이 지역 나라들은 이후 점차 회흘화 되어 투르크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종래에 매우 자주 반복되던 유목민의 침입·정복이 문화적으로는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것에 반해, 이는 큰 질적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문자를 사

2) [역자주] 동북아역사재단 편, 『舊唐書 外國傳 譯註』 상, 동북아역사재단, 2011, 140쪽 참조.

용하였던 회홀인은 이를 무기로 자국의 말을 피정복민에게 강제하여 종래의 이란 계통 종족들의 언어를 소멸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원주민의 고도로 발달한 상업적 재능과 이 지역의 동서교통상의 중요성은 새로 온 유목민을 이속고 상인으로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회홀인은 중국에 대해 숙달된 상업민족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외몽골에서 동남쪽으로 향해 내몽골과 만주의 경계 지역으로 간 회홀의 나머지 일부 무리는 거란민족 안으로 흘러들어가 조금 다른 성격의 변동을 그들 사회에 야기하였다. 그것은 거란민족의 민족적 자각을 자극시킨 것이다. 거란민족은 몽골족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당대부터 중국에 대립한 대부족으로 당 말에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라는 영웅이 나타나 부족을 통일하고 이후 오대라는 중국의 분열을 틈타 영토를 만리장성 안으로 확장하여 지금의 북경과 대동(大同) 부근, 이른바 연운(燕雲)16주를 영유하고 나아가 내외몽골을 합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것이 북송과 대립한 요(遼)왕조인데, 태조 아보기 이래 역대 군주는 그 황후를 소씨(蕭氏)에서 세우는 불문율이 있었고 소씨는 원래 회홀족이었다고 한다. 태조 아보기는 거란대자(契丹大字)를 만들고 아들 질랄(迭剌)이 거란소자를 만들었는데, 후자는 그 글자모양이 한자와 흡사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회홀문자의 원리를 응용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거란민족의 정치적 대통일과 그 민족적 자각의 상징인 문자의 제작 모두에 회홀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만리장성 밖에 본거지를 두고 그 국속(國俗)을 지켜낸 요왕조에 관한 기록인 『요사』가 중국 정사의 하나가 된 것은 특별히 그것이 같은 북방민족인 원왕조 시대에 만들어지면서 배려된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종래에 북방에서 흥기한 이민족은 그 전성시기에 자주 중국을 속국시(屬國視)하였지만, 그러한 위세가 계속된 기간은 극히 짧았고 곧 내란이 일어나 끊임없이 정권이 동요하는 것이 상례였고 통제력이 있는 국가라고 말

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다. 하지만 요왕조의 국가적 기초는 매우 강고하여 이백 십여 년에 걸쳐 북방에 군림하고 북송과는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으며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생각건대 동양사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현상이고 그와 같은 존재의 출현이 또한 동양근세사의 한 특징인 것이다.

요국(遼國)의 영토 안에는 다수의 한인을 비롯하여 발해인·회흘인·해인(奚人) 등 많은 이민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민족문제를 안은 국가는 종래의 사례로 보면 그 마지막 해결책으로 작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한인의 문화를 채용하고 이것에 자타(自他)를 하나로 뭉뚱그려 동화하려고 하는 이른바 한화정책을 채택하였다. 선비족 출신의 북위 효문제와 같은 인물은 용감하게 이 방침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문화를 가지고 민족적으로 각성한 거란 왕조는 이와는 다른 정책을 고안하였다. 그것은 인민을 자신들에게 동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북방 민족과 도저히 동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되는 한인으로 크게 나누고 북방 민족에 대해서는 거란 고유의 법으로 다스리고 북면관(北面官)을 두어 다스리게 한 반면, 한민족에 대해서는 한법(漢法)으로 다스리고 남면관을 두어 별개로 통치하게 하였다. 여기에 요왕조 특유의 이중정부체제가 성립한 것이다. 그리고 북면관에 의해 북방민족에 대한 거란동화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성공하였다는 것은 거란을 대신하여 흥기한 만주의 여진인이 세운 금왕조가 거란소자를 그대로 여진대자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공고한 기초를 가진 요왕조의 출현은 중국 왕조의 전통적인 세계관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 진한의 통일왕조가 출현한 이후 중국에는 황제정치가 행해졌는데, 이 황제는 중국 인민의 주권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우주의 지배자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겨졌다. 황제에 대해 대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황제에게 예속되었다. 그러므로 중국과 외국의 교섭은 대등한 국교가 아니라 조공관계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현실

의 정치정세는 때로 이 황제제도의 이상과는 달랐으므로 삼국시대와 같이 중국 내부에 2인 이상이 동시에 황제를 칭하는 상황이 출현하고 상호간에 평화적 교섭이 행해지는 경우조차 있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서로 누가 진짜 황제인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것이 이른바 정통론(正統論)이다. 남북조시대에 북조는 남조를 도이(島夷)라고 폄하하고 남조는 북조를 삭로(索虜)라고 멸시하였다. 당이라는 통일왕조 시대에 들어 북방의 돌궐이나 회흘이 강세를 보인 시기에 때로 당의 황제는 두드러지게 비굴한 태도로 그 환심을 사려고 고심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어려움이 있어 이른바 이례(夷禮)에 따른 것일 뿐이고 또한 그 교섭도 결코 영속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요·송 관계는 크게 느낌이 다르다. 요의 6대 성종(聖宗)이 국경을 넘어 송 영내에 침입하여 황하에 도달하자 송 3대 진종(眞宗)도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여 방어하였는데, 결국 1004년 전연(澶淵)의 맹약을 체결하여 화해하였다. 이후 두 나라 사이에 평화적 국교가 열려 북송 말까지 백여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이는 역사상 미증유의 현상이다. 그리고 송 정부는 요의 사신을 접견하기 위해 의례를 제정하였다. 지금의 『송사』 예지(禮志) 빈례(賓禮) 조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중국 사상(思想)에서 예라고 하면 그것은 만대불변의 전범을 가리키는데, 그 예에 있어서 송·요 사이에 대등의 국교가 인정된 것은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평등한 국가와 국가의 교섭, 말하자면 유럽의 국가관계에 가까운 것이 처음으로 동양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중국 측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사상의 변화는 아니다. 다만 그러한 현실의 상태를 중국의 예에 반영하게 만든 요왕조의 역사적 의의는 참으로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도 강력한 요왕조의 성립은 그 근본에 있어서 그들의 활발한 민족의식, 즉 국민주의 발흥에 의한 것이고, 그 국민주의의 발흥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미 그들이

어느 정도의 문화상태에 도달한 결과에 따른 것임은 물론이지만, 그 밖에도 북방민족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가 그들의 민족적 자각을 자극한 점도 있다는 것을 함께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거란에 뒤이어 서북지역에서 굴기한 당항(黨項: 탕구트)민족의 국가인 서하(西夏)의 흥기에 있어서 가장 명료하게 볼 수 있다.

당항은 티베트민족의 한 지파(支派)인데, 당대부터 황하 북부의 대만곡(大彎曲)과 만리장성에 의해 둘러싸인 이른바 오르도스(河套) 지역을 점령한 유목적 민족이다. 당시 송은 동몽골에서 일어난 요 세력이 점차 서진하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오르도스의 당항민족을 회유하여 요에 대한 방벽으로 삼으려고 하여 태종 시기에 당항 추장을 매수하고 그 땅을 한화(漢化)하기 시작하였는데, 오히려 이 일은 당항의 반감을 초래하여 추장 이계천(李繼遷)이 반란을 일으켰다.

송은 이계천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국경무역의 통제를 강화하였는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청백염(清白鹽)의 처리였다. 원래 오르도스 지역의 장성에 접한 북측에는 오지(烏池)·백지(白池)라는 염지(鹽池)가 있고 그곳으로부터 산출되는 양질의 청백염은 중국 내지에도 수입·소비되고 있었다. 당항족은 이 소금의 생산·판매로 이익을 얻어 생활의 자원으로 삼고 있었는데, 송은 이계천의 반란에 대한 보복으로 청백염의 수입을 엄금하였던 것이다. 그 이면에는 기실 송 정부가 오랫동안 희망하던 내지 염업의 완성이라는 의도가 있었다. 즉 내지의 인민에게는 모두 내지에서 생산된 소금을 소비시켜 충분한 이익을 올리고 이에 대항하는 외지의 소금을 근절시키려는 경제정책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금수(禁輸)정책은 도리어 생각하지도 못한 역작용을 낳아 한층 당항족을 단결시키게 되었다. 소금 수출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때까지 눈치를 살피고 있던 장성 부근의 당항부족들까지 모두 송에 등을 돌리고 이계천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마침내 이계천의 손자 이원호(李元

昊) 시기가 되면 서하 왕조를 수립하고 장성 내부에까지 잠식하여 감속 서부 일대도 영유하여 확고부동한 하나의 독립정권으로 성장하였다. 송은 그 지역이 서아시아 방면로 통하는 교통로에 대항하기 때문에 국력을 기울여 토벌하였지만, 도리어 패배를 거듭할 뿐 헛되이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마침내 세폐(歲幣)를 주어 그와 화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서하는 그 실력에 있어서 도저히 요왕조에 미치지 못하여 송에 대해서는 완전히 대등한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표면은 조공국의 형식을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코 속국으로 취급된 것이 아니며 서하 사절 접견의 의식 역시 송의 빈례 안에 기재되어 있었다.

서하도 또한 자국의 탕구트어를 적기 위해 서하문자를 발명하여 사용하였다. 서하문자에 관한 자료는 근년에 러시아 탐험대에 의해 수집되고 그 성질이 꽤 명료해졌는데, 이것은 한자의 체재(體裁)를 본떠 편(偏)과 방(旁)이 있고 의자(義字)도 음자(音字)도 존재한 듯하다.

그러한 송·요·서하 삼국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린 것은 여진민족이 북만주에 세운 금왕조의 발흥이다. 송은 이 신흥국의 세력을 이용하여 함께 요를 협공하였지만, 송의 정치군사력이 쇠퇴한 것과 신흥의 금이 너무나도 강력했던 것으로 인하고 또 여기에 송의 거듭된 외교정책의 실패가 겹쳐 결국 북중국을 금에 점령당하고 송은 후퇴하여 대운하의 남단인 항주(杭州)를 수도로 하여 다시 건립되고 겨우 회수(淮水) 이남을 영유하여 남송이 되어 금왕조와 대립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금에게 멸망한 요의 일족인 아율대석(耶律大石)은 서방으로 달려가 회흘 등의 지원을 얻어 중앙아시아의 시르 하 이북에 카라 키타이라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중국에서는 이를 서요(西遼)라고 칭하였다. 거란민족의 단결은 근거지를 상실한 후에도 여전히 서방에 잔존하여 적국(敵國)인 금과 거의 같은 시기에 걸쳐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북송이 먼저 금과 싸워 패하고 수도 개봉이 함락당해 마지막 군주인

휘종(徽宗)·흠종(欽宗) 두 황제가 금군의 포로가 된 것은 뭐라고 해도 나라의 큰 치욕이다. 이 때문에 남송의 사대부계급 사이에는 금인에 대한 강한 반발 감정이 생겨났다. 일찍이 남송이 금군과 교전하여 약간의 포로를 얻었을 때 정부는 그 안의 여진인을 죽이고 한인을 풀어주었다. 유교의 원래 사상으로 보면 사람은 각각 그 주군을 섬기기 때문에 여진인이 금을 위해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한인으로 금군에 들어가 남송과 싸운 자야말로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정치가의 생각은 달랐다. 즉 여진인은 도저히 감화가 불가능한 이적(夷狄)이지 인류가 아니다. 한인은 원래 송 황제를 따라야 하는 하지만 황제의 덕이 부족하여 이를 감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로 그들이야말로 불쌍하게 여겨야 할 인민이다라고 여긴 것이다. 북송은 요와 일단 평화관계를 맺은 뒤에는 오래도록 국교를 지속했지만, 남송과 금은 조약을 체결한 뒤에도 자주 국경을 두고 전쟁을 벌였다. 이러한 시대에 성립된 주자학은 필연적으로 강렬한 양이(攘夷)사상을 포함하게 되고 한민족의 국민주의라고도 해야 할 것이 남송 시대에 들어 명료한 의식형태를 취하게 되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동양근세사의 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주자학을 수입한 일본에 있어서도 막말유신(幕末維新) 시기에 그 양이사상이 실제로 행해져 곤란한 외교적 과문을 던졌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방의 장성 쪽에서 중국 남방의 국경을 바라보면 거기에서도 비한민족의 국민주의가 약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윈난 지방에서 당 말에 자립한 산 민족의 남조국(南詔國)은 대리국(大理國)이 되어 남송 말기까지 민족적 독립을 보전하며 황제라고 칭하고 백관을 설치하였다. 그 남쪽에는 때로 중국의 영토에 편입되었으면서도 끊임없이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싸운 안남(安南)민족이 있었는데, 오대부터 독립을 이루고 송대에는 대월국(大越國)이라고 칭하며 명목상 중국의 조공국이 되었지만, 사실상은 독립불기(不羈)의 민족국가를 형성하고 이후 완전히 외국이 되었다.

이것도 그들이 어느 정도의 문화수준에 도달한 것을 말하지만, 동시에 당시의 중국이 끊임없이 북방으로부터 이민족 왕조의 압박을 느껴 남방으로 경영의 손길을 뻗칠 여유가 없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남송·서하·금 등의 나라들이 서로 같이 산적한 내외의 모순으로 국력이 쇠퇴하였을 때 새롭게 북방에서 흥기한 몽골제국이 파죽지세로 남하하기 시작하자 대리국도 안남도 몽골에게 정복되고, 특히 대리국은 영구히 역사상에서 소멸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몽골제국의 강력한 통일적 의욕은 모처럼 형성된 동양에서의 국민과 국민의 대립을 말소시키고 나아가서는 동양근세사의 한 특징인 국민주의를 일시적으로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동양사와 유럽사의 평행적 발전선상에서의 괴리가 보인다. 원래 국민주의라는 것은 그 근저에 있어서 반드시 충분히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 국민주의가 나타나는 방식을 보아도 그것은 다른 민족의 권리를 존중하기보다는 자기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주장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고 거기서 생겨난 마찰과 저항은 처음부터 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 약소민족과 소수이민족에 대해서는 이들을 동화·흡수시켜 하나의 대(大)국민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주의의 안목이어서 자연의 흐름에 따라 대통합으로 나아가기보다도 구심적인 문화력·정치력·경제력의 총화(總和)를 통일운동의 바탕에 뻗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지에서 일어난 국민주의에 의해 생겨난 국민이라는 것은 역사와 감정에 의해 결합된 것뿐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일종의 역(力)관계적 작용으로 출현한 것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 결합력이 충분히 강력하다면 거기서 생겨난 국민은 이윽고 공동의 역사를 가지고 공동의 감정을 향유하여 영구적인 국민단결을 이룬다. 그리고 국민주의는 결핍하면 자기를 무한히 확대하려고 하는 제국주의로까지 발전할 위험이 있다. 민족도 국민도 결코 영구불변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져 고정된 것이 아니다. 다만 유럽에 있어서는 그 지형의 분열성

과 역사의 할거성으로 인해 각 국민을 지닌 국민주의의 외연에는 스스로 그 한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결국은 다수의 국민이 병립하는 상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민주의 그 자체의 본래 성질에 따른 겸양이 아니고 국민주의가 현실로부터 받는 제약이 강한 결과이다. 그리하여 로마와 같은 특수한 역사를 지닌 지역에는 자주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세계제국의 재건을 꿈꾸는 공상적인 국민주의가 한두 번이 아니고 주창되었던 것이다.

동양에서 근세의 국민주의는 그 지형의 단일성으로 인해 서로 상대를 압도하지 않으면 그치지 않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몽골인은 그 몽골지상주의로 한민족에도 임하고 가능하다면 한민족의 몽골화를 기대하였다. 사실 원대에는 한민족 중에 몽골복장을 입고 몽골 이름을 사용하는 자도 생겨나 혹시 몽골의 지배가 한층 오래도록 계속되었다면 중국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몽골의 중국지배는 백 년을 채우지 못한 채 끝나고 대신 한인의 중국을 표방한 명왕조의 한인중심 국민주의가 등장한다.

명 태조의 국민주의는 중국으로부터 이민족을 몰아내고 그 남은 자는 완전히 한화하여 한인이 거주하는 범위를 가지고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명의 영토로 간주하고 그 바깥에 견고한 국경을 설정하여 방비하고 외국을 위해 중국의 힘을 낭비하지 않는 것인 듯하다. 생각건대 중국은 그 배후에 절대적인 자원과 경제력을 가졌기 때문에 물자가 빈약한 외국은 그 자존을 위해 자연히 중국의 문을 두드려 무역을 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대해 명국은 명의 주권(主權)을 인정하여 신례를 취하는 외국에게만 통상을 허가하였다. 그리고 이때 통상은 조공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명의 황제는 한민족을 직접 지배하면서 이민족에 대해서는 그 군장을 통해 간접으로 지배한다는 것으로 만족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태조의 아들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의 시대가 되면 만리장

성을 국경으로 삼은 것만으로는 한인 거주지의 평화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가능한 한 국경을 멀리 전진시킨다는 정책으로 바꾸었다. 만주는 흑룡강(黑龍江) 입구까지, 외몽골은 오르콘 강변까지 병사를 보내 그 지역의 만주인·몽골인을 초무하는 한편 남쪽으로는 안남을 정복하여 내지화시키려고 도모하였다. 안남에서는 의외로 그들의 강렬한 반항에 부딪쳐 다음의 선덕(宣德) 시대에 이를 방지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만주·몽골에 대해서는 명대 내내 그 지역에 명의 주권을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무력간섭도 마다하지 않았다. 명 말에 이르러 여진 사이에서 청조가 흥기한 것은 실로 그러한 명의 무력간섭에 대한 반동에 다름 아니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15만의 장정밖에 없고 총인구 50~60만에 지나지 않는 만주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청조가 인민 숫자가 수백 배나 많은 중국 내지로 들어가 거기서 300년 동안이나 지배권을 수립한 것은 역사상의 기적이다. 그러한 청조가 흥기한 배경에는 역시 강렬한 국민주의의 약동이 있었다. 그 독립 초기에는 명조를 타도하여 그 후계자가 되려는 야심은 생각도 하지 않은 듯하다. 다만 만주를 하나의 지역으로 하여 거기에 만주족을 주체로 하는 민족국가를 수립하고 명과 대등한 국교를 행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였던 것이다. 명에 대항하여 공세에 몰두하는 동안 청조에 의한 만주민족의 민족적 단결은 놀랄 만한 속도로 착착 실행에 옮겨졌다. 물론 거기에는 일찍이 같은 종족인 금왕조에 의한 만주민족의 결성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회상도 유효하게 적용하였을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 금조가 멸망한 후 수백 년의 원·명 시기 동안 외부로부터 항상 몽골·한인의 간섭을 받고 내부적으로는 만주족의 유력 호족(豪族)이 할거·반발하는 사태를 거쳐 풍운을 타고 순식간에 굴기한 신흥세력 청조의 깃발 아래 그토록 급속도로 만주민족이 대동단결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시세의 힘에 의한 것이다. 동양 전체에 걸친 국민주의의 대조류가 강하게

작용하여 그러한 대업을 성취시킨 것이 틀림없다.

청조의 통일은 동양사에서 최후의 대통일이다. 그 통일의 범위는 몽골 제국 초기 영토의 더 광범위한 것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 지배의 확실성은 그것을 능가하였다. 몽골제국은 처음부터 봉건제를 채용하였기 때문에 그 영토가 서아시아로 넓어짐과 동시에 4한국(汗國)으로 분열되었고, 게다가 형제의 나라인 4한국은 서로 공격하여 싸운 것으로 인해 몽골민족의 총체적 발전력을 약화시키고 종주국의 지위에 있으면서 동방을 지배한 원 왕조도 자주 왕공들의 반란(叛亂)에 시달렸다. 하지만 청조 치하의 만주민족은 팔기제(八旗制)에 의해 통할되고 마지막까지 청조의 심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충성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다수의 만주족은 청조의 주권 하에 통합된 역사가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조를 위해 충절을 바친 세월은 심히 길었다. 물론 그것은 사방의 정세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또 청조의 이익과 만주족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였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근세적인 국민국가의 조류가 동아시아를 풍미한 시세(時勢)를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일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세사의 특징으로 정치적 통일의 경향과 국민주의운동이라는 두 가지를 든다면 어쩌면 이 두 가지는 그 성질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민주의는 원래 자율적인 것이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한히 자기를 확장하려는 경향이 한편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동양 근세사에서 대통일이 최대 다수를 점하는 한민족에 의해 실현되건 또 비교적 소수민족인 몽골인·만주인에 의해 달성되건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니다. 국민주의는 어느 민족에게도 평등하고 어떤 시대에도 균등하게 나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의해 강약이 있고 또 양자의 승패는 일종의 역학적 법칙에 의해 강에서 약을 뺀 답의 형식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유럽에 있어서는 국민주의 발흥으로 소수민족·약소민족이 도태되고 결국 몇 개의 강력국가의 대립으로 귀결되었는데, 동양에 있어서는 국민 형성의 주체가 장소를 바꾸어 나타나 몽골민족·한민족·만주민족이 교대로 대통일을 성취하였던 것이다. 동양 근세의 대통일은 동양 근세의 국민주의와 무관한 것도 아니고 또 서로 모순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국민주의가 발전·경쟁한 결과로 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국민주의는 원래 무한한 발전의욕을 가진 것이면서도 현실의 저항에 부딪쳐 다른 국민과의 국경 획정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동양근세의 국민주의는 거의 무한으로 생각될 정도로 멀리까지 그 정치적 국경을 넓힌 경우가 있었다. 그것이 원·명·청의 대통일인 것이다. 물론 그렇다면 그 이면에는 피정복자 측에 희생을 요구하는 국민주의가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러한 희생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유럽의 국민주의에 있어서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이다. 그런데 유럽의 국민주의는 국경을 획정할 때 매우 현실적·타협적이었음에 비해 그 국경 내에 있어서는 준엄한 동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통상적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어의 통일이 중시되었다. 국어교육에 의한 국민통일은 거의 국민주의의 핵심을 이루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의 소수민족이 자주 반항하여 소동을 일으킨 것도 바로 그러한 점에 의한 것이다.

동양의 국민주의는 그 정치적 국경을 용이하게 전진·확장시킬 수 있었던 반면, 국경 안에 대한 동화정책은 도리어 완만하였다. 특히 북방민족이 한민족을 정복하였을 때 한민족의 언어나 고전문화를 말살시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처음부터 인식하고 통치에 임하였다. 원조도 청조도 굳이 지배 하의 한민족에게 몽골어·만주어를 강요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반드시 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가장 저항이 약한 점을 골라 국부적으로나마 강력하게 동

화정책을 시행하려고 한 경우도 있다. 청조가 중국에 들어가 중국의 모든 남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변발을 강요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나는 이를 중세시대 북위의 효문제(孝文帝)가 그 국인(國人) 선비족에 대해 국속(國俗)·국어(國語)를 금지시키고 강제적으로 한어·한복(漢服)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과 대조할 때 그 정책이 너무나 대척적인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 변발령은 중국인민의 반감을 자극하여 곳곳에서 반란(叛亂)이 발발하였는데, 청조는 단호하게 그 정책을 밀어붙였다. 변발은 청조에 대한 복종의 증거였고 변발하지 않은 자는 청조에 반항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용서하지 않고 토벌하였던 것이다. 청조의 정치력은 마침내 중국의 모든 남자에게 만주풍의 변발을 하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청조 지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마침내 중국인도 그 변발이 마치 중국 고유의 풍속인 양 착각하게 만들었고 청조 말년이 되어 청년이 서양풍의 산발(散髮)을 모방하는 것은 중국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어른들의 빈축을 사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청조로서도 한민족을 철저히 만주화하여 만주문·만주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일 이어서 그만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한민족의 명왕조도 또 만주인에 대해서는 여진문자·여진어의 사용을 인정하고 몽골인에게는 몽골문자·몽골어의 사용을 허가하여 중국과 비한민족과의 의사소통은 모두 통사(通事)를 통하고 번역문서를 사용하는 것에 만족하였다.

청조는 몽골문자를 거의 그대로 이용하여 만주문자로 만들어 자국 언어를 적게 하고, 정복자로서 한민족을 다스리는 체면상 공문서에는 만한(滿漢) 두 문자를 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동족인 만주인이 한어·한문을 배우는 것은 굳이 금지시키지는 않았다고 해도 먼저 만주어·만주문에 밝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또 장려하였다. 이 때문에 만주어의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만주적 교양을 시험보아 관리로 채용하는 길도 열어

두었다. 하지만 만주민족은 이미 만주에 머물며 국가를 세운 것이 아니었다. 거의 모든 민족이 신귀족인 기인(旗人)계급이 되어 중국 내지로 이주하였던 것이다. 그 인구 면에 있어서 중국 인민의 극히 적은 부분[九牛一毛]에 지나지 않았고 그 문화는 현저히 뒤떨어져 있었다. 만주 기인은 역대 황제의 정중하고 간절한 훈계에도 불구하고 점차 만주어를 잊어버리고 만주인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한인화되었다. 아니, 만주인의 한화를 경계한 황실 그 자체부터 한화되었다. 정치적으로 한민족을 자국의 국민주의에 포함한 만주족은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한민족의 소극적인 국민주의 안에 포괄되어 용해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청조 3백년의 역사는 한편에서 보면 만주민족이라는 역사적 대민족의 소멸, 따라서 하나의 국민주의의 소멸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만주족이 수백 년 전에 대거 중국으로 이동한 뒤 생겨난 공백에는 그 후 속속 한민족이 들어가 만주의 토지 그 자체까지 완전히 한화되어 갔다.

만약 원조와 청조가 국어동화 정책을 엄격하게 강행하여 피정복민을 지배하는 것이 근세 유럽의 국민주의와 같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정치적 지배는 중국 전 지역에 미치기는 커녕 중국의 작은 일부분도 지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한 강제정책은 필연적으로 중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러한 혼란의 와중에 새로운 반항세력이 발흥하였을 것이다. 원·명의 황제는 이러한 상황을 잘 간파하였다. 청조도 단지 형식적인 변발령의 실시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의 정치적 국경선의 전진은 국민주의의 내용을 완화하는 조건을 붙이고 아울러 정복자의 특권을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만 최대한 신장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동양과 유럽 간 두 근세의 차이점이지만, 그 근저를 살펴보면 역시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된다.

5. 근세의 문화

서양의 근세가 르네상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르네상스는 사상적으로는 종교개혁과 가장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어느 쪽이건 중세의 부정이라는 점이 같지만, 중세의 부정은 후세의 관점에서 본 것이지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기실 현상의 부정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더욱 뒤에 일어날 혁명사상도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 등에서 나타난 현상의 부정은 나아가 현정권의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실제의 혁명운동으로 연결되어 소규모이기는 해도 자주 반복되었다.

고대에서 중세로의 변천은 대세가 서서히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어서 그러한 변화를 이상으로 찬양한 자는 물론 없고 중세가 된 이후에도 자신이 고대와는 다른 시대에 생활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는 자가 거의 없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고대가 계속되는 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긴 중세적 정체에 지치면서 고대와 중세는 서로 다르다고 하는 발견이 즉 동시에 르네상스적인 자각이었던 것이다. 르네상스는 이중의 발견이며 동시에 그것은 인류가 경험한 최초의 역사적 자각이라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자각은 인민의 문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또 그 배후에 상당히 장기간의 중세적 정체의 역사를 거친 뒤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르네상스가 역사적 필연성을 가진 것이라는 점은 바꾸어 말하면 그것이 사회진보의 단계를 헤아리기 위한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양의 사회에서 송대 즉 서기 11세기 무렵부터 르네상스적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동양사회가 유럽사회에 대한 선진성을 나타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르네상스는 단순한 사상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회

의 종합적인 진보 위에 선 정신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하나의 징후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상의 발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예컨대 회화나 과학의 발달과 같은 현상도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사회진보의 한 특징으로 함께 르네상스 현상 그 자체 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결코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회경제의 약진, 도시의 발달, 지식의 보급이라는 송대에 실현된 여러 현상들은 유럽의 르네상스적 현상과 비교하여 병행적·등가적(等價的) 발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그 르네상스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독특한 인쇄술의 발달이 보인다. 중국의 인쇄술은 원래 불교의 비호 하에 적어도 불교경전 인쇄를 위해 발달의 계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송대에는 불교와 유교가 서로 경쟁적으로 경적(經籍)의 인쇄에 힘을 기울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유교가 융성한 탓에 인쇄상에서 불교가 점하는 비중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세의 사상계는 유·불·도 삼교로 대표되지만, 가장 광범위한 교세를 유지한 것은 뭐라고 해도 불교이다. 유교는 조정에 유용한 관학(官學)이고 정치상의 지도이념이었지만, 걸핏하면 불교가 궁중에까지 침식하였고 유교의 학교가 조정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항상 위축되었던 것에 반해 불교는 지식계급 및 일반대중에 파고들었고 곳곳에 장엄한 불교 사찰이 건립되었다. 때로는 세속에 대한 불교의 진출이 도를 넘어 사전(寺田)을 확장하고 민정(民丁)을 은의하며 치안을 어지럽히고 정부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등을 행하였기 때문에 주권자의 심려를 사서 대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그때에 배후에서 주권자를 조정한 것은 항상 도사였다. 북위 태무제나 당 무종의 배불(排佛)과 같은 것은 그 사례이다. 불교·도교에 비해 유교는 하나의 종교로서 존재한다는 자각을 하지 못하고 단순한 학문으로 극히 미약한 존재로 존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 말기부터 과거가 융성해지면서 과거 출신의 유생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계가 형성되었고 이

무렵부터 유교를 사상적으로 독립시켜 정치와 민중에 대한 지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 이번에는 유교 측이 공세로 나서 배불론이 나타난 것이다. 문호 한퇴지(韓退之=韓愈)가 천자에게 불사리를 들여서는 안 된다고 간언한 것은 그 선구적 발언이다.

오대 말기 후주 세종의 불교배척은 특별히 사상적인 배경을 가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통일정치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불교사원의 기득권에 제약을 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불교는 출세간(出世間)의 종교이기 때문에, 근세적 통일로 향하려는 정치의식이 강한 중국사회에 있어서는 언젠가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 지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형세에 있었다. 다만 이를 대신할 유교 측은 새로운 세태(世態)에 순응할 진용(陣容)을 다시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법왕(法王)을 세우지 않는 불교는 귀족 단월(檀越)과 함께 쇠락하고 이를 대신하여 서서히 유교가 제왕을 훈도시켜 진출하는 결과로 전개되어 유럽의 종교개혁과 같은 열광적인 흥분은 결국 중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대의 유가는 대개 불교 교리를 배척하는 것을 그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자각하고 있었던 듯하다.

중세의 유교는 훈고(訓詁)의 학이 대표적이다. 훈고의 학이란 경전에 적힌 문자의 의미를 천착하는 학문인데, 그 실제의 방식을 보면 경전의 본문에 대해 순서대로 주석을 달아가는 것이다. 경(經)이란 공자의 손을 통해 권위가 붙여진 의심을 허용하지 않는 성인의 기록이다. 이 성인의 기록에 담긴 의미를 착오 없이 해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후세 유가의 책무이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함께 새로운 의문이 계속 생겨났으므로 후대의 유가는 그때그때 주석을 달아 새로운 의문에 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예로 『춘추』를 들어 보면 그 경문(經文)은 노(魯)의 기록을 바탕으로 공자가 산정(刪定)을 가한 것으로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의 기록이다. 그러나 그 진의를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공자와 거의 동시대 사람인 좌구명(左丘明)이 전(傳)을 지어 설명한 것이 『좌씨전(左氏傳)』이라고 한다. 전은

경과 달리 성인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만, 후세에 이르면 경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다. 진대(晉代)에는 두예(杜預)가 이 좌전에 주(注)를 달았다. 당대가 되면 공영달(孔穎達)이 다시 두예주에 소(疏)를 더하였다. 그렇게 본문 아래에 전, 주, 소의 순서로 주석을 누적시켜 가는 것이 훈고의 학풍인 것이다.

주석이 점차 가중되어 간 이유는 또 다른 곳에 있었다. 원래 경서는 각각이 분리되어 단독으로 행해져 왔기 때문에 하나의 경서로 일가(一家)의 학을 이루고 일가의 학만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학(家學)과 가학 간의 횡적인 연결, 또 경서와 다른 경서 간의 상호관계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후한 무렵부터 한 사람이 여러 경서를 익히는 것이 유행하였다. 마융(馬融)과 정현(鄭玄) 등은 그러한 겸경(兼經)의 대학자이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경서와 다른 경서를 비교하기 위해 새로 생겨나는 의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이 다수의 경서에 대해 그들이 동시에 주를 더하는 이유였다. 당대에 이르면 과거가 성행하게 되는데, 이때 시험은 경서의 본문을 문제로 내고 이를 해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권위 있는 참고서가 필요하였다. 이것이 바로 당대에 『오경정의(五經正義)』, 즉 오경에 대한 소(疏)가 찬정(撰定)되어 칙명으로 공포된 이유이다. 소는 경서들을 서로 모순 없이 해석할 수 있도록 종합적 입장에서 자구(字句)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역시 일종의 이론이 필요하다. 다만 그 이론은 매우 무미건조한 형식논리였다. 예컨대 갑의 경서와 을의 경서에 적힌 기사의 차이는 하·은·주 삼대의 예(禮)가 각각 달랐기 때문으로 갑은 은의 예, 을은 주의 예를 서술한 것이라는 식으로 이치를 맞추는 것과 같이 매우 견강부회적인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오경정의』 이전에도 그러한 소에 해당하는 것이 이미 존재하였다. 또 이후에도 이러한 것을 모방하여 다른 경서의 소가 만들어지고 송대에 이르면 그때까지는 경서로 인정되지 않고 단지

전(傳)의 일종으로 취급된 『논어』와 『맹자』에도 각각 형병(刑柄)과 손석(孫奭)의 소가 만들어져 후세에 13경이라 불리는 것에 모두 소가 더해졌다. 훈고(訓詁)의 학은 중세의 학풍이지만, 그 주석학자는 유럽 중세의 스콜라 학자와 더불어 고대의 계승이라는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송대가 되면 훈고학과 단절하고 직접 고대의 원시유교에 접속하려는 새로운 운동이 전개되고 이것이 주자학으로 결실을 보기에 이른다. 송 초에 13경의 소가 완성된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훈고학이 일단락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른바 학문의 막다른 지점이다. 이 막다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훈고학의 무미건조한 점을 넘어 더욱 새로운 방식으로 유교를 사상적으로 음미하려는 경향이라는 두 가지가 합쳐져 송대의 신학문이 생겨나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훈고의 학은 한편으로 해석을 통일하는 학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미를 부연하는 학문이기도 한다. 경에 전이 더하고, 전에 주가 더해지고, 주에 소가 더해지지만, 그렇게 더해지는 것은 정문(正文)보다도 몇 배가 긴 것이 통상적이다. 『춘주』의 경문은 극히 짧아서 합계 16,781자에 지나지 않지만, 『좌전』은 194,955자이며, 또 여기에 주소를 합하면 방대한 책자가 된다. 일찍이 한대의 진연군(秦延君)은 경서에 보이는 “왈약계고(曰若稽古)”라는 네 글자를 설명하면서 3만 글자[言]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본문을 해석할 때 불필요한 말이 혼입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경을 설명하는 것이 더욱 상세해지면서 점점 경의 의미가 희미해지게 되었다. 그러한 훈고의 폐해에 대해 당 말부터 직접 경서를 읽어 그 참뜻을 파악하려는 새로운 학풍이 일어났다. 연역의 학문이 아니라 귀납의 학문이다. 그것을 크게 이른 것이 바로 송대의 주자학이다.

계다가 훈고학은 예(禮)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경서는 고대 제왕의 기록이고 고대의 제도가 기록되어 있다. 제도는 유교에서 보면 즉 예이다. 고대의 예가 어떤 것이며 현재의 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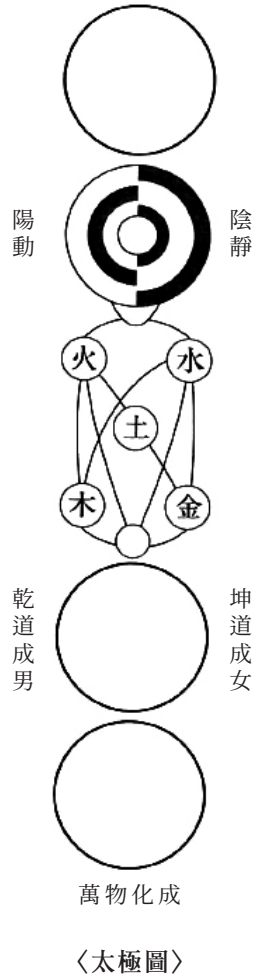
은 훈고학자가 흥미를 갖는 중심 주제이다. 하지만 송대가 되면 이미 경전이 성립된 시대로부터 천 수백 년이 경과하였다. 고대의 제도를 그대로 부흥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아도 중세의 훈고학자는 고대의 연속 안에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시대가 고대와는 다른 중세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였지만, 송대의 학자는 고대에서 중세로 바뀐 것을 인식하고 고대와 현재의 중간에 중세라는 긴 역사가 경과한 이상 경서의 내용을 예(禮)로 보아 이 예를 지금의 세상에 부흥시키는 것을 일단 단념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고대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고 경서의 참된 의미를 궁리하여 그 진실만을 부흥시키려고 한 것이다. 거기에 역시 중세의 부정 및 고대로의 복귀라고 하는 르네상스적 사상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송대 유가가 가장 많은 흥미를 가지고 읽은 것은 공자가 필삭을 가했다고 하는 공자 이전의 기록인 오경(五經)이 아니라 공자 자신의 사상이 담긴 『논어』와 공자 사상의 정통을 이어받았다고 말해지는 『맹자』 및 그 중간에 자리한 『대학』·『중용』이었다. 이들 사서(四書)는 유교입문의 서적으로 정해졌고 실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들이 오경보다 존숭되었을 정도였다. 이는 예(禮)가 되기 쉬운 오경의 학을 멀리하고 철학이 되기 쉬운 사서의 학에서 진리를 찾은 것을 의미하고 유가가 진리의 학 내지는 윤리학으로서 부흥한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확실히 송학은 원시유교의 이상으로 복귀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유교에 대한 사고의 변화는 일종의 사상해방이다. 이전 유교의 틀을 부수지 않으면 새로운 유교는 생겨나지 않는다. 이 사상해방은 역시 당 말부터 나타난 경향의 하나로 특히 북송의 인종 시기에 이르러 왕성한 조류가 되었다. 경서의 전·주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경서에 접촉하여 일가의 설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이다. 그 가운데 용창기(龍昌期)라는 인물이 출현하여 상당히 과격한 언설을 토한 듯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저술은 지

금 전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매우 숭배하였지만, 다른 일부는 강하게 반대하였다. 여하튼 그는 주공(周公)을 가리켜 대간(大姦)이라고 말한 이유로 위험한 사상가로 지목되고 그 저서의 판본은 소각되어 버렸다. 소노천(蘇老泉)의 「변간론(弁姦論)」이 혹 위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쩌면 용창기의 언설에 대해 설파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사상해방의 파도를 타고 불교와 도교의 사상도 단순한 사상으로 유가에게 흡수되었다. 그 안에 태극의 학설이 있다. 이것은 원래 도가에서 생겨난 이론으로 보이지만, 주렴계(周濂溪)가 이를 바탕으로 태극도설(太極圖說)을 만들고 주자 등이 이를 채용하면서 유교 측 우주론의 중심이 되었고 인생의 의의를 논하는 성리(性理)의 학설도 이 태극도설에서 도출되었다. 주자는 스스로 사서와 오경에 새로운 주석을 달았으며 이는 그 제자들에 의해 집대성되었다. 이른바 신주(新注)의 학은 태극설을 근본에 두고 태극의 논리에 따라 고대의 경서를 재해석하여 여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송학의 중심사상은 사서오경의 신주를 읽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 반드시 태극도설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태극도설은 일종의 철학이론이면서도 여기에 이론의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 다만 사색의 결과만을 평면적으로 늘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날 이를 읽으려고 하면



생략된 이론의 내용을 보충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번거롭고 동시에 위험을 수반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본래 태극도라는 것은 앞에 제시한 것과 같은 일종의 기묘한 도식인데, 그 안에 우주의 신비가 설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도설은 그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다. 도설이 말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지금의 우리에게는 명확하지 않은 것인데, 지금 그 대의를 상상하여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해보면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말하건대 우주 속 삼라만상의 현상계를 분류해 보면 결국 목·화·토·금·수의 오행, 즉 다섯 가지 요소가 된다. 이 다섯 요소는 질적인 특징을 가진 가장 미세한 원자(原子)이므로 그 특질을 그대로 보존하는 한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다. 다만 이 원자를 파괴하여 그 질적 특징을 잃게 해도 좋다면 이 각 원자는 음양이라는 두 종류의 기(氣)로 분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음양은 상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적 원자는 이른바 양적(量的)인 플러스·마이너스의 힘으로 분해되게 된다. 그러한 음양과 오행의 물질세계를 기(氣)라고 명명한다. 이 물질세계는 일월의 운행이나 춘하추동의 순환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일정한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 법칙을 정신적인 힘으로 보아 이(理)라고 명명한다. 우주는 그러한 정신적 존재인 이와 물질적 실재인 기에 의해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기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극한의 경우를 상정하여 생각해 보면 된다. 기는 항상 운동하면서 그치지 않는 것이지만, 운동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그 시간을 무한정으로 세분하여 영과 같게 되는 순간을 상상한다. 시간이 없는, 따라서 운동이 없는 죽은 공간은 상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축이 영이 된 때는 공간도, 또 그 안에 포함되는 물질도 일순간에 형체가 사라져 버린다. 그러한 세계는 기의 존재가 허용되지 않는 세계이다. 하지만 정신적인 이는 그 존재에 있어서 별도로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져도 계속 존재할 수 있다.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형체가 사라진 물질세계는 실제로 소멸되어 버린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이 안에 포함되어 보이지 않게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를 태극이라고 한다. 물질이 형체를 감추어 아무 것도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를 또한 무극(無極)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주어진 순간에 기가 움직여 삼라만상을 전개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태극이라고도 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예상하면서 태극도를 다시 보면 송대의 유가는 이 도식으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한 것인지 대체적 짐작이 간다. 제1의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은 시간을 빼앗긴 세계, 무(無)의 세계이다. 이 무는 예컨대 a에서 a를 뺀 후의 공허가 아니고 유한적인 우주가 무한대로 세분되어 영과 같게 된 무의 세계이다. 따라서 여기에 시간이 부여되고 운동이 가능해지면 제2의 음정양동(陰靜陽動)의 세계가 된다. 음의 정(靜)은 양의 동에 대한 상대적인 정이고 태극에서와 같은 절대적인 정지가 아님은 물론이다. 음양 두 기의 세계는 곧바로 제3의 오행 세계로 발전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전에 펼쳐지는 현상계이다. 다만 오행은 또 무기물의 세계이자 무생물의 세계이다. 이 오행 세계의 일부분이 제4의 생물계로 발전한다. 생물계에서는 음양이 건곤(乾坤)으로 번역되는데, 건은 남성이 되고 곤은 여성이 된다. 이 남녀 두 성(性)의 어울림에 의해 제5의 만물화성(萬物化成)이라는 유기물의 세계, 동시에 인간의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상이 태극도설의 상상적 세계이다.

태극설은 우주관에 그치지 않고 인생관에도 응용된다. 인간은 우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와 기를 함께 지녔고, 거기서 인간이 양면의 성질을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인간의 성질에도 양면성이 생겨난다. 이(理)로부터 받은 것을 천연지성(天然之性)이라고 하고 물질적 육체로부터 받은 것을 기질지성(氣質之性)이라고 한다. 그런데 천연지성은 일월의 운행을 관장하는 이(理)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항구적이며 동시에 중용

(中庸)의 덕을 구비하고 있다. 여기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고래로 중국 사상에서는 선과 악을 성질의 차별로 인정하지 않고 정도의 차이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인간의 행위에는 각각 적당한 상태의 균형이 있는 법인데, 이를 중용이라 말한다. 이 중용에 합치된 행위가 선(善)이다. 이러한 중용의 내용을 옛 성왕이 법칙으로 성문화한 것이 예(禮)이다. 예에 합당한 행위는 최상의 선이고 이를 벗어나면 지나친 경우도 모자란 경우도 똑같이 악에 해당한다. 예에서 점점 멀어지면 더욱 더 심한 악이 된다. 예컨대 부모의 상을 치르는 데는 확실하게 옛 성왕이 정해 놓은 예가 있으므로 단지 예에 따라 행하면 그것으로도 최상의 선이다. 상의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짧게 해도 길게 해도 안 된다. 효심이 강한 나머지 3년 상을 늘리려고 하면 그것은 예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장 비난받아야 할 악덕이다. 그런데 중용은 구체적으로는 예로 표현되어 있지만, 결과로 보면 중용의 도(道)는 가장 항구적이어서 언제까지 행해도 막다른 곳이 없는 도이다. 만약 도중에 변경해야 한다면 이는 중용이 아니다. 중용의 용은 상(常)으로 해석하는데, 항구성의 의미이다. 일월의 운행, 사시(四時)의 순환과 같은 것은 가장 천지의 중용의 덕을 발휘한 것으로 인류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항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천연지성은 이 일월의 운행과 사계의 순환이 영구히 반복하여 그치는 경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구성을 가진 즉 중용에 합치하는 것이다. 인간이 이러한 천연의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기질지성을 아울러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기질지성은 육체에서 오는 성질, 즉 감각욕망이다. 욕망은 본래 반드시 악은 아니다. 하지만 악은 욕망에서 생겨난다. 즉 욕망 때문에 천연지성의 중용성이 굽어지고 인간의 행위가 치우치기 때문이다. 성인이라는 것은 기질지성이 잘 훈련되어 천연의 성과 다를 바 없이 항상 중용을 벗어나지 않게 된 사람이다. 일반의 인간은 반드시 기질지성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중용을 벗어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수양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천연지성으로 되돌아가 기질지성의 발동을 천연지성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항상 의식(意識)을 통해 정신적 태극의 상태 즉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때는 기질지성이 천연지성 안에 포함되고 완전히 천연지성이 되어 성인의 경지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러한 상태를 경(敬)이라고 한다. 송학은 그렇게 인성(人性)의 문제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또 성리의 학이라고도 불렸다.

송학이 일종의 복고운동으로서 중세적인 훈고의 학풍을 배척하면서 고대의 순수한 유교의 진의를 찾으려고 한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그대로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조망해 보면 여기에 채용된 이론은 뭔가 불교적인 것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태극에서의 무는 불교의 공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극한의 논리는 맹자가 사단(四端)의 설로 증명하거나 무심(無心)의 행동 안에 선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역시 유교적 사고의 발전이다. 나아가 선을 중용으로 해석하고 중용이 구체화·성문화된 예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어디까지나 중국적이다. 송학은 한편으로 무를 말하면서도 결국 세간적인 가르침이지 불교와 같은 출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송학이 후세로부터 표면은 유교이지만 내면은 불교라고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송유 자신들은 어디까지나 송학을 세간의 유용한 학문이라고 말하면서 불교를 출세간의 무용한 가르침이라고 배척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요컨대 송학은 복고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유교의 재편에 그친 것이다. 유교가 과연 종교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논란이 많은 문제이지만, 이미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의 기록이자 신앙의 바탕이 되는 경(經)이 있고 행동의 규범이 되는 예가 있다. 이것은 불교의 경부(經部)와 율부(律部)에 대응하는 것이다. 종래에 불교에 비해 뒤쳐진 것은 논부(論部)가 빈약한 점에 있다. 송학의 공적은 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유교 독자의 우주관과

인생관을 수립하는 논부의 보강에 있다. 이것이 태극도설 이하 송유의 저술인 것이다. 이들 저술은 명대에 이르러 『성리대전(性理大全)』안에 수록되어 『오경대전』·『사서대전』과 함께 황제로부터 정통의 학문이라는 권위를 부여받고 과거시험에서 경서 해석의 표준으로 정해졌다.

유교의 예는 불교의 율(律)에 해당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함께 고대의 예는 그대로 실행할 수 없게 되고 또 예의 해석에도 왕왕 의문이 생겨났다. 주자가 편찬한 『주자가례(奏者家禮)』는 고대의 예를 쉽고 편하게 재편한 것으로 이후의 중국사회는 관혼상제에 이 가례를 전거로 삼아 이용하게 되었다. 중세 이후 귀족사대부 집안에서 상제(喪祭)에는 불교식을 섞는 것이 습관이었고 북송시대에는 반불반유(半佛半儒)의 타협적 방식이 채용되었지만, 주자 이후 『가례』의 준용으로 의해 불교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다만 민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가례』에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불교식 또는 도교식이 혼용되는 것을 벗어날 수 없었다.

송학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유교가 음으로 양으로 불교의 영향을 받은 흔적은 감출 수 없다. 한편, 불교 내부에서도 당대 중엽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 중국사회에 적응력을 기르고 있었다. 정토교의 융성 및 선종의 성행이 그것이다. 특히 선종은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주창하여 일단 인도 기원 경전과의 절연을 선언하였다. 선(禪)의 청구(淸規)는 인도적인 율(律)을 중국 풍토에 맞게 재편한 것이며 『주자가례』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송학은 도통(道統)이라는 것을 세워 옛 성왕에서부터 공자를 거쳐 차례로 도가 계승되어 온 계보를 만들었는데, 이는 아마도 직접적으로는 선종의 법등상전(法燈相傳)의 사상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종에서의 법등 사상은 밀교의 비밀전수에서 온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러한 사상은 맹자 무렵의 원시유교에 이미 존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불교가 유교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유교가 불교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간단히 결론지을 수 없다. 다만 선종에서는 조사(祖師) 달마(達磨)가 천축에서

중국으로 오면서 중국 땅에 진짜 불교가 전래된 것으로 보아 그 이후는 새로 인도로부터 불교를 배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도 선종은 완전히 중국으로 귀화하여 인도와의 절연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선종은 송대에 들어 유교적 사대부와의 교섭이 깊어졌다. 다만, 중국의 선종은 일본에 전래되어 무사사회에 수용된 것과 같은 의지적인 수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학적 정취가 풍부한 생활향유를 목표로 한 시적(詩的) 종교였던 듯하다. 선방은 종종 사대부를 위해 작은 사교장으로 이용되었다. 생명을 걸고 참선하려고 생각한 사대부는 실재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대부가 선승과 교섭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불교적 철리(哲理)가 유교 안에 침투하여 송유에 의한 성리의 학설과 같은 것을 낳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주자에 의해 집대성된 송학에 대해 특별히 반기를 든 것은 명대의 양명학(陽明學)이다. 양명학은 그 전체의 구상이 더욱 선종에 접근되어 있다. 양명학이 송학과 다른 점은 철학적인 체계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논의 방향의 차이인 듯하다. 양명학은 심즉리(心卽理)를 그 출발점으로 한다. 마음은 곧 '나'라고 하는 자각이지만, 그 마음이 이(理)라고 할 때 그 이는 주자학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것이다. 다만 주자학에서는 태극설을 전제로 하여 우주론으로부터 인성을 말한다. 이는 마치 물리학으로 심리학을 말하고 심리학으로 도덕을 말하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해 양명학에서는 인식론에서 출발하여 우주론에 이르려고 한다. 모든 학문은 나라고 하는 자각인 마음을 근본으로 하여 마음 위에 철학을 세우려고 한다. 옛 성인의 경전도 마음이 드러난 하나의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양명학의 선구가 되는 송의 육상산(陸象山)은 그러한 입장에서 “6경은 마음의 각주(脚注)에 지나지 않는다”고 갈파한 것이다. 양명학에서 경서는 성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발로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마음과 경전이 접합하여 공명하는 점을 경학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한 것

이다.

중세의 훈고학이 소승적인 것이라면 송학은 확실히 대승적 유교이다. 훈고학은 오로지 경전에 의거하고 경전을 설명할 때는 예를 근본으로 한다. 주자학에 이르러 논(論)을 중심으로 한 유교가 되고 외형보다도 진의를 찾는 데 중점을 둔다. 단순하게 성인을 먼 곳에서 찬양할 뿐 아니라 범인도 수양에 의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양명학에 이르면 이 점이 한층 강조되었다. 온 거리에 성인이 가득하다는 선종의 공안(公案)과 비슷한 양명학의 학설은 누구나 불성이 있다는 사상과 공통된 것이다.

양명학이 심학이라 칭해지고 학문은 경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반성이라고 주창한 것은 한편으로 보면 학문이 경서로부터 단절되어도 성립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연 양명학의 말류(末流)에는 경서 연구를 소홀히 하고 공허한 철학적 담론에 빠지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미 송대부터 인쇄가 용이하고 서적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대유(大儒)의 어록이 계속 출판되고 그것이 읽기 쉽다는 점으로 인해 일반 독서계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주자의 어록과 왕양명의 『전습록(傳習錄)』과 같은 것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어록을 읽으면 따로 경서를 연찬하지 않아도 학계의 문제가 거기에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저자의 견해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학문적 사교계에 있어서 애깃거리를 제공하고 담론에 꽃을 피우는 데에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날이라면 이른바 잡지학문과 비슷한 것이다. 어록의 학이 성행하면서 학자는 점점 경서를 멀리하였다. 명대의 유학이 그 언어학적 혹은 역사학적 연구에 소홀하여 거의 후세에 남는 어떠한 기초적 저술이 없는 것도 그러한 점에 의한 것이다.

유교는 원래 경세유용(經世有用)의 학으로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 있어서 정치학 그 자체가 될 수 없었지만, 이를 예(禮)라고 본다면 그래도 약간의 정치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송학이 되건 명학이 되건 사변적·철학적이 되면서 점점 실제 사회로부터 유리된 관념적 학

문이 되고 말았다. 양명학이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창하면서도 말류는 단지 지행합일을 하나의 관념으로 완미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심학의 공허함과 어록(語錄)학의 경박함에 대해서는 명대 중엽을 지나 서부터 학계에서 점차 반성의 경향이 나타났다. 최초의 의도는 근본경전인 사서를 사상적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으로 파악해 보려는 시도인데, 이는 양명학으로부터 주자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종의 복고주의 운동이며 동시에 경서를 과학적으로 다시 읽으려고 하는 고증학적인 경향이였다. 이 경향은 명의 멸망 및 청조로의 교체라는 역사적 대전환기에 즈음하여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여기서 청조 고증학이 출현하는 것이다.

명 말의 대란은 유가를 일시적으로 정치권 밖으로 멀어지게 하였다. 명의 유신이라 자임하는 대유(大儒)는 그리하여 경학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심학으로부터 송학으로의 복고는 마침내 나아가 송학으로부터 한학(漢學)으로의 복귀를 촉진하였다. 원래 송학이 주창한 복고는 실은 순수한 복고가 아니라 불교의 영향을 다분히 받은 변형 유교의 성립으로 종결되었다. 불교가 도래하기 전의 순수한 고대 중국정신의 진면목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 이전의 학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한학부흥론의 주장이다. 그리고 그러한 학문 복고를 위한 수단으로 채용된 것이 고증이라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오래된 유교의 원시적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전의 본문 비판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다른 판본을 참조하여 교정(校訂)을 행해 수천 년 동안 전래되면서 발생한 문자의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언어학적 방법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전래의 오류를 오류라고 단정하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확실한 비판방식에 의해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왜 그것이 오류인가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자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도 읽는 방법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도 반드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은 종래의 중국 학계에서는 보이지 않은 새로운 현상이다. 청조 고증학의 행방에는 그 이면에 왕성한 과학적 정신의 약동이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과학적 정신은 어떻게 해서 청조 시대에 들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아마도 그것은 서양학술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명 말부터 예수회 선교사가 중국에 와서 최신 유럽 학술의 일단을 전 하면서부터 중국의 지리학·천문학 등의 실학은 면모를 일신하였다. 그것이 역시 경학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유럽의 르네상스 문화는 일찍부터 동양의 그것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청조의 고증학자는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 경전의 고증을 행하였다. 종래에 경서라고 하여 거의 의문을 품지 않았던 『서경』 안에 『고문상서(古文尙書)』라는 위작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염약거(閻若璩)의 업적은 고증 분야에 있어서 가장 눈부신 성과의 하나이다.

근세의 유교는 그렇게 몇 차례나 변천하였지만, 그 사상적 주류는 결국 송학에 다름 아니었다. 명학은 송학을 인식론으로까지 전개시킨 것에 지니지 않으며 청조의 고증학에는 독특한 이론이 없고 오히려 방법론에 특색이 있었던 것에 지니지 않는다. 그들의 실제생활은 변함없이 『주자가례』를 따르고 그 행동의 바탕은 주자학의 사상이었다. 주자학의 출현이야 말로 중국사상계를 중세에서 근세의 단계로까지 고양시킨 것으로 그것은 훈고학을 극복한 점에서 일종의 르네상스임과 동시에 또 불교의 지도적 지위를 부정한 점에 있어서 일종의 혁신이었던 것이다.

문학 방면에 있어서도 송대를 중심으로 유럽과 유사한 르네상스적 현상이 보인다.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것이 상반된 두 개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목된다. 그 하나는 고문의 부흥이고 다른 하나는 백화문학(白話文學)의 탄생인데, 어느 쪽이건 중세의 부정이란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한대 이전의 문장은 당시의 구어 그대로는 아니었을 것이지만, 매우

구어에 가까운 문체였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중세에 들어서부터 구어와 문어 사이의 거리가 점점 커지게 되고, 문어는 소위 사육변려체(四六駢儷體)라고 불리는 수사적 문장이 되어 당대까지 지속하였다. 당 만기에 한 퇴지(한유)가 나오고 북송 초기에 구양수(歐陽脩)가 나와 모두 사육문체를 배척하고 한대의 고문을 모방하여 뜻이 잘 통하는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창도하였다. 그들이 목표로 한 바는 사마천·반고 무렵의 문장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에 그리스어 연구가 유행한 것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당시의 유럽인에게 그리스어는 외국어였지만, 중국인에게 한대의 문장은 자국어였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와 병행하여 당 말부터 백화문이 나타났다. 이는 구어체의 문장인데, 근년에 간수성(甘肅省)의 둔황(敦煌)에서 영국·프랑스 등의 탐험대가 발견한 고사본 중의 일부 문서를 통해 이미 당대부터 구어문학이 존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송대에 들어 도시문명의 발달과 함께 민중오락으로 연극과 강담(講談)이 유행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구어로 쓰여진 것은 분명하다. 당대는 시가 성행한 시대로 문학상에 있어서 한 시기로 나누어지지만, 그것이 과연 어디까지 음곡(音曲)에 맞추어 노래로 부를 수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송대에 들어 실제로 음악에 맞추어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사(詞)의 형식이 유행하여 유명한 문인·학자도 사를 지었다. 당시에 대해 송사라고 하면 중국 운문(韻文)의 쌍벽을 이루지만, 사는 매우 자유롭게 백화를 구사하였다. 게다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송대 이후의 유가와 승려의 어록이다. 이는 문인(門人)이 그 스승의 담화를 그대로 적은 것으로 완전한 구어문으로 되어 있다.

문장의 구어화는 원대 몽골인의 지배 하에서 더욱 진전되었다. 즉 이 시기에 일시 유학이 관학의 지위를 상실하고 과거시험도 정지된 시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중국인의 생활은 한동안 고전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이다. 천자가 내리는 칙어성지(勅語聖旨)는 몽골문을 구어로 직역하여 반

포되고 법률도 또 구어로 쓰여졌다. 이러한 시대에 가극의 대본으로 훌륭한 백화문학이 성립된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명대의 『원곡선(元曲選)』 등이 그것이다. 명대에 이르러 지금의 형태로 정돈된 『수호전(水滸傳)』이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와 같은 장편소설은 원조 치하에서 민간문학으로 육성되고 다듬어지며 발전 도상에 있었던 것이다.

천자의 명령인 성지(聖旨)를 구어로 적어 그대로 반포하는 것은 이후 대대로 습용되었다. 청조 말년에 이르기까지 천자가 신하의 상주(上奏)에 대해 “알았다”라는 말 등의 속어로 주비(朱批)를 적는 방식이 행해졌다. 다만 장문의 칙어를 내릴 때는 신하가 별도로 원안(原案)을 기초하기 때문에 이때는 귀족적인 사륙변려 또는 고문으로 작성한다. 그러나 명대 초기까지는 상당히 긴 속어의 성지를 내리는 경우가 있었던 듯하다.

명대 이후 『수호전』·『삼국지연의』, 또 『서유기(西遊記)』·『금병매(金瓶梅)』라는 백화문학이 성립되어 독서계를 품미하여 조금이라도 문자를 안다면 탐독하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이때 성인의 도를 배우고 나아가 이를 후세에 전하는 것이 임무로 부여된 독서인은 표면적으로는 적어도 이를 시정(市井)의 저속한 글이라며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민국 이후 문학 혁명운동이 일어나 백화문이 제창된 뒤부터 비로소 원곡과 『수호전』은 중국 국민문학의 정수로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송대에 이루어진 백화문학의 흥기는 유럽 르네상스기의 국민문학 발흥에 비교될 정도로 근세적 조류의 하나로 꼽아도 좋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역사적인 제국주의의 멸망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유럽 르네상스 현상의 가장 현저한 표현의 하나는 회화의 발달이다. 사실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하면 『데카메론』이나 『신곡』과 함께 먼저 다빈치와 라파엘로를 상기한다. 르네상스는 단순한 고대의 부흥이 아니라 인류문화 발달 도상에 이루어진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양의 르네상

스 시기에 해당하는 송대에 있어서 회화 분야에 큰 전환이 일어난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회화의 발달은 깊은 인간성에 뿌리를 둔 요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다만, 만들어진 회화 그 자체에 대해 말하면 동양과 서양이 반드시 비슷한 작품만을 남겼다고는 말할 수 없다.

고대 중국에서는 학문도 회화도 봉건적인 길드조직 안에 봉쇄되어 있었던 듯하다. 중세에 들어 학문은 귀족사회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길드로부터 벗어났지만, 회화는 이른바 화공에 의한 공인조합의 독점 아래에 있었다. 이 길드의 독점으로부터 먼저 회화를 해방시킨 것은 아마도 화승(畵僧)의 출현이었다고 생각된다. 부처를 받드는 승려가 직업화가 아닌 비전문가로서 불화를 그려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문인과 학자 또한 비전문가로서 그림을 그렸다. 이른바 문인화 내지는 사대부화라고 하는 것이 당대에는 이미 상당히 성행하였고 그것이 직업화가의 그림과 달리 생산이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귀족사회에서 귀하게 여겨졌다. 남화(南畵)라는 새로운 화풍은 이 비전문가 그림에서 발생한 유파라고 생각된다.

원래 직업적 회화는 길드조직 안에서 스승에서 제자로 화법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 전승이 엄격하고 그런 까닭에 자연스럽게 틀에 맞춘 장식화가 되기 쉽다. 제자는 그 스승의 화풍을 모방하기 위해 한번은 자기의 개성을 죽여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비전문가 그림은 유풍(流風)에 구애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래 회화라는 것은 집의 벽이나 기물의 측면에 장식으로 그리는 것이 본질이고, 비단이나 종이에 그리는 것은 아마도 그 그림책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마침내 그러한 교본 자체가 감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며 종이나 비단에 그려 벽에 붙이기도 하는 것은 한참 훗날의 일이다. 원래가 장식적 효과를 노린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림은 채색이 강렬한 금벽(金碧: 황금색과 푸른색)으로 빈틈없이 칠한 인물이나 누각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윽고 비

전문가 그림이 발달하면서 서권(書卷) 형식의 소형 화권(畫卷: 그림 두루마리)이 문인들에게 총애를 받게 되었다. 현재도 전하는 당대 왕유(王維)의 ‘망천설경도(綱川雪景圖)’와 같은 것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여기에 이르면 화권은 이미 교본이 아니라 그 자체가 궁극의 예술품이 되었던 것이다. 이미 가까운 책상 위에 펼쳐 감상하는 것이 되면 강렬한 색채보다도 선의 재미로움이 문제가 된다. 이리하여 회화는 한결음씩 후세의 남화 형식으로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한층 발전하여 종래의 화법을 묵수(墨守)하는 이른바 북종파와 새로 발명된 남종화 사이의 차이가 커지는 것은 당말오대 무렵부터이고 송대에 들어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오대 시기에 북방 중원지방은 군벌왕조가 단기간에 교체하면서 그때마다 공격전이 반복되었지만, 정치 정세가 안정된 강남과 축의 할거정권 하에서는 군주의 보호 하에 육성되어 독특한 미술과 공예가 발달하였다. 특히 남당(南唐) 영내에서 회화의 기초적 조건이 되는 제지·제묵(製墨)·제필(製筆)의 기술이 진보하였다. 남당 왕실용의 징심당지(澄心堂紙)가 특히 유명하다. 중국에서는 독특한 제지기술에 수반하여 비단으로부터도 폭이 넓은 종이가 생산되어 접합 없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고 또 장황(즉 표구) 기술의 발달에 의해 그림을 손상시키지 않고 족자 혹은 두루마리로 하여 보존·감상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화가 유럽의 회화와 상반되는 것은 그 재료에 의해 좌우된 점도 적다고 할 수 없다.

북송 시기에 역대 천자는 궁중에 화원(畫院)을 설치하고 여기에 황제 전용화가인 시조(侍詔)를 두어 회화를 그리게 하였다. 북송 말 휘종(徽宗) 황제의 선화(宣和) 시대에 특히 성행하였고 그림의 소재는 풍경·인물·화초·영모(翎毛: 화조화)를 가리지 않았는데, 특히 극채색의 화조화가 이른바 선화 미술의 특징이 되었다. 그 기교가 극도로 섬세하고 궁중으로 대표되는 당시 상류사회의 취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원화체(院畫體)라고 불렀다. 이것이 말하자면 화단의 정통을 이루었다. 이 유파는 후세에 북종(北

宗)으로 칭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말오대 경에 형호(荆浩)·관동(關同)이 나와 수묵 혹은 담채를 사용하여 산수를 그렸는데, 이 화풍이 재야의 문인사대부 사이에 환영되어 기존의 풍토와는 다른 하나의 그림체를 열고, 이어서 동원(董源)·거연(巨然) 등이 나와 후세에 남화(南畵)로 칭해지는 유파를 대성하였다. 종래의 화가가 산수를 그리는 데 대부분 구법(鉤法: 가운데손가락으로 붓대의 앞쪽을 누르고 쓰거나 그리는 기법)을 이용하여 깎아지른 듯이 솟아있는 암벽을 즐겨 그리는 것에 반해, 이 유파는 홀로 있는 산을 토지의 주름진 굽이로 보아 준법(皴法: 산수화에서 산·벼랑·바위 등의 굴곡진 모양을 입체적으로 그리는 화법)을 이용하여 둥글게 그리려고 한 것이다. 북송·남송의 교체기에 미불(米芾)·미우인(米友仁) 부자가 나와 혹은 서역 출신의 회교도(回教徒)라고도 생각되는데, 미점산수(米點山水)로 칭해지는 화법을 즐겨 사용하였다. 준법이건 미점이건 어느 것도 대지의 주름진 굽이의 리듬감을 어떻게 평면적인 종이에 그릴 것인가를 고심한 형적이 보이는 것이다. 동양화가 입체감을 나타낼 때 서양식의 음영을 사용하지 않고 준법을 발명한 것은 동서의 화풍을 현저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더구나 당대 중기에 음영화법이 서역으로부터 전래되어 한때 유행한 듯하지만, 그것이 마침내 준법에 압도되어 버린 것은 특별히 화법 그 자체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에 좌우된 결과일 것이다. 그 이유의 하나는 동양화가 문인사회에 들어가 시화일치(詩畵一致)의 이상에 따라 제찬(題贊)을 수반하고 서적(書蹟)과 합쳐 동시에 감상하기 위해 화법 속에 서도적(書道的)인 선을 보존해 두는 것이 자연스럽게 요구된 점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향은 특히 남화에서 현저하다. 그리고 회화가 단순한 색채와 색채의 배합에 그치지 않고 그 경계에 선의 재미로움을 남기려고 한 착상은 유럽에서 최근에 이르러 점차 그 필요성이 주창되고 있는 것이다.

동양의 회화는 종이 혹은 비단이라는 광택이 있고 때끄러운 서사재료의 발명에 의해 일찍부터 벽화로부터 분리되어 책상 위의 감상물이 될 수 있었는데, 서양에서는 긴 후세까지 벽화적인 용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유화도구와 같은 강한 색채로 비교적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다행히 르네상스 이래의 강력한 과학문명이 배경이 되어 예술을 뒷받침하였기 때문에 도구에 압도되지 않는 독자의 경지를 지키면서 회화예술이 이후에도 계속 발전하였다. 이에 반해 동양화는 너무나도 일찍 적당한 서사재료를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치밀한 소품(小品)의 그림에 경도되어 대작이라고 해도 기껏 두루마기 그림이나 병풍 정도에 그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틀 속에서 또한 독특한 발달을 이룬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림 두루마리의 발달은 유럽에서는 마침내 나타나지 않은 특수한 것이다.

서양화를 감상하는 데에는 서양화를 보는 관점이 있듯이 동양화에는 또 동양화에 대한 관점이 있다. 예컨대 동양화의 산수에는 원근법이 없다는 비난이 종종 있지만, 실은 역시 일종의 원근법이 있다. 서양화의 원근법은 전경(全景)이 예를 들어 카메라의 암상자 안에 비치도록 초점을 고정한 채 무한대의 거리에서 조망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육안으로 경치를 볼 때 눈동자를 사진기 렌즈와 같이 고정한 채 바라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 끊임없이 초점을 이동시키면서 보는 것이다. 그림 두루마리를 펼칠 때 특히 잘 이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활동사진 기계와 같이 끊임없이 전방으로 이동시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두루마리 축은 대부분 횡으로 길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경치를 바라보듯이 초점을 연속적으로 전방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 곳의 산과 인물이 가까운 그것과 거의 차이가 없어 특별히 지장이 없다. 다만 먼 경치도 가까운 경치도 동일한 화면에 그려지기 때문에 마음만큼 그것을 작게 그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역으로 먼 곳을 한쪽 편

씩 본 두 개의 면(面)으로 하여 그것을 합치면 멀리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산수화를 보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그림 안에 들어가 길을 지나 기슭에서 봉우리까지 유유히 풍경을 감상하면서 헤매듯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동양화의 산수는 이른바 일종의 입체적 원근법에 의해 그린 것이다.

서양화와 같은 전쟁 그림이나 나체 그림이 동양화에 발달하지 않은 것은 확실히 뒤쳐진 것이지만, 한편으로 산수화가 다른 세계보다 앞서 발달한 점은 자랑할 만한 것이다. 동양에서도 산수는 원래 인물화의 배경으로 출현한 것이지만, 거기서 산수만이 독립하여 단독으로 감상하게 되는 것은 일반 문화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일어나는 현상이다. 당대(唐代)의 산수에는 여전히 궁전·누각의 부속물로서 의미가 많다고 생각되지만, 왕유의 '망천설경도'는 순전한 산수화이고 그것이 송 이후에 오히려 회화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인간사를 벗어난 자연 그 자체의 즐거움을 발견하여 그림의 소재로 삼은 것은 인류가 작위적인 인간세상의 현상들에 깊은 반성을 한 뒤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양에 있어서도 풍경화는 종교화와 인물화를 모든 각도에서 다 바라본 뒤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일반화되는 것은 동양과 직접 교통을 열린 17세기의 네덜란드에서였다. 17세기라고 하면 동양에서는 이미 청조 초기에 해당한다. 송대 이후 중국에서는 원 말기에 이른바 남화 4대가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명대에는 동기창(董其昌) 등이 나와 회화에 남북의 두 파가 있음을 논하면서 아울러 남화가 화단의 정통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청조 시대가 되면 이미 화법과 화론(畫論)이 갈 데까지 간 후로서 오히려 쇠퇴시기에 해당한다. 이 점에 있어서도 역시 서양문화에 대한 동양문화의 선진성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양화의 선진성은 풍경화만이 아니다. 동양화는 사실(寫實)이 부정확하다고 말해지지만, 반면 거기에는 일종의 인상주의가 있다. 회화는 결국

회화여서 기계적인 사진과는 다르다. 이른바 천연색 사진을 궁극의 목표로 한 듯한 서양화에서도 그 기법이 막다른 길에 이르자 그들은 동양화의 형체를 초월한 인상주의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서양 19세기의 인상주의 화풍은 동양화의 그것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고 하나에서 열까지 동양화를 모방하였다고는 더욱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몇 세기나 이전에 발달을 이룬 동양화가 이에 큰 자극을 주고 계속하여 새로운 미적 안목으로 재평가되면서 점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어 : 동양의 근세와 서양의 근세

인류역사의 고대사적 발전은 대통일 작용의 진행으로 대표된다. 이 대통일은 보통 정복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대영토의 정복 및 유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반의 물질적·정신적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인류의 과학적 지식의 발달, 기술의 진보, 서사기구의 기능, 자본의 축적 등과 함께 대통일의 이념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그러한 인류의 진보는 동시에 할거적 세력을 배양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는데, 고대적 발전은 그 원심적 작용을 극복하고 구심적 통일력이 표면에 나타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수메르 나라들 이래 바빌로니아·앗시리아·시리아의 문화가 없었다면 대 페르시아의 대통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스·페니키아의 문화가 사전 정지작업을 한 후가 아니라면 로마의 대통일도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양에 있어서도 춘추전국시대의 눈부신 문화·사회의 발달이 없었다면 진한의 통일시대는 도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류의 고대적 문화의 총결산인 대통일은 이윽고 내외의 모순이 폭발하여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있어서 고대사적 발달이 종지부를 찍고 역사는 중세의 할거시대로 진입한다. 그러한 할거적 세계에 있어서는 지방의 정치·문화·사회에 대해서는 지방인이 가장 많은 발언권을 가진다. 고대의 구심적 통일력의 과도한 진행은 중세의 원심적 할거세력에 의해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이 유럽과 같은 봉건제도를 취할까 아니면 중국의 경우와 같이 호족적 귀족의 지방자치적 경향을 취할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할거는 한편에 있어서 정력의 분산을 의미한다. 중세의 문화가 고대에 비해 정체적이고 찬란한 광채를 잃은 듯이 보이는 것도 또한 어쩔 수 없는 결과이지만, 지방 실력의 배양을 위해서는 역시 필요불가결한 시대였다. 그리고 중세사회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시대가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 거의 자각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변함없이 고대의 연속선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중세사적 정체의 이면에도 역시 일종의 중세사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여기에 르네상스적 현상이 나타난다. 그들이 사는 시대는 이미 고대와는 다른 중세가 되어 있다는 자각, 거기서 생겨난 현세의 부정, 고대로의 동경이 르네상스 운동의 원동력이다. 르네상스는 인류 역사에 대한 반성이고 더 자세히 말하면 그것은 중세의 자각이며 고대의 발견이자 동시에 근세의 창조였던 것이다. 르네상스는 인류에 있어서 최초의 역사적 자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류 문화사회 발전의 한 단계로서 역사를 헤아리는 척도의 하나의 눈금이 된다. 르네상스 이후를 근세로 보는 것에 역사가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이론이 없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 의한 것이다.

유럽 근세의 개시가 대체로 13·14세기라고 한다면, 동양의 그것은 서기 10·11세기의 송대로 보아도 좋다. 여기에 우리는 동양의 어느 시기에 있어서의 선진성·지도성(指導性)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있어서 그렇다면 동양과 서양이라는 두 세계에서의 역사발전은 단순한 병행현상인가 아니면 내면적으로 관련된 동일한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겨난다. 종래의 역사관은 동양과 서양을 별개로 고립된 두 개의 세계로 간주하고 서로 아무 관련도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후 역사적 연구에 의해 두 세계 사이에 밀접한 교통이 옛날부터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 점차 증명되고 있지만, 그것은 조금도 대세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치부하는 듯이 보인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실증사학 이상의 큰 문제에 부딪힌다. 역사시대에 행해진 교통이 과연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가는 오늘날의 역사학적 방법으로는 증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실증의 문제를 벗어나 평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평가를 어떤 사람이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가장 적당한 자는 역시 역사가이다. 차후의 역사학은 나아가 실증을 가지고 능사로 삼지 않고 대담하게 평가의 문제와 맞붙지 않으면 안 된다.

동양의 르네상스가 서양의 그것보다 3세기나 선행한다는 것은 당연히 동양의 르네상스가 서양의 그것을 계도하여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동양과 서양은 동양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직전에 몽골대제국의 성립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힘입어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양자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교통을 방해하던 이슬람세력이 몽골에 의해 일시 괴멸되어 동서의 교통이 일찍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행해지게 되었다. 서양인으로 동양의 끝까지 여행을 온 것은 마르코 폴로 한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한 세계정세를 고려에 하건대 우리는 교통의 위력에 절대적인 작용을 인정하고 나아가 동양의 르네상스가 서양의 그것에 어떤 종류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고 싶다. 그것은 특히 회화의 방면에 있어서이다.

몽골의 대정복에 의해 중국의 회화는 서아시아의 이슬람세계에 수입

되었고 특히 페르시아를 차지한 몽골 일(伊兒)한국에서 밀화(密畵)미술이 공전의 발달을 보았다. 원래 이슬람교는 우상숭배를 극도로 배척하므로 서아시아에서는 인물은 물론 동물류를 회화·조각으로 표현하는 것조차 꺼렸다. 그것이 몽골의 정복에 의해 일시 이슬람교의 중압이 제거되고 이를 계기로 중국화법이 수입되어 매우 정밀하고 화려한 색깔의 (세)밀화가 되어 페르시아 문학서를 장식하였던 것이다. 과연 오래된 종교적 전통은 벽화와 액자그림을 감상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였지만, 그렇게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사본(寫本)의 삽화 미니어쳐(세밀화)로서 출현하였다. 이 새로운 미술은 훗날 이슬람교가 부활한 뒤에도 묵인되어 서아시아·인도의 이슬람권 내에서 특수한 예술로서 오랫동안 번영하였다.

일한국에서 밀화예술의 최전성기 직후에 이탈리아에 르네상스 회화의 제1기가 시작되었고 이어 서아시아에서 티무르왕조 시기의 밀화 융성기 직후에 이탈리아·르네상스 회화의 제2기 황금시대가 출현하였는데, 서아시아 미술과 이탈리아 회화 사이에 문화파동의 인과관계가 보이는 듯하다. 가장 개성을 중시하는 회화와 같은 예술 부문에서 소재나 필법의 측면에서 양자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지만, 서양 르네상스 회화의 의복에 적지 않은 서아시아 기원의 양식이 보이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보면 상당히 밀접하게 양자 사이의 예술적 연관성을 상상할 수 있고, 그 서아시아 회화가 동양의 영향 하에 성립된 것이라고 한다면 서양의 르네상스 회화도 실체는 동양 밀화가 서방으로 전파되는 하나의 파도 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유럽의 르네상스 시기 이후에 나타난 각종 과학·기술 가운데 나침판·화약·인쇄술 등은 그 정확한 기원을 많이 밝힐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동양 혹은 비유럽권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을 볼 수 있다. 아마도 당시의 대세는 새로운 과학과 미술이 동방으로부터 서방으로 상당한 기세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세계는 결코 동과 서라는 두 세계로 나누어진 채

상호 봉쇄된 사회에 간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서양의 르네상스는 동양이 아직 지니지 못한 여러 가지 진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또한 부정할 수 없다. 특히 그 과학성은 동양의 그것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것이 주목된다. 주자(朱子)는 대지가 구형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으나 그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 하늘이 땅 주위를 회전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점 등도 갈릴레오 지동설의 정확성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러한 진보적인 유럽의 르네상스는 곧 더욱 발전하여 다음 단계인 산업혁명으로 사회를 인도하는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유럽의 산업혁명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혁명은 세계의 역사를 크게 전환시켰다. 동양에도 서아시아에도 르네상스와 혁신은 있었지만, 산업 분야와 정치상에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혁명을 경험한 서양문화는 다른 세계를 멀리 후방으로 뒤처지게 하고 단독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다.

유럽의 산업혁명은 결코 유럽 단독의 역사일 수 없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기구(社會機構)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부르주아계급의 흥룡이 있고 또 그것에는 대(對)동양무역에 의한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였다. 기계를 회전시키는 것은 동력만이 아니고 원료가 되는 면화가 필요하며 나아가 그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필요하였다. 원료와 시장을 제공하는 것은 실로 동양이었던 것이다. 동양과의 교통이 없이 산업혁명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프랑스혁명의 배경도 결코 유럽만에 그치지 않는다. 혁명의 원동력이 된 프랑스의 부르주아계급도 또한 동양무역에 의해 네덜란드 방면으로부터 유입·축적된 자본 위에 성립되었다. 나아가 혁명의 지도이념이 된 휴머니즘(인문주의)의 발흥에도 동양사상이 참여하고 있다. 혁명사상가가 생각한 동양의 유토피아적인 정치이상이 실제로 동양에 존재했는가 아닌가

라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서양인의 이른바 신항로·신대륙의 발견, 그 중에서도 중국사회와의 접촉이 유럽인의 이상을 대전환시킨 의미의 심각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원래 유럽의 역사는 그리스도교 사상과 서아시아의 이슬람교 사상의 대립을 계기로 발전하였다. 그리스도교 세계와 대립하는 것은 이슬람 세계이고 이 양자는 영구히 대립할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 아군이 아니면 적, 신이 아니면 악마라고 하는 대립의 세계에는 보편적인 인류, 또 그 인류에 공통된 휴머니즘이라는 이상이 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유럽인이 직접 동양항로를 개척하자 여기서 제3의 세계를 발견하였다. 그리스도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적도 아군도 아닌 인간세계의 존재가 인식된 것이다. 거기에는 야만스럽기 때문에 중립인 것이 아니고 고도의 문명을 가졌으나 그리스도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닌 중립의 세계가 있었다. 이 세계에서 행해지는 유교적 세계관이 종교로 인해 무익한 고뇌를 하던 유럽인에게 부러운 세계로 인식되어 공상화되고 이상화되어 유럽의 현상을 타파하는 혁명을 고취하는 역할을 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세계로부터 공통의 인류를 추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제3의 세계가 출현하여 세 개의 세계가 인식된 지점에서 새롭게 인간성이 의식된 것이다. 두 사람으로는 사회를 형성하지 못하고 세 사람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원리가 여실히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프랑크혁명은 단순한 정치적 변혁이 아니라 르네상스 이래의 휴머니즘 운동의 귀결이고 이 또한 동양과의 교통 없이는 성취할 수 없는 인류의 대사업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두 혁명은 먼저 그것이 일어난 유럽의 힘을 현저히 강대하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르네상스기 이후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선두로 하는 유럽의 팽창은 동양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말해도 아직 그 발전력에는 큰 한계가 있었다. 인도양의 해안지방과 남양(南洋)은 그들 앞에

용이하게 굴복하였지만, 이는 아시아 연변에 일어난 우발사건이며 특별히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 꼭 그로부터 100년 가량 전에 명이 대함대를 조직하여 인도양을 횡행한 때도 역시 같은 현상이 보였던 것이다. 인도양 제패에 성공한 포르투갈이 더욱 동으로 나아가 거대한 중국의 정치력에 부딪히자 상황이 인도양에서와 같이 간단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광둥 앞에서 포르투갈 함대는 명의 군대와 싸워 큰 타격을 입고 패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미 르네상스를 경과한 중국사회는 새롭게 르네상스 단계에 도달한 유럽의 압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유럽의 일본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여서 포르투갈은 일본의 반감을 사서 쫓겨나고 일본의 호의를 얻는 데 성공한 네덜란드만이 때로는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겨우 일본과의 무역을 허가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산업혁명과 정치혁명이 일어난 후 형세는 일변하였다. 애로호 사건으로 두 차례 교전해 본 결과 르네상스 단계의 동양은 도저히 혁명 이후 서양세력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던 것이다.

서양의 르네상스를 가지고 동양의 르네상스 현상을 검토하여 송 이후를 근세사적 발전으로 인정한 나는 이제 동양의 근세사적 발전을 가지고 서양의 근세사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 보통 유럽사는 르네상스 이후를 모두 근세사로 부르는 습관이 있지만, 나의 관점에 의하면 산업혁명 이후의 유럽은 그 이전의 유럽과 엄중하게 구별해야 한다. 산업혁명에 의해 유럽은 아직 일찍이 어떤 세계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근세사적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세사적 발전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욱 적당하다. 나는 르네상스 현상에서 동양의 서양에 대한 선진성을 지적하였지만, 이제는 혁명이라는 현상에서 서양의 동양에 대한 선진성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생각건대 동양은 송대 이후 1천년에 걸쳐 고뇌하면서 마침내 르네상스 이상의 단계로 돌입할 수 없었던 것에 반해, 서양은 르네상스에 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겨우 4~5

세기 후에 새로 최근세사 단계로 비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서양의 르네상스 그 자체가 내재적 발전성을 가진 점에서 동양의 그것보다 우수하기 때문이지만, 서양의 르네상스 자체가 이미 동양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 후 발전의 이면에도 끊임없이 동양과의 교통·연계가 있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애초 역사상에서 교통의 의의는 단순한 양자의 연결에 그치지 않는다. 예컨대 일본에서 미에현(三重縣) 후타미우라(二見浦)의 '부부(夫婦)바위'를 금줄[753繩]로 연결하는 것과 같은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톱니바퀴를 벨트로 연결한 것과 같은 것이다.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도 움직이는 것이다. 오히려 세계 인류는 더욱 유기적인 하나의 생물과 같은 것으로 보는 편이 보다 적당할 지도 모른다. 이 생물은 세계 도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 곳에서 흡수한 양분은 곧바로 다른 부분으로 순환한다. 동양에서 흡수한 영양이 유럽에 모여 산업혁명과 정치혁명을 야기하는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장구한 역사의 눈으로 보면 이 영양은 다시 새로운 활력이 되어 세계 전반으로 재분배되는 날이 올 것이다.

역사를 생각하는 것은 인류의 본능이다. 누구도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역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역사가라는 특정한 사람만의 권리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다. 하지만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정한 틀을 만들어 그 안에서 역사를 생각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틀은 종종 학문적으로 어떤 근거도 없이 고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진리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그 진리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는 공리(公理)와 같이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 혹시 공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인데, 역사상의 공리는 달리 생각할 것도 없는 유일한 것과 같이 생각되지 쉽다. 그리고 역사의 대상은 과거 무한대에 걸쳐 지구를 덮고 연구 제목도 무수히 존재하기 때문에 역사가라고 말해지는 자도 그 틀에서 안심하며 세세한

인과관계의 추적에 몰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틀 그 자체를 반성해 보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가의 진짜 임무는 오히려 선입관에 의해 사람들의 역사인식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틀 그 자체의 검토에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주로 그 하나라고 생각되는 교통의 의의를 중심으로 인류역사에서의 근세사적 발전을 대상으로 논술을 시도해 보았다. 물론 이 역시 하나의 공리를 전제로 한 체계이지만, 교통에 대한 나의 생각이 혹시 잘못된 것이라면 차후에도 세계사에 대한 정리된 체계를 세우는 것은 바랄 수 없고 영원히 지리멸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부록 1]

도나미 마모루(礪波護)의 해설*

동양사가인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 1901~1995)는 지명(知命)의 나이를 맞이한 1950년의 봄과 가을에 두 책의 계몽서를 상재하였다. 『옹정제(雍正帝) - 중국의 독재군주』(岩波書店, 뒤에 中公文庫에 수록)와, 『동양적 근세』(教育タイムス社 간행)가 그것이다.

전자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근세 중국에서 굴지의 독재군주인 옹정제의 존재감을 처음으로 세계에 제시한 평전으로 명저로 이름이 높다. 그러나 그때까지 군국주의 체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당시의 역사학계에서는 전쟁을 찬미한 황국사관에 대한 반성으로 마르크스사관이 활발하고 사회경제사가 아니면 역사가 아니라는 풍조가 지배하면서 인물사는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명군론을 내세운 해당 저서는 오랜 기간 거의 무시되었다. 이에 비해 후자인 송대근세설을 전개한 사론(史論)인 『동양적 근세』의 경우는 당시 역사학계의 중점과제였던 시대구분논쟁에서 가장 주목받은 작품이었던 것이다.

중국의 역사연구에 고대와 근세라고 하는 시대구분의 관점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교토대학(京都大學)의 나이토 고난(內藤湖南: 1866~1934)인데, 사학이론에 밝은 일본사학의 동료인 우치다 긴조(内田銀蔵)의 논설에 유발되어 일찍부터 대학에서 그것을 강의하고 있었지만, 전론으로 공표한 것은 「개괄적 당송시대관(唐宋時代觀)」(『歴史と地理』 9-5, 1922)이

* 『동양적 근세』(1950)와 이를 보강한 5편의 논문을 모아 간행한 것이 宮崎市定 著, 礪波護 編, 『東洋的近世』, 中央公論新社(中公文庫), 1999인데, 그 말미에 礪波護의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은 그 가운데 원래의 『동양적 근세』를 언급한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최초였다. 그 첫머리에서 나이토는

당송시대라는 것은 보통 사용하는 말이지만, 역사 특히 문화사적으로 고찰하면 실은 의미를 갖지 못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당대는 중세의 종말에 속하고 또 송대는 근세의 시작에 해당하면서 그 사이에 당 말에서 오대에 이르는 과도기를 내포함에 따라 당과 송은 문화의 성질상 현저하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역사가는 대부분 왕조를 바탕으로 시대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당송이나 원명청과 같은 것이 하나의 용어였지만, 학술적으로는 그러한 구분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라고 하고 그 마지막에서 “요컨대 지나(支那: 즉 중국)에 있어서 중세·근세의 일대 전환기가 당송 사이에 있다는 것은 역사를 읽는 사람이 가장 주의해야 할 바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사후에 장남인 나이토 간키치(內藤乾吉)에 의해 정리·간행된 강의록 『지나상고사』(1944)에 의하면 나이토의 시대구분은 <제1기>인 개벽부터 후한 중엽까지가 상고이고, 후한의 후반부터 서진(西晉)까지는 <제1과도기>이며, <제2기>인 5호16국부터 당 중세까지가 중세이고, 당 말부터 오대까지는 <제2과도기>이며, <제3기>인 송원시대가 근세 전기, <제4기>인 명청시대가 근세 후기로 되어 있다. 과도기라는 시기를 설정하는 것이 특색이다.

나이토가 「개괄적 당송시대관」을 공표한 직후에 동양사를 전공하고 그 강의를 들은 미야자키는 1940년에 처녀작 『동양에서 소박주의의 민족과 문명주의의 사회』(富士房 간행)를 상재하여 송대 이전에 대해 매우 독창적인 개설류의 사론을 썼다. 시대구분에 대해서는 나이토 설을 계승하면서도 과도기는 설정하지 않고 중세는 삼국의 조위(曹魏)부터 시작한다고 하였다.

패전 후 멸칭적 성격을 지녔다고 하여 ‘지나’라는 글자의 사용을 회피하는 배려가 이루어진 결과 교토의 고분도(弘文堂)에서 간행하던 지나학사(支那學社)의 동인지(同人誌) 『지나학(支那學)』은 기에 있는 멤버의 편집으로 재출발하고 표지도 새롭게 해서 『동광(東光)』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지나학』의 후신인 『동광』 제2호(1947년 11월)에 타이베이(臺北)에서 귀국하여 교토대학 조교수가 된 직후의 우쓰노미야 기요요시(宇都宮清吉: 1905~1998)가 「동양중세사의 영역」이라는 글을 기고하여 나이토의 시대구분에서는 과도기 개념이 불명료하다고 비판을 가하였다. 우쓰노미야는 시대라는 것에 대해 개체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여 진한시대의 정치성과 육조시대의 자율성을 대비시켜 ‘시대격’이라는 개념을 창출하고 “동양중세사는 그것이 완전한 모습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진한시대에 시작하여 수당에서 마치는 시대를 그 영역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 『동광』의 편집후기에서 모리 시카조(森鹿三)는 우쓰노미야의 논문에 대해 “거기에는 나이토사학에 의해 일단 부정된 왕조의 망령이 머리를 쳐들고 있다. 이 신감각파(新感覺派)의 학도가 왕조사로 회귀할 리는 없지만, 인격에 빚대어 ‘시대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왕조(적어도 한과 당이라는 두 왕조)는 나눌 수 없는 개체로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려하였듯이 반론을 촉발하는 문장이었다.

역시 마르크스주의적 방법에 선 ‘역사학연구회’의 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도쿄대학(東京大學) 출신의 마에다 나오노리(前田直典: 1919~1949)는 『역사(歷史)』 1권4호(1948년 4월)에 「동아시아에서 고대의 종말」을 발표하여 우쓰노미야의 설을 비판하면서 “나이토 박사의 뛰어난 시대사관이 여기에서는 애매하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우려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시대구분의 기준으로 오로지 직접생산자의 성격을 중시함으로써 “교토학파의 중세는 거기서 말하는 바의 고대와 거의 구분이 되

지 않는다”라고 비판한 뒤 “동아시아의 경우 지나(支那)에서는 9세기 전후에 고대가 종언하고 조선·일본에서는 12·13세기 경에 마찬가지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당대까지가 중국의 고대이고 송대 이후에 중세 봉건사회가 시작된다고 하는 신설을 피력하였던 것이다.

마에다는 그 이듬해에 병으로 사망하였지만, 중국의 중세는 송대부터 시작한다는 시대구분론은 1950년의 ‘역사학연구회대회’에서 행해진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와 호리 도시카즈(堀敏一)의 보고 및 질의응답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그때는 마침 신제(新制) 고등학교에서 사회과 교육에 ‘세계사’ 수업이 시작되었고 그 교과서의 편집시기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태반의 교과서에 송대중세설이 채용되게 되었다. 미야자키의 『동양적 근세』는 바로 그 1950년에 문화사적인 나이토의 설을 조술(祖述)하면서 새롭게 자신이 탐구한 사회경제사의 성과를 섞어서 쓴 것이다.

그 10년 후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學)의 마쓰부치 다케오(増淵龍夫: 1916~1983)는 「일본에서의 동양사회경제사학의 발달(상)」(『사회경제사대계(社會經濟史大系)·X』, 1960년 10월, 弘文堂 간행)을 쓰면서 당 말까지의 각 시대에 관한 사회경제사학의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전제로 중국사의 시대구분논쟁에 대해 상세히 논평하였다. 마쓰부치는 “미야자키는 나이토의 송대근세설을 계승하고 서아시아나 유럽과의 교섭관계를 그 시야에 두고 세계사의 일환으로 송대의 ‘근세’적 제반 현상을 사료 안에서 개발하고 위치시켰다”라는 것 등을 서술한 후 다음과 같이 총괄하였다. 즉

똑같이 당·송 간을 변혁기라고 한 나이토의 견해를 출발점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미야자키는 중세에서 근세로의 전환기로 보고, 마에다는 고대에서 중세로의 전환기로 보는 그러한 견해의 차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뒤로 남겼다. 두 견해의 차이를 유발시킨 이유의 하나는 미야자키가 중국사의 전개를 서아시아 및 유럽과의 상호관련성에서 파악한 것에 비해, 마에다는 중국사의 전개

를 일본 및 조선 등 중국 주변의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역사와의 상호관련성에서 파악한 것에 있는데, 마에다의 경우에는 마르크스주의적 방법에 근거한 전후(戰後) 일본사 연구의 새로운 전개로부터 자극받아 제기한 이른바 가설적인 문제제시였다. 그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방면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동양적 근세'론을 전개한 미야자키의 경우에 비하면 단지 직접 생산자로서 노예가 많은가 전호(佃戶)가 많은가라는 점만을 중시한 시대구분이어서 그들 직접생산자가 구성하는 사회의 구조와 형태, 나아가서는 그러한 사회구성과 그 위에 세워진 정치형태와의 관련성은 조금도 검증되지 않았다(182~183쪽).

라고 하였다. 『동양적 근세』는 발간 당초에는 논란의 대상으로서 읽혀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마르크스사관이 퇴조해 버린 지금에 있어서는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어 오히려 의거해야 할 통설로 긍정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1999년 5월)

[부록 2]

나이토 고난(內藤湖南), 「개괄적 당송시대관」*

당송시대라는 것은 보통 사용하는 말이지만, 역사 특히 문화사적으로 고찰하면 실은 의미를 갖지 못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당대는 중세의 종말에 속하고 또 송대는 근세의 시작에 해당하면서 그 사이에 당 말에서 오대에 이르는 과도기를 내포함에 따라 당과 송은 문화의 성질상 현저하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역사가는 대부분 왕조를 바탕으로 시대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당송이나 원명청과 같은 것이 하나의 용어였지만, 학술적으로는 그러한 구분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은 편의상 보통의 역사구획에 따라 당송시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나(支那: 중국)의 중세에서 근세로 이행하는 사이의 변화 상황을 총괄하여 설명해 보려고 한다.

중세와 근세의 문화 상황은 어떤 점이 다른가라고 하면 정치상으로는 귀족정치가 쇠퇴하고 군주독재정치가 출현하는 것인데, 귀족정치는 육조(六朝)에서 당의 중세까지가 가장 성행한 시대였다. 물론 이 귀족정치는 상고의 씨족정치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주대의 봉건제도와도 관계가 없이 일종의 특별한 것이다. 이 시대 지나의 귀족은 제도적으로 천자로부터 영토·인민을 사여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문이 자연스럽게 지방의 명망가로서 영속하는 관계에서 생겨난 것으로 소위 군망(郡望)이라는 것의 본체가 이것이다. 그들 가문은 모두 계보를 중시하였고 그 때문에 당시에 계보학이 성행하였을 정도이다. 현재 존재하는 서적 안에서 『신당서』 재상세계표(宰相世系表)는 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연수(李

* 『歴史と地理』 第9卷 第5號, 1922년 5월에 발표

延壽)의 『남사(南史)』·『북사』 안에는 왕조에 구애되지 않고 각 집안의 사람을 선조부터 자손까지 이어서 정리한 전(傳)을 서술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가전(家傳)을 만든 체재(體裁)가 되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이는 남북조시대의 실제 상황이 무의식 속에 역사상으로 발현된 것이다.

그와 같은 명족은 당시의 정치적 위치에서 거의 초월해 있었다. 즉 당시의 정치는 귀족 전체의 전유물이라고도 해야 할 것이어서 귀족이 아니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일류의 귀족이 반드시 천자·재상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특히 천자의 위치는 가장 특별한 것으로 이는 실력 있는 자에게 돌아갔지만, 천자가 되어도 그 가문이 일류 귀족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당 태종이 천자가 되었을 때 귀족의 계보를 조사시켰는데, 일류 가문은 북방에서는 박릉(博陵) 최씨(崔氏), 범양(范陽) 노씨(盧氏) 등이고 태종의 집안은 농서(隴西) 이씨로 삼류에 위치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가문 등급은 천자의 힘으로도 변경할 수 없었다. 남조에서도 왕씨(王氏)·사씨(謝氏) 등이 천자의 가문보다도 훨씬 높게 평가되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계급의 귀족끼리 결혼을 하고 그들 집단이 사회의 중심을 형성하여 가장 좋은 관직은 모두 그들이 차지하였다.

이 귀족정치는 당 말에서 오대까지의 과도기에 몰락하고 이를 대신한 것이 군주독재정치이다. 귀족이 몰락한 결과 군주의 위치와 인민이 근접하게 되어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우에도 가문에 따른 특권이 없어지고 전적으로 천자의 권력에 의해 임명되었다. 이 제도는 송대 이후 점차 발달하여 명청시대는 독재정치의 완전한 형식이 만들어져 국가의 모든 권력의 근본은 천자 한 사람이 가지고 다른 어떤 고관도 전권(全權)을 지니지 못하였다. 군주는 결코 어떠한 관리에게도 그 직무의 전권을 위임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관리는 그 직무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없으며 군주 한 사람이 이를 지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정치상황을 비교해 보면 귀족정치시대에 군주의 위치는 때

로 실력 있는 자가 계급을 초월하여 차지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미 군주가 되면 귀족계급 내 하나의 기관(機關)이라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즉 군주는 귀족계급의 공유물이고 그 정치는 귀족의 특권을 인정한 위에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절대적 권력을 가질 수 없었다. 맹자는 일찍이 경(卿)에는 이성(異姓)의 경과 귀척(貴戚)의 경이 있었는데, 후자는 군주에게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간언하고 이를 듣지 않으면 군주를 교체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일은 상대(上代)만이 아니라 중세의 귀족정치시대에도 종종 실행되었다. 군주는 일족 즉 외척·종복(從僕)까지도 포함한 일가의 전유물이고 따라서 이들 일가의 뜻에 맞지 않으면 폐립이 행해지거나 아니면 시역(弑逆)이 행해졌다. 육조에서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시역·폐립이 많은 것은 그러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 일가의 사정은 다수 서민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다. 서민은 국가의 요소로 어떠한 지위도 없었고 정치와는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군주가 단순히 귀족의 대표적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은 중세의 상황인데, 근세에 들어서 그 귀족이 몰락하자 군주는 직접 신민(臣民) 전체를 대하게 되고 신민 전체 공공의 소유물이 되었으며 귀족 집단의 사유물과는 다른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신민 전체가 정치에 관계하게 되면 군주는 신민 전체의 대표가 되어야 할 터이지만, 지나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군주는 신민 전체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 절대권력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군주의 위치는 귀족시대보다는 매우 안전하게 되어 폐립이 용이하지 않았고 시역도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은 송 이후의 역사가 그러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만 원대(元代)만은 자못 예외적 면이 있다. 이는 몽골문화에 의한 것으로 몽골의 문화는 동시대의 지나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도리어 지나의 상고시대와 같은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를 정복한 탓에 갑자기 근세적인 국가조직 위에 군림하였으므로 그 황실에는 여전히 귀족정치 형태가 남아있고 민정(民政) 쪽만이 근세적 색채

를 지냈기 때문에 일종의 모순된 상태가 나타난 것이다.

귀족정치의 시대에는 귀족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므로 수 문제와 당 태종과 같은 영주(英主)가 나타나 제도상에 있어서는 귀족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치에서는 아직 형식이 남아있어 정치는 귀족과의 협의체가 되었다. 물론 이 협의체는 대의정치인 것은 아니다.

당대에 있어서 정치상의 중요 기관은 세 개가 있었다. 상서성, 중서성, 문하성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중서성은 천자의 비서관으로 조칙명령의 안(案)을 작성하고 신하의 상주에 대해 비답(批答)을 만들게 되어 있었지만, 이 조칙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문하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였다. 문하성은 봉박(封駁)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만약에 중서성의 안문(案文)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를 박격(駁擊)하고 이를 봉환(封還)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그래서 중서와 문하가 정사당(政事堂)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였던 것이다. 상서성은 이 결정을 받들어 집행하는 직무를 가졌다. 중서성은 천자를 대표하고 문하성은 관리의 여론, 즉 귀족의 여론을 대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물론 중서·문하·상서 3성의 고관은 모두 귀족 출신이었고 귀족은 천자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한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신하의 상주에 대한 천자의 비답 등도 극히 우의적(友誼的)이고 결코 명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명청시대가 되면 비답은 전적으로 종복(從僕) 등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권위적이고 명령적으로 되고 봉박의 권한은 송 이후 점점 쇠퇴하여 명청에 이르면 거의 없어졌다.

그와 같이 변화한 결과 재상의 위치는 천자를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서관과 같게 되지만, 그래도 송대에는 당대의 유풍도 존재하여 재상은 상당한 권력을 가졌다. 하지만 명대 이후에는 완전히 재상의 관직을 설치하지 않게 되고 사실상 재상의 직무를 맡은 것은 전각대학사(殿閣大學士)였다. 이것은 관직의 성질로서는 천자의 비서관이자 대필(代筆)의 역

할이어서 이전에 천자를 보좌하여 그 책임을 나누거나 혹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고대 재상의 모습이 아니고 군주권만이 무한대로 발달하였다. 당대의 재상은 모두 귀족계급 안에서 임명되고 한번 그 지위에 이르면 천자라고 해도 그 권력을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관습이었지만, 명대 이후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재상도 천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곧바로 퇴출되어 일개 평민이 되고 죄수가 되었다. 송대는 대략 당과 명칭 사이의 중간 정도에 있었으므로 명칭과 같이 재상에게 권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천자의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성시대를 맞이하지만, 천자의 지지를 잃으면 곧바로 일개 필부가 된다. 송의 구준(寇準)·정위(丁謂), 남송의 가사도(賈似道) 등의 처지 변화를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방관 등도 당대에는 중앙권력에 대해 각 지방에서 거의 군주와 마찬가지로의 권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지만, 송대 이후는 어떤 좋은 위치의 지방관도 군주의 명령 하나로 쉽게 교체되었다. 환관은 천자의 중복이었지만, 당대의 환관은 천자의 유력한 측근으로서 마침내 '정책국로·문생천자(定策國老·門生天子)'라는 말까지 듣게 된다. 하지만 훗날 명대에도 환관이 발호하지만, 천자의 은총이 있을 때만 권력이 존재하고 은총을 잃으면 그 권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당과 명의 환관은 그러한 차이가 있지만, 이는 귀족정치와 군주독재정치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인민의 지위도 현저하게 변화하였다. 애초 법치국가와는 달리 인민의 권력을 명확하게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인민의 지위와 재산상의 개인 권리는 귀족정치시대와 크게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귀족시대의 인민은 귀족 전체의 노예와 같이 간주되었지만, 수당시대가 되어 인민을 귀족의 수중에서 해방시켜 국가 직할로 삼고 특히 농민은 국가의 소작인과 같이 취급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실제로는 귀족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주를 옹립한 귀족단체의 소작인이라는 상태에 있었다. 토지의 분배제도 등도 그러한 의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특히 조

세의 성질은 그 의의를 가장 잘 나타낸다. 즉 당대의 조·용·조(租庸調) 제도는 인민이 정부에 대해 지대(地代)를 납부하고 노역에 복무하고 공작품(工作品)을 제공하는 것이다. 당대 중엽부터 이 제도가 스스로 무너져 양세(兩稅)제도로 바뀌고 인민의 거주가 제도적으로 자유롭게 해방되었으며 지조(地租) 등의 납부도 전(錢)으로 대납하게 되었으므로 인민은 토지에 구속된 노예소작인의 지위로부터 저절로 해방되는 단서가 열렸고, 송대에 이르면 왕안석의 신법에 의해 인민의 토지소유의 의미가 더욱더 명확하게 되었다. 청묘전(靑苗錢)과 같은 저리의 자금용통법도 인민이 토지의 수확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종래의 차역(差役)을 고역(雇役)으로 바꾸자 반대파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이 고역제도는 당시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이었으므로 뒤에 사마광이 왕안석의 신법을 바꿀 때 신법반대론자 중 소동파(蘇東坡) 등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차역을 복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나는 인민의 참정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는 해도 귀족계급을 소멸시키고 군주와 인민이 직접 상대하게 된 것은 근세적 정치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또 군주와 인민의 중간계급인 관리의 선거(選舉)도 바뀌었다. 물론 이때의 선거란 지금의 대의정치와 같은 대의적인 것이 아니고 일종의 관리 등용의 형식을 가리키는데, 즉 선거의 방법이 귀족적 계급에서 등용하는 방식에서 시험등용 즉 과거로 바뀐 것이다. 육조시대에는 천하의 관리를 구품중정(九品中正)의 방법으로 선거하여 전적으로 귀족권력에 의해 좌우 되었으므로 당시에 “상품무한문, 하품무세족(上品無寒門, 下品無世族)”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수당 이후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과거를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대의 과거는 그 방법이 역시 여전히 귀족적이었는데, 이 또한 송의 왕안석 시대에 바뀌었다. 즉 당대부터 송 초기까지의 과거는 첩괄(帖括)과 시부(詩賦)를 위주로 하였다. 경서를 암송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첩괄이고 문학상의 창작력을 시험하는 것이 시부이다. 이 때문에

그 시험은 학과(學科) 시험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격과 문장초안 능력을 시험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왕안석의 제도에서는 첩괄을 대신하여 경의(經義)을 시험하였고 시부를 대신하여 책론(策論)을 시험하였다. 경의는 경서 안의 의리(義理)에 관해 의견을 적게 하고 책론은 정치상의 의견을 적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뒤에 경의는 단순히 순간적 착상으로 시험관을 놀라게 하는 문장의 유희로 변질되고 책론도 단순히 조잡한 역사상의 사실을 개설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어 실제의 정무(政務)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꾼 것은 종래의 인격주의로부터 실무주의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시험에 응시하는 자도 당대에는 1년에 50인 가량만 급제하였지만, 명대 이후 과거급제자는 크게 증가하여 어떤 때는 3년에 한번이기는 해도 수백 인을 초과하였고 응시자는 항상 1만 이상을 헤아렸다. 즉 군주독재시대에 있어서 관리의 자리는 일반서민에 대해서도 기회균등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정치의 실제 상태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특히 당파와 같은 것은 그 성질이 일변하였다. 송대에도 붕당이 요란하였는데, 당의 붕당은 단순히 권력싸움에 몰두하는 귀족 중심의 일이었다. 데 비해 송대가 되면 현저히 정치상의 주장이 붕당에 나타났다. 즉 정권이 귀족의 손을 벗어나면서 혼인이나 친척관계에서 생겨난 당파가 점차 쇠퇴하고 정치상의 의견이 당파를 만드는 주된 목적이 된 것이다. 물론 이 당파의 폐해는 정치상의 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점차 귀족시대와 유사한 것이 되어 명대에는 사제(師弟) 관계, 출신지방 관계 등이 주로 이를 지배하여 소위 군자가 만든 당파도 그 폐해가 소인의 당파와 차이가 없게 되었다. 명은 마침내 동림당(東林黨) 때문에 멸망하는 상황에 이르고 청조는 신하의 당파를 매우 싫어하였고 그 때문에 군주의 권력을 점점 절대화하였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당대에는 유명한 개원통보(開元通寶)를 주조하고 계속 화폐의 주조가 이루어졌으나 그 유통

액은 생각보다 적었다. 화폐의 유통이 성행한 것은 송대에 이르러서였다. 당대는 실물경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재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화폐로 견포(絹布)를 많이 이용하였다. 하지만 송대에 이르면 견포·면(綿) 등을 대신하여 동전을 사용하였고 나아가서는 지폐까지 널리 사용하였다. 지폐는 당대에 이미 비전(飛錢)이라고 하며 사용하였는데, 송대에 이르러서는 그 이용이 매우 성행하였다. 송대에는 이를 교자(交子)·회자(會子) 등이라고 칭하였고 남송시대는 그 지폐의 발행액이 매우 높았고 그 때문에 물가의 변동도 심하였다. 어쨌든 충분히 이용되어 다음의 원대에 이르면 거의 동전을 주조하지 않고 단지 지폐만을 유통시키게 되었다. 명대 이후 불환지폐(不換紙幣) 정책이 극단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마침내 멸망하였지만, 요컨대 송대에 들어 화폐경제가 매우 성행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은도 이 무렵부터 점차 화폐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고 북송시대 등은 미미한 유통에 머물렀다고 해도 남송에 이르면 상당히 성행한 듯하고 원의 백안(伯顔)이 남송을 멸망시키고 북경(北京)으로 돌아갈 때 남송의 창고에서 획득한 은을 북경으로 운반하기 위해 일정한 형태로 주조한 것이 지금의 원보은(元寶銀)의 시초라고 말해지고 있으므로 송 말에는 상당히 유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명청에 이르러 이 경향이 더욱 성대해지고 마침내 완전히 은이 지폐의 위치를 빼앗았다. 어쨌든 당송 교체기가 실물경제의 말기이자 화폐경제의 시작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화폐의 명칭 등도 자연히 변화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전(錢)이 양(兩)이나 수(銖)로 칭해졌지만, 이는 물론 중량의 명칭으로 1양이 24수로 환산되었다. 송대 이후 1양을 10전으로 계산하게 되니 즉 1전은 2수4류(綮)에 해당하였다. 원래 개원통보 1문(文)은 중량으로 2수4류이고 1문이 1양이 되었으므로 송대부터는 중량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전의 개수로 나타내게 되고 이를 통해서도 전의 사용이 당시에 얼마나 성행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중량의 명칭을 1문(匁: 1文)이라고 한 것은 지나에서 사용하던 전(錢)의

명칭을 거꾸로 사용한 것이라 하겠다.

학술문예의 성질도 현저하게 변화하였다. 그 중 경학(經學)과 문학 방면을 보면, 경학의 성질은 당대에 이미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당 초기까지는 한위육조(漢魏六朝)의 풍을 전하여 경학은 가법(家法) 또는 사법(師法)을 중시하였다. 옛날부터 전해 온 설을 가지고 이를 부연하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사법을 바꾸어 신설을 세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물론 그 사이에는 갖가지 요령을 부려 여러 차례나 옛 설을 바꾸었으나 공공연히 그와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당시의 저술은 주로 의소(義疏)를 위주로 하였다. 의소란 경서의 주(注)에 대해 자세히 해설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원칙적으로 '소불파주(疏不破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대 중엽부터 고래의 주소에 의문을 품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이는 나타났다. 그 가장 이른 것은 『춘추』에 관한 신설(新說)이다. 그 후 송대가 되면 이 경향이 극단으로 발달하여 학자는 천고부전(千古不傳)의 유의(遺義)를 유경(遺經)에서 발견하였다고 하고 무릇 자기의 견해로 새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풍토가 되었다. 문학 안에서도 문장은 육조 이래 당까지 사륙문(四六文)이 유행하였는데, 당대 중엽부터 한(韓)·유(柳)의 제가(諸家)가 나타나 소위 고문체를 부흥시켜 모든 문장이 산문체로 되게 되었다. 즉 형식적 문장이 자유로운 표현법의 문장으로 바뀐 것이다. 시(詩) 방면을 보면 육조시대까지는 오언(五言)의 시로 선채(選體) 즉 문선체(文選體)가 성행하였다가 성당 경부터 그 풍이 일변하여 이(李)·두(杜) 이하의 대가가 나와 점점 종래의 형식을 깨뜨리게 되었다. 당 말부터는 또 시 외에 시여(詩餘) 즉 사(詞)가 발달하게 되어 오언·칠언의 형식을 깨뜨리고 자못 자유로운 형식으로 변화하고 음악적으로 특히 완전히 발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송부터 원대에 걸쳐 곡(曲)이 발달하게 되어 종래의 짧은 형식의 서정적인 것에서 복잡한 형식의 극(劇)이 되었다. 그 사 등도 전고(典故)가 있는 고어(古語)를 위주로 하지 않고 속어(俗語)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한때는 귀족적인 문학이 일반하여 서민적인 것이 되려고 하였다.

또 예술 방면에서는 육조·당대까지는 벽화가 성행하여 주로 채색을 위주로 한 것에 비해 성당 무렵부터 백묘수묵(白描水墨)의 신파(新派)가 성행하였다. 다만 당대에는 신파가 구파를 압도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오대부터 송대에 걸쳐 벽화가 점차 병장화(屏障畵)로 바뀌어 금벽(金碧)의 산수는 쇠퇴하고 묵회(墨繪)가 점점 발달하였다. 오대를 중심으로 볼 때 이전의 회화는 대체로 전통적인 풍격을 중시하고 사건을 설명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었지만, 새로운 수묵화는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는 자유로운 방법을 취하여 종래에 귀족의 도구로 굉장(宏壯)한 건축물의 장식으로 이용된 것이 권축(卷軸)이 성행하게 되어 서민적이지는 않지만 평민에서 출신(出身)한 관리가 떠다니는 가운데 휴대하여 즐기는 것이 가능한 종류의 것으로 변화하였다.

음악도 당대는 무악(舞樂)이 주된 것 즉 음(音)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 무(舞)의 동작을 부속시킨 것이어서 악률(樂律)도 형식적이고 동작에 흥내 등의 의미는 적어 특히 귀족적인 의식에 상응하는 것이었지만, 송대 이후 잡극의 유행에 따라 흥내와 같은 비근(卑近)한 예술이 성행하게 되고 그 동작도 비교적 복잡해져서 품위에 있어서는 고대의 음악에 비해 뒤떨어졌으나 단순하게 저급한 평민의 취미에 맞도록 변화하였다. 그것이 가장 현저하게 발달한 것은 남송시대이다.

이상과 같이 당과 송의 시대에 있어서 모든 문화적 생활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그 외에도 미세하게 개인적 생활을 관찰해 보면 그 어딘가에 있어서도 이 시대에 변화가 보일 것이지만, 지금은 그러한 미세한 사항을 서술하지는 않겠다.

요컨대 지나에 있어서의 중세·근세의 일대 전화의 시기가 당송 사이에 있다는 점은 역사를 공부하는 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바이다.